

놓치지 마세요! 선상가공업 신고

선상가공업이란?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에서 수산동식물을 원료하여 냉동하거나 냉장하는 사업

선상가공업에 해당하는 선박은 반드시
조업 전 **선상가공업 신고**를 해야합니다!

중요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는 변경사항 발생 후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합니다!

* 대표자, 선박의 명칭, 선적항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신고해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부산지원



원양 산업

제 1184 호
(2025년 8월 15일 발간)

창간: 1972년 8월 1일

등록일자: 1981년 8월 27일

등록번호: 서초-라00012 / 월간발행(비매품)

Contents



협회소식

- 협회-부산시, 「원양 산업 미래 전략」 협약 체결 / 04
- 원양산업 재도약을 위한 발전방안 연구용역 부산 간담회 개최 / 05
- 수산분야 국정과제 관련 의견 수렴 간담회 참석 / 06
- 협회,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 행사 참석 / 06
- 원양산업 “다시 바다로, 다시 세계로” / 07



명예해양수산관 리포트

- 명예해양수산관 리포트 / 10



이달의 요리

- 코다리뎀밥 / 19



해외수산정보

■ 국제유가 동향

- 8월 싱가포르 MGO 가격, 평균 672달러 / 20

■ 참치어업 동향

- 美, 태국 통조림 적용 관세 19%로 인하 / 21
- EU-미국, “획기적 관세 합의” 통해 무역전쟁 회피 / 22
- 日-PNG, 참치 관련 협력 강화 / 23

- EU-인도네시아, FTA 합의 도달 / 24
- 남태평양 국가, 남태평양 날개다랑어 쿼터에 합의 / 25
- 태평양 참다랑어 관리, HCR 의견차로 합의 실패 / 26
- 日 대만산 냉동 농다랑어 6월 수입 급감 / 27
- 日 2025년 6월 냉동 다랑어류 수입 통계 발표 / 28
- 태국 참치 수출업체, 미국의 원산지 규정 도입에 우려 / 29
- 타이유니온, 콜라겐 공장 설립에 3,000만 달러 투자 / 29
- 타이유니온, 2025년 상반기 매출 감소 / 30
- 일본산 참다랑어류, 라스팔마스 통해 수출 확대 모색 / 31
- 中, 신규 참치 가공공장 건설 예정 / 32
- 中 국영 참치 기업, 1분기 실적 부진 / 33
- 中 상하이카이창, 신규 선망선 2척 발주 / 34
- 5월 PNA 전재량, 4월 대비 감소 / 34
- 3개 태평양 도서국, EEZ 확장 추진 / 35
- 대만, 2024년 WCPO 어획량 호조 / 36
- 대만 연승선단, 2024년 어획량 증가 / 37
- 2024년 세계 참치 수입량 30% 급증 / 38
- 태국산 통조림, 美 관세 위기 속 상반기 수출 호조 / 39
- 美 1~5월 참치 통조림 수입 급증 / 40
- EU, 1분기 지속 로인 수요 급증 / 41
- EU, 1분기 아시아산 참치 통조림 수입 증가세 / 42
- EU 1분기 날개다랑어 원어 수입, 5년 만의 최고치 / 42
- 美 6월 상온보관 참치 가격 안정세 / 43

원양산업 제1184호 발 행 2025년 8월 15일
 등록일자 1981년 8월 27일
 등록번호 서초-라00012
 발 행 처 특수 법인 **한국원양산업협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6층
 (양재동, 삼호물산A빌딩)
 발 행 인 김 영 규
 편 집 인 김 영 규

Contents

- 참치 통조림, 미국서 가장 저렴한 단백질 지위 유지 /44
- 북미 참치 시장, 2023년까지 \$108억 성장 전망 /44
- 2025년 에콰도르 참치 수출 호황 /45
- 영국 2024년 가다랑어 통조림 수요 증가 /46
- 프랑스 참치 시장, 기하급수적 성장 /47
- CNN, 대만 원양선단 외국인 선원 인권침해 집중보도 /48
- EU 법원, 英 유통업체에 dFAD 어획 참치 퇴출 압박 /49
- 기후 변화로 참치 어장 이동 /49
- 말레이시아, 참치산업 중심 항만 조성 추진 /50
- 인도, 몰디브와 수산 및 양식 분야 양해각서 체결 /50
- 아메리칸사모아 경제, 스타키스트 의존 심화 /51
- 호주, 태평양 불법 어선 감시 강화 /52
- 오징어어업 동향
 - 살오징어류 국제 현황: 中 적도오징어 조업 지속 /53
 - 페루, 오징어 자원 과학조사 착수 /53
 - 갈리시아 선단, 포클랜드 오징어 조업 출항 /54
 - 日 살오징어 1~5월 어획량 30% 증가 /55
 - 포클랜드 롤리고오징어 어업 재개 준비 /56
 - 동해 살오징어 회유량, 여전히 부족한 상황 /58
 - 러 극동 오징어 조업, 중소형 선박 중심 재편 필요 /59
 - 베트남 오징어·문어 수출액, 2022년 이후 최고치 /60
- 명태어업 동향
 - 러, 7월 말 명태 어획량 지난해 대비 4천 톤 증가 /60
 - 러 업계, 정부 가격 통제 정책에 대한 반발 심화 /61
 - 러, 최대 명태 업체 CEO 교체 /62
 - 美 알래스카 명태, B시즌 전환기 진입 /63
 - 日 마루하니치로, 1분기 실적 호조...명태 회복세 영향 /65
- 美, 알래스카 명태 1억 달러 이상 구매 계획 발표/66
- 러 수산물, 수출량-수출액 동반 감소 /67
- 대구 공급난에 비인종 제품 수요 증가 /68
- 러, 2026년 바렌츠해 대구 할당량 17% 증가 제안 /68
- 저층어류 무역 2년 연속 감소 /69
- 일본, 미국산 명태 연육 가격 인상에 반발 /70
- 러, 2030년까지 중등 수산물 수출 8만 7,000톤 목표/71
- 공치어업 동향
 - 日 연구소 “올해 공치 어획량, 작년 수준 예상” /72
 - 日 공치협회 “러 금수조치로 소형 공치 판매 우려” /73
 - 日 유망어업 공치, 3년 만에 양륙 /74
- 각국 수산 동향
 - 노르웨이, 남극 크릴 어획 독주 /75
 - 日, 2023년 수산물 생산량 2% 감소 /76
 - 노르웨이, 러 기업 제재 조치 동참 /77
 - FAO, 세계 수산물 소비 증가세 둔화 전망 /78
 - 英, MPA 저층 어업 전면 금지 추진 /79
- ❁ 쉬어가는 난
 - 꽃 - 김춘수 /80
- ❁ 국내 수산 정보
 - 7월 오징어 국내 동향 /81
 - 7월 명태 국내 동향 /83
 - 세계 오징어, 공급 부족 속 가격 상승 /85
 - 어업과 수산업 법적 지위 재정립 필요 /86
 - 수산물 소비 활성화 위한 새로운 접근 필요 /87
 - 기후 위기 최전선에 선 식량 산업 /87

협회-부산시, 「원양 산업 미래 전략」 협약 체결 원양산업 지속가능 발전 및 부산 위상 강화 도모



우리 협회와 부산시가 8월 12일 부산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디지털-ESG 기반 「원양 산업 미래 전략」 협약을 체결하였다.

동 업무협약은 원양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원양 산업 거점도시 부산의 위상 강화를 위한 상호 협력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번 체결식에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김영규 협회장이 직접 참석하여 협약서에 공동 서명하였다. 아울러 (주)동남 윤명길 회장, 동원산업 김오태 부산지사장, 사조산업 임채욱 부산지사장, 신라교역 박순세 부산지사장 등 원양업계 관계자 및 전국원양선원노동조합 박진동 위원장 등이 체결식에 참석하였다.

양측은 협약의 목적으로 △원양 산업 기반 구축 및

경쟁력 강화 ▽원양 산업의 디지털화 및 스마트 계측·유통 체계 구축 ▽원양 산업 유산 보존 및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전시·교육 ▽글로벌 교류 확대 및 국제협력 프로젝트 공동 추진 ▽ESG 기반의 친환경 선박 도입 및 탄소중립 전략 추진 등의 사항에 합의하였다.

김영규 협회장은 “원양산업은 디지털 전환과 ESG 경영을 통해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을 동시에 갖춘 미래형 산업으로 탈바꿈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히며 “오늘 협약을 통하여 원양 산업의 전 주기에 걸친 혁신적 변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아울러 부산이 디지털 해양도시, 글로벌 원양산업 허브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협회도 모든 역량을 다해 협력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원양산업 재도약을 위한 발전방안 연구용역 부산 간담회 개최

용역 관련 보고 및 업계 건의사항 등 청취



우리 협회는 8월 5일 협회 부산지부 회의실에서 「원양 산업 재도약을 위한 발전 방안」 연구용역에 대한 부산 지역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동 연구용역은 우리 원양산업 70주년을 앞두고, 원양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려는 취지에서 추진 중이다. 이번 간담회는 부산시에 위치한 회원사를 대상으로 진행상황을 보고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하려는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업계에서는 동신어업 김종률 대표, 동원산업 김오태 상무 외 1명, 동원수산 주정일 부장, 신라교역 김용범 부장, 정일산업 김남기 전무, 코삭교역 정진욱 상무(이상 가나다순)가 참석하였다.

연구용역 추진 기관인 한국수산물수출진흥위원회 수산정책연구소에서는 연구용역 수행 계획,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 용역 수행 후 사후관리 방안 등을 설명하였다.

용역 연구진은 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산분야 국정과제 관련 의견 수렴 간담회 참석

수산업 현안 진단 및 수산정책 관련 토론 등 진행

우리 협회는 7월 21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 경제2분과가 주최한 ‘수산업·단체 정책 간담회’에 참석하였다.

동 간담회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수산업 육성, 어민 소득증대와 정주여건 개선, 어촌 청년 유입 지원방안 등 수산업 전반에 걸친 현안을 논의하고, 수산업과 관련된 국정과제를 발굴하며, 이에 관한 수산업계의 각종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제2분과 윤준병 기획위원을 비

롯한 전문위원, 자문위원을 비롯하여 국내 수산업계를 대표하는 지역 수협 조합장, 수협중앙회, 유관 협회장이 참석하였다. 우리 협회에서는 김영규 협회장이 참석하였다.

김영규 협회장은 기획위원회에 원양산업 개요 및 현황에 대하여 보고하고, ▽원양어선 안전펀드사업 예산 확대 ▽원양어선원 소득세 전액 비과세 ▽원양어선 톤세제 등 세금 감면 제도 도입 ▽어장 보유 국가 대상 ODA 확대 ▽「원양산업 재도약을 위한 발전 방안」연구 용역 적극 협조 등의 건의사항을 제시하였다.

협회,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 행사 참석

<광복 80년, 국민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 행사 초청

우리 협회는 8월 15일 광복절 제80주년을 기념 행사 <광복 80년, 국민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 행사에 참석하였다.

동 행사는 광복 80주년을 기념하고 국민주권의 의미를 되새길 목적으로 개최되었으며, 전직 대통령 및 전현직 국회의원 등 정계 인사, 국내 10대 그룹 총수 및 경제 6단체장 등 여러 재계 인사

들이 참석하였다. 우리 협회에서는 김영규 협회장이 초청받아 참석하였다.



원양산업 “다시 바다로, 다시 세계로”

수출효자 원양산업, 다시 뚝다

2027년이 되면 우리나라 원양산업이 시작된 지 70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사람에게 70세는 일생을 돌아보며 얻은 지혜와 경험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중요한 시점이듯, 원양산업도 70주년을 맞이하여 원양산업의 역사와 성과를 되돌아보고, 다가오는 새로운 도전에 대비해야 한다.

바다의 날을 기념하여, 원양산업이 우리 역사에 남긴 발자취를 반추하는 한편, 원양산업이 현재 처한 상황과 함께 앞으로의 세계 정세 속에서 원양산업이 가질 의의를 검토하며, 원양산업이 70주년을 맞아 재도약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한국 초창기 경제발전과 외화벌이의 숨은 주역〉

세계 최빈국이었던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초창기 주역 중 하나가 바로 원양어업이었다.

1960년대 초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은 전쟁의 포화를 겪은 후 참혹한 수준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지에서 독립한 125개 국가 중에서도 최빈국에 속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원양어업은 해외로 눈을 돌려 외교관계조차 수립되지 않은 나라까지 진출해 오대양을 누비며 우리 국민들의 먹거리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외화벌이의 초석이 되었다.

1957년 인도양 참치연승 시험 조업의 성공으로 시작한 우리 원양어업은 1958년 미국 밴 캠프(Van Camp)사에 원양어획 참치를 직수출함으로써 외화획득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1958년 6만 4,000달러에 불과하던 우리나라 원

양어업 수출액은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1971년에는 우리나라 총수출액의 5%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하였다. 또한 1979년에는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의 50%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당시 미비한 산업 구조를 감안하면, 원양어업은 단일 업종으로는 요즈음 반도체 산업에 비교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우리나라의 블루칩 산업이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초창기 우리 경제발전과 외화벌이의 주역으로 파독 광부와 간호사 등을 흔히 떠올린다. 이제는 그 자리 위에 우리 원양 선원들도 함께 서야 하지 않을까.

〈수산업의 주축, 그러나 녹록치 않은 현실〉

지금도 우리 원양산업은 세계 5위권 원양국가의 지위를 지키며 수산업과 식량 안보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24년 시점 우리 국적 원양어선은 총 238척(단독 198척, 합작 40척)으로, 2024년 기준 연간 약 76만 7천 톤의 어획물을 생산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어업 생산량의 약 48%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또한 우리 원양 어획물은 전체 수산물 수출 중 26.7%(8.3억불/30.3억불)를 기여하는 등 현재도 수산물 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수치만 살펴본다면, 원양산업은 여전히 순항하는 산업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내부를 들여다보면 원양산업이 처한 현실은 녹록치 않다. 원양산업의 근간인 선원·선박과 관련된 문제부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선원 문제의 경우, 2023년 기준 원양 해기사의 68%가 51세 이상일 정도로 신규 선원 유입이 부족한 실정이며, 그나마 남은 인원 중에서도 상당수가 과도한 소득세 등의 문제로 인해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 해외 유출 인력의 상당수가 선장, 기관장과 같은 고급 인력임을 감안하면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선박의 경우, 현재 전체 어선(198척) 중 157척(80%)이 30년 이상의 노후 선박이며, 특히 참치연승어업은 전체 선박의 94%에 해당하는 99척이 30년 이상의 노후선이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존속 자체가 어렵다.

외부적 여건도 녹록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이다. 환경 및 노동인권 등에 대한 국제적 요구기준 및 규제는 더욱 엄격해지고 있으며, 특히 공해를 관할하는 국제수산기구의 관리는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다. 여기에 유가상승 등의 요인으로 인한 각종 조업비용 상승 문제마저 선사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기후변화 문제, 신냉전 체제 격화 및 관세전쟁 심화로 인한 세계무역 위축 등의 변수까지 감안하면 상황은 더욱 쉽지 않다.

잃어버리는 것은 쉽지만, 한 번 잃은 것을 되찾기는 어려운 법이다. 원양어업은 한번 어장에서 철수하면 새롭게 진입한 해외 선단의 존재로 인하여 재진입하기 매우 어렵다. 또한 어업의 특성상, 각종 기술적 노하우가 단절된다면 이를 다시 부활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식량자원 확보 문제가 대두되고 지정학적 경쟁이 심화되면서, 그 매개체가 되는 수산업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중국과 같은 국가는 자국 원양선단의 성장에 보조금을 비롯한 막대한 지원을 하는 한편, 수산자원을 보유한 연안 국가에 진출하기 위하여 이들에 대한 각종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한국 원양산업이 탄생한 지 70년에 가까운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원양산업 종사자들은 여전히 맨몸으로 싸우는 것과 같은 실정이다. 다가오는 원양산업 70주년이 우리 원양산업 재도약의 계기가 되길 바라는 심정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제안하고자 한다.

〈원양산업 70주년, 재도약을 위한 제안〉

첫째. 친환경 어선의 건조 지원 확대

안정적인 수산자원 생산기반 확보를 위하여, 원양 어선 건조 보조금 지원 및 원양어선 안전펀드 예산 증대 등 친환경 어선 건조와 노후어선 세력 대체 및 현대화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아울러 어선 현대화 시 국가 필수 원양어선 선정을 통한 건조 비용 추가 보조, 담보 조건 완화 등을 도입을 통한 중소 선사 참여 활성화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해외어장 확보 및 수산외교 다층화 전략 마련
연안국의 자원 자국화와 공해 규제 강화로 인해, 현지 합작 법인 설립과 현지 가공·수출 시설 구축, 국제(수산)기구 적극 참여 등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중국, 일본 등 우리 원양산업의 주요 경쟁국은 수산자원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자원보유국에 투자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주요 자원보유국을 대상으로 ODA(공적개발원조)를 활용하여 현지 어촌 개발, 교육훈련, 어항 시설 개선 등을 지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어업 쿼터와 입어로 혜택을 얻는 전략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이를 통하여 글로벌 수산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

아울러 공해 어장은 국제수산기구의 관리하에 운영되므로, 과학적 자원 관리와 어업 관리를 위한 국제 협력 부문에 다각적인 방식으로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이를 통하여 국제적 신뢰를 기반으로 한 안정

적인 쿼터를 확보할 수 있다.

셋째. 업계 경영 안정화 위한 다각적 지원 마련
 자원전쟁과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국제 어업 규제는 강화되고 있으며 입어료는 증가하고 있다. 또한 선원임금, 선박 수리 및 안전·유지 관리 등 조업에 필요한 각종 고정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어획물 어가와 어획량도 정체를 겪으면서 원양업계의 경영악화는 가중되고 있다. 게다가 우리 정부의 원양산업 지원은 경쟁국의 지원에 비하여 훨씬 열악한 상황이다. 이에 경쟁력 마련을 위한 여러 정책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우선 해운업계에도 지원되고 있는 톤세 제도를 원양어선에도 도입하여 세금 감면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출어 후 생산된 어획물이 판매될 때까지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원양업계의 입어료 등 출어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정책자금 용자와 필요시 긴급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

아울러 어업에 필요한 자금 대출 지원을 확대하여 안정된 재정지원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넷째. 어선원 수급 안정화 방안 마련

극심한 원양 선원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신규 인력 수급 방안과 함께 현재의 인력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 모두 필요하다.

우선 신규 인력 수급 방안으로, 우리나라 국내 교육기관에서 배출된 수산 전문 인력들이 원양산업에 진입하여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 아울러 선원 양성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선원의 복지와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경력 해기사가 경쟁국으로 유출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와 동등한 수준의 소득세 비과세 제도 등의 인센티브 도입이 필요하다. 그리고

필수 인력인 해기사의 경우, 제한적으로 외국인 사관의 도입을 허용해야 할 것이다.

원양산업은 인류의 보고와도 같은 바다를 그 어떤 분야보다도 널리 활용하는 산업이다. 우리 원양산업은 해외의 바다에서 식량 자원을 확보하여 식량 안보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수출을 통하여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였고, 어업을 통해 해외에 진출하고 교류하여 해양영토 확장 및 국가 간 외교에 공헌하였다.

그러나 우리 원양산업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와 같은 막중한 책임을 수행하려면 어선 노후화, 선원 구인난 심화 등 현재 눈앞에 닥친 수많은 난제를 해결하고 해외어장 확보 및 원양업계 경영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60년대와 70년대의 원양산업이 우리나라 초창기 경제발전의 주역이 되었듯이, 앞으로의 원양산업도 70주년을 맞아 다시 한번 재도약하기를 기원한다.

〈한국수산신문, 2025년 6월 2일자〉



명예해양수산물 리포트

김점봉 세네갈 명예해양수산물관



김점봉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참치 가공 산업 육성

- 세네갈 공화국 대통령은 7월 7일 동원그룹 대표단을 접견하고, 수산물 현지 가공을 통한 대유럽·대미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 동원그룹은 세네갈을 수산물 가공 및 수출의 전략 거점으로 삼고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며, '메이드 인 세네갈(Made in Sénégal)' 비전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세네갈 정부는 어업부를 통해 해당 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협력은 '세네갈 신흥 계획(Plan Sénégal Émergent)'과 부합하며, 일자리 창출·지역 산업 육성·수출 수산물 고급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 어가 동향

어종	규격	가격(\$/톤)
황다랑어	10kg 초과	1,575
	3.4~10kg	1,475
	1.8~3.4kg	1,375
	1.5~1.8kg	1,225
	1.5kg 미만	1,025
눈다랑어	10kg 초과	1,225
	3.4~10kg	1,225
	1.8~3.4kg	1,225
	1.5~1.8kg	1,075
	1.5kg 미만	875
가다랑어	3.4kg 초과	1,425
	1.8~3.4kg	1,375
	1.5~1.8kg	1,225
	1.5kg 미만	1,025

다. 유가 동향

공급	유종	가격(유로/톤)	조사일
다카르항	MGO	557	'25.7.25

김종태 피지 명예해양수산물관



김종태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어업 재건 위한 자금 투입

- 피지 정부가 침체한 어업 부문 회복을 위해 2026년까지 9,630만 달러를 투자한다. 코로나19 이후 감독 부재와 인프라 격차로 성장이 정체된 어업 부문은 2022년 기준 수출 수익의 약 8%(2억 7,700만 달러)를 차지하였다.
- Ro Filipe Tuisawau 인프라 장관은 이번 투자가 연구, 연안·양식 어업, 규제개혁, 교육, 모니터링·집행 등 산업 전반의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Alitia Bainivalu 어업부 장관은 정책 실현을 위해 강력한 이행과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보존어업, 시장 진출 경로 확대, 어류 집약 장치 프로그램 등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투자를 통해 국가 수익 증대와 해안 지역사회의 생계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나. 참치 협정체결로 자원 보호와 수출 확대

- 피지 어업 부문이 남태평양 참치 자원 보호와 수출 확대를 목표로 한 새로운 지역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정은 20년간의 협상 끝에 태평양 섬나라들



이 참치 어획량을 비례적으로 배분하는 제도에 합의한 것으로, 기존의 경쟁적 어획 방식을 대체해 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보장한다.

- Alitia Bainivalu 수산부 장관은 이를 “획기적인 성과”로 평가하며, 지역 연대와 협력, 상호 존중의 결과라고 밝혔다. 그는 이 협정이 향후 세대에 걸쳐 참치 자원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피지가 일본·미국 시장으로 신선·냉장 참치 수출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 해초 양식으로 생계 개선과 보존 동시 추진

- 피지 수산부와 현지 단체가 공동 추진하는 해초 모종 사업이 Cakaulevu 지역 Dama Cluster에 19개의 해초 모종을 성공적으로 배치했다. 이번 사업은 해안 마을 주민들의 생계 향상과 해양자원 관리 촉진을 목표로 한다.
- 사업팀은 해초의 건강과 성장 상태를 보장하기 위해 매주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향후 6주간 모목장 규모를 확장해 더 많은 모종을 심을 계획이다.
- Dama 양식장은 인근 마을의 주요 해초 공급원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양식업 육성 및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에 기여할 전망이다. 이번 사업은 해안 지역사회에 대체 소득원을 제공하는 동시에 해양자원 보존을 지원하는 광범위한 노력의 하나이다.

라. 중국과 비군사 방위 협력 강화

- 중국이 피지 및 태평양 지역에 군사기지를 건설할 계획이 없다고 재확인하였다. 중국 국방부관 Zhang Yu는 수바에서 열린 중국 인민해방군 기념식에서 양국 방위 협력은 군사기지 설치가 아닌 훈련, 재난 대응, 평화유지 등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 중국은 올해 말 피지의 방위 훈련 지원을 계획하고 있

으며, 피지 국방부와 군 소속 인원 약 60명을 선발해 정부·군사 프로그램을 통해 중국에 파견할 예정이다.

- Pio Tikoduadua 피지 국방부 장관은 이번 협력이 상호 이익과 협력을 기반으로 한다면, 피지는 모든 파트너와 건설적 대화를 이어가고 국민 보호, 다자주의 지지, 평화유지 기여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방위 협력이 복잡한 안보·개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다수의 파트너를 참여시키는 지역적 흐름을 반영한다고 덧붙였다.

마. EU, 피지 가공수산물 관세 면제 적용

- 피지 무역중소기업부는 EU가 피지 가공수산물에 대해 글로벌 소싱 면제 조치를 승인한 것을 환영하였다. 이 조치는 2025년 4월 피지 정부의 공식 요청에 따른 것으로, 7월 31일부터 비원산지 원료를 사용해 피지 육상시설에서 제조된 가공수산물이 EU 내에서 원산지 제품으로 인정받아 관세 없이 수출될 수 있게 된다.
- Manoa Kamikamica 장관은 이번 결정이 피지의 수출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가공업체와 일자리 창출, 어업 및 제조 부문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였다. 피지는 이를 통해 부가가치 해산물 생산의 경쟁력 있는 지역 허브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바. 어가 동향

어종	규격	가격(\$/톤)	비고
날개다랑어	10kg 상	2,200	로인가공용(PAFCO)

사. 유가 동향

공급	유종	가격(\$/톤)	조사일
Total	MGO	1,327	'25.8.8



박상천 인도네시아 명예해양수산물관



박상천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해양포유류 보호 계획 수립

- 인도네시아 정부가 바다거북과 고래류 같은 해양 보호종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2025~2029년 국가행동계획을 수립 중이다.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는 WWF 인도네시아 등과 함께 최근 발리에서 공개 협의회를 열고, 중앙·지방정부,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주요 추진 전략을 논의하였다.
- 이번 계획의 핵심 내용은 ▲바다거북 보전 거점 (CoE) 3곳 구축 ▲좌초 해양포유류 대응 인력의 전문성 강화 ▲고래류에 영향을 미치는 연안·해상 활동에 대한 관리 지침 수립이다. 회의에서는 보호 대상 종의 생태 현황과 서식지 관리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우선 보호 지역과 기관별 책임을 명시한 실행 매트릭스도 발표되었다.
- 정부와 참여 기관들은 이번 계획을 통해 다부처·다기관 협력 기반의 통합 보전 체계를 구축하고, 보호종 지속가능 관리 모델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나. 수산물 이력시스템 국제표준화 추진

-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는 자국의 수산물 이력관리 시스템 '스텔리나(Stelina)'를 국제 표준에 맞춰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최근 발리 누사 두아에서 열린 '참치 및 새우 산업의 이력추적 추진 행사'에서 공식 발표되었다. 스텔리나는 QR코드를 통해 생산부터 유통, 소비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기록·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불법어업 방지 및 지속 가능한 수산물 인증을 지원한다.
- 해양수산부는 글로벌 수산물 이력추적 협의체

(GDST)와 협력해, 스텔리나를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해외 소비자와 바이어는 인도네시아 수산물이 합법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생산되었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수출 신뢰도와 시장 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2024년 기준, 인도네시아는 새우(16.8억 달러)와 참치류(10.3억 달러)에서 전체 수산물 수출의 약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수출국은 미국, 일본, 유럽 등이다

다. 미세플라스틱 대응 국제 공조 확대

- 인도네시아 정부가 동남아시아수산물개발센터(SEAFDEC)와 협력해 해양 미세플라스틱 오염 저감 활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7월 2~3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동남아시아 수산부문 미세플라스틱 대응 전략 워크숍을 통해 협력 방안이 구체화하였다.
- 이번 워크숍은 "수생 생태계의 플라스틱 오염 관리 전략을 통한 블루이코노미 발전"을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일본-아세안 통합기금(JAIF)의 지원으로 개최되었다. 행사에는 동남아 각국과 일본의 전문가 등 약 40명이 참석하였다.
- 인도네시아는 이미 다양한 미세플라스틱 대응을 추진 중이다.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바다사랑의 달' 캠페인을 통한 지역사회 해양 쓰레기 수거 ▲방치·유실 어구(ADLFG) 처리 및 어항 내 쓰레기 관리 강화 ▲정책 집행 역량 제고 및 환경 교육 확대
- 정부는 이번 협력을 계기로 국가 차원의 정책 체계 고도화, 현장 기반 대응 역량 강화, 국제 정보 공유를 추진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미세플라스틱은 해양생물과 수산업 전반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공동 대응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하였다.



라. 유가 동향

공급	유종	가격(\$/kl)	조사일
Pertamina	MDF	990	'25.8.2

오시영 사모아 명예해양수산물관



오시영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어장 동향

- 아메리칸 사모아 및 연근해 쿡 아일랜드 어장에서 날개다랑어를 평균 0.5~1톤, 황다랑어와 눈다랑어를 평균 0.3~0.7톤을 어획하여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나. 어가 동향

어종	규격	가격(\$/톤)
황다랑어	라운드	1,570
눈다랑어	라운드	1,370
가다랑어	라운드	1,370

다. 유가 동향

공급	유종	가격(\$/gal)	조사일
클리퍼오일	디젤	2.89	'25.8.7

윤정환 뉴질랜드 명예해양수산물관



윤정환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뉴질랜드 수산법 개정

- 8월 초 국회에 발의된 뉴질랜드 수산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생태계 기반 어획할당량(EBS) 의무가 완화되고 기후변화·해양생태계 변동 고려 없이 할당량을 조정

할 수 있는 절차가 도입된다. 과학적 검증보다는 경제적 효율성이 우선시되는 구조로 전환되는 셈이다.

- 또한 대형 트롤선에 전면 의무화됐던 선내 CCTV 설치·운영 요건이 일부 선택으로 축소되며, 정부와 시민이 공공정보법(OIA)을 통해 영상자료나 어획 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는 범위도 줄어든다. 모니터링 대상 선박 비율은 현행 100%에서 30% 이하로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 혼획된 비표적 어종의 즉시 보고 의무는 분기 또는 연간 단위로 완화되며, 폐기량 집계 역시 어업자의 자체 신고 의존도가 커진다. 옵서버(observer) 배치 의무도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 이밖에 위반·제재 절차도 단순화되어, 경미한 위반은 과태료만 부과하고 중대 위반의 경우에도 처벌 수단이 행정소송 전 단계에서 축소될 수 있다.

나. 어가 동향

어종	규격	가격(\$/톤)
호키	2L	2,400
	L	2,400
	M	2,200
	S	2,150
헤이크	3L	6,700
	2L	6,700
	L	6,050
	M	5,450
	S	5,250

다. 유가 동향

공급	유종	가격(\$/톤)	조사일
더니든	MGO	961	'25.8.6



이동춘 모리셔스 명예해양수산물관



이동춘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스마트 친환경 항만 전환

- 모리셔스 항만물류공사(CHCL)는 2025~2030년 5개년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포트루이스 항만을 스마트 친환경 항만으로 전환하기 위해 총 53억 루피(약 1억 1,50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계획에는 ▲항만 자동화 ▲하이브리드 크레인 도입 ▲트럭 게이트 재배치 ▲보관·주차·환적 공간 확장 등이 포함되며, 디지털 전환과 탄소 배출 저감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냉동 컨테이너 처리 능력도 강화해 지속 가능한 물류 기반 구축에 나선다. 현재 연간 약 70만 TEU 수준인 컨테이너 처리량은 2030년까지 120만 TEU로 확대될 전망이다.
- CHCL은 이와 함께 항만 종사자 및 청년 대상 교육 센터를 신설하며, 인도 정부는 시뮬레이터 무상 제공을 위해 2,500만 루피(약 54만 6천 달러)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현지 전문인력 양성과 해외 취업 기회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 해양관리 협력 강화

- 모리셔스와 세이셸은 지난 7월 29일 포트루이스에서 열린 '마스카렌 해저지대 공동관리위원회' 제29차 회의에서 약 40만km²에 달하는 공동 해양관리구역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해양공간계획을 통한 생태계 보호, 해삼 시험 조업, 해저 탄화수소 자원 탐사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특히 민간 어업자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한 해삼 어업은 순조롭게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양국은 해양 자원의 지속 가능한 공동 관리 원칙을

재확인했으며, 환경 모니터링 강화, 블루카본 및 탄소 크레딧과 관련된 이니셔티브도 협의했다. 차기 회의는 올해 말 세이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다. 유엔에 해양 영역 확장 요청

- 모리셔스 정부는 2024년 3월, 로드리게스 섬 인근 약 16만9천km²에 달하는 대륙붕을 자국 해양 영역으로 확장하기 위한 공식 요청을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제출했으며, 해당 요청은 뉴욕에서 열린 제64차 CLCS 회의(2025년 7~8월)에서 검토 중이다.
- 이번 요청은 로드리게스 해령 등 지질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라 200해리 너머까지의 대륙붕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다. 비록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CLCS의 과학적 검토를 거쳐 권고안을 받을 수 있다.
- 모리셔스는 이 조치를 통해 기존 EEZ 약 230만km² 외 추가 해양자원 관리권 확보와 함께, 블루이코노미 영역에서의 경제적 이익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라. 유가 동향

공급	유종	가격(\$/톤)	조사일
Shell	MGO	805	'25.7.28

이상우 아르헨티나 명예해양수산물관



이상우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우루과이와 공동 어획량 조정

- 해양기술위원회(CTMFM)는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가 공유하는 연안 및 심해 가오리 종의 하반기 어획량을 조정한다고 7월 30일 공



식 발표했다. 이번 조정은 리오 데 라 플라타 지역과 해양 전선 지역에서 어업 자원을 보호하고 책임 있는 관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다.

- 결정은 6월 30일 현재 상륙 기록 분석과 7월 30일 몬테비데오에서 열린 양국 회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상반기 설정된 할당량이 미달한 점을 반영해, 사용하지 않은 잔여량을 하반기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CTMFM은 이번 조정이 자원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착취를 통한 효율적 관리에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유연한 조정 도구는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활용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고 강조했다.
- 이번 결정으로 원양어업자는 공동 관할구역 내에서 계획적이고 책임 있는 어업 활동을 수행하며, 지속 가능한 어업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 아르헨티나 경제 딜레마 지속

- 아르헨티나 국립통계연구소(INDEC)에 따르면, 2025년 5월 아르헨티나 근로자의 임금이 월 3% 상승하며, 12월 이후 누적 17.2%, 전년 대비 65.7% 증가하였다. 이는 최근 5년 만에 월간 인플레이션 1.5%보다 높은 수치로, 근로자의 실질 구매력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 임금 상승은 국내 소비와 서비스업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으나, 외환 비용 상승과 수출 산업의 수익성 부족은 여전히 국제 경쟁력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공식 환율은 최근 달러당 1,150 페소에서 1,300페소로 조정되었지만, 수출 기업의 달러 비용 상승은 이윤과 시장 점유율에 영향을 미친다.
- 또한 높은 실질 금리와 제한적인 민간 신용 접근성, 지방 및 국가 차원의 높은 세금 부담은 기업의 재투

자와 성장을 제약하며, 어업, 농업, 제조업 등 주요 산업의 수익성을 압박한다.

- 전문가들은 아르헨티나 경제가 실질 소득 회복과 외부 경쟁력 유지, 지속적인 외환 창출 간 균형을 맞춰야 하며, 소비와 생산성 감소가 계속되면 장기적으로 고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 美, 중국 문제 선박 수입 금지 조치

-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아르헨티나 해안 인근에서 강제 노동과 현대판 노예제 혐의가 적발된 중국 채낚기어선 'Zhen Fa 7'의 모든 어획물 압수를 명령했다. 조사 결과 승무원 고립, 서류 압류, 학대 근무, 부채 강요, 신체·성적 폭력 등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의 현대판 노예제 징후가 확인됐다.
- 이에 따라 미국 내 모든 항구에서는 해당 선박과 오징어 제품 전체의 수입이 보류된다. 'Zhen Fa 7'은 과거 인도네시아 선원 사망 사건 등 인권 침해 전력이 있음에도 남대서양에서 계속 조업해 왔다.
- 이번 조치는 어업 이익, 인권, 해양 지속가능성 간 갈등을 보여주며, 남대서양 연안국들이 주권과 보존, 정의를 확보할 수 있는 명확한 규칙과 국제 동맹, 효과적인 감시 전략을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라. 아르헨티나 경제 딜레마 지속

- 아르헨티나 티에라 델 푸에고 정부는 스페인, 한국, 중국 대사관에 공식 서신을 보내, 말비나스·사우스 조지아·사우스 샌드위치 제도 인근 12해리 내에서 허가 없이 조업하는 선박에 제재를 가하겠다고 경고하였다.
- 주 정부는 이러한 무허가 활동이 불법일 뿐만 아니라 국가 어류 자원에 피해를 주고, 남대서양에서 영국 점령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아르헨티나는 영국 정부의 국적별 어업 면허 발급 관행을 일방적·비합의적 행위로 거부하며, 최근 아르헨티나 해군청과의 협정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과 추적 기능을 강화했다.

- 이에 따라 티에라 델 푸에고 당국은 무허가 어업 회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주권 수호와 해양 자원 보호를 추진할 계획이다.

마. 포클랜드 오징어 조업 중단

- 포클랜드제도의 롤리고 오징어 겨울 시즌이 3년 연속 자원 부족으로 임시 중단되었다. 포클랜드 수산청은 8월 7일 48시간 동안 어업을 정지하며, 시즌 재개 여부는 향후 과학적 바이오매스 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 이번 결정은 7월 27일 시즌 초기에 실시한 바이오매스 조사에서 현저한 감소가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초기 추정치 29,735톤은 점차 14,722톤으로 낮아졌으며, 하한치는 6,539톤으로 떨어졌다.
- 조업 폐쇄 조치는 보존과 지속 가능성 기준에 따른 조치로, 어업에 의존하는 섬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수산청은 어획량 평가와 시즌 재개 여부 결정을 위해 새로운 과학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바. 페루, 자원 보호 위해 멸치 조업 조기 종료

- 페루 정부는 중북부 지역의 2025년 첫 멸치 어업 시즌을 조기에 종료하였다. 이번 결정은 어린 멸치 비율이 높아 자원의 지속 가능성에 위협이 있다고 판단한 결과로, 7월 24일부터 시행되었다. 산업용 선박은 24시간 내 어획물 착륙, 48시간 내 처리 완료가 요구되었다.
- 조기 종료 결정은 페루 해양 연구소(IMARPE)의 권고를 기반으로 하며, 주요 생물학적 지표와 번식 개체

보호를 우선시한 조치다. 수산양식부 차관 헤수스 바리엔토스는 “이번 조치는 과학적 근거와 지속적 모니터링에 기반한 책임 있는 결정으로, 미래 어업과 해양 생태계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 시즌 초기 설정된 총 허용 어획량(TCT)은 300만 톤이었으나, 조기 폐쇄로 최종 어획량은 246만 톤으로 목표의 81.9%에 그쳤다. 이는 페루 멸치 어업이 세계 어분·어유 산업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새로운 전환점을 의미한다.
- 페루 정부는 기후 변화, 채취 압력, 생태계 변화 속에서 과학적 근거에 따른 신속한 조치를 통해 어업 자원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사. 페루, 흄볼트 오징어 어획 기록 달성

- 페루 정부는 흄볼트오징어(Dosidicus gigas) 어획량이 불과 6개월 만에 42만 톤에 달한 기록적인 상황을 반영해 6월 30일부터 금어 조치를 시행하였다. 이번 조치는 엘니노 현상의 지속 영향과 전례 없는 어획 속도를 고려한 예방적 접근이다.
- 페루 생산부(PRODUCE)는 7월 21일 시작 예정인 ‘자이언트 오징어 작전 III’ 연구 캠페인을 통해 최 북단에서 남쪽까지 최대 150해리 앞바다를 포함한 해안선 전체를 대상으로 생태 조사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 수산생산부 차관 헤수스 바리엔토스는 “이번 조치는 정부, 과학, 어민 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책임 감 있고 지속 가능한 어업 정책의 일환”이라고 강조하며, 과학적 증거와 생태계 보호를 우선한 어업 관리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아. 유가 동향

공급	유종	가격(\$/L)	조사일
Epsol YPF	MGO	1,140	'25.8.12



이윤홍 가나 명예해양수산물



이윤홍
명예해양수산물

가. 가나, 지속가능 수산 개혁 단행

- 가나 의회는 2025년 8월,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국제 기준 준수를 위한 「어업 및 양식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2002년 법을 대체하며, 불법·미

신고·비규제(IUU) 어업에 대한 처벌 강화, 전자 모니터링 및 위치추적장치 도입 의무화, 추적 가능성 확보를 위한 보고 절차 정비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 이와 관련, 법 시행과 함께 어업 위원회가 신설되어 자원 보존과 제도 운용을 총괄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EU의 수출 제재 회피와 국제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핵심 조치로 평가된다.

나. 가나, 기후변화 대응 본격화

- 가나 Mahama 대통령은 Volta 지역 남부 Ketu 시에서 'Blekusu 해안 보호 프로젝트' 2단계를 공식 착수하였다. 이 사업은 기후변화와 해안 침식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Blekusu, Agavedzi, Salakope 등 5개 지역에 총 8km 구간에 걸쳐 37개의 방파제를 설치하고 일부 구간은 토지 매립을 추진한다.
- Mahama 대통령은 현대식 수산시장과 냉장·가공·위생 시설 등 지역 인프라 개발도 병행 추진할 것이라 밝히며, 지역 공동체의 적극적 참여와 지속 가능성을 강조했다. 이번 사업은 2015년부터 시작된 1단계의 연장으로, 침식 피해에 대한 구조적 대응이자 국가 개발 전략의 하나로 추진된다.

다. UN, 가나를 글로벌 해양 협력국 지정

- 가나는 유엔 글로벌 콤팩트가 출범한 '오션 센터' 이니셔티브의 선도국 7개국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해양 재생에너지 확대와 해양 보존을 동시에 추구하는 지역 주도형 협력 플랫폼이다.
- UN 사무총장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과 글로벌 금융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아프리카가 세계 재생에너지 생산량의 1.5%에 불과한 현실을 지적하였다.
- 가나는 풍부한 해안선과 블루이코노미 잠재력을 바탕으로, 조력·풍력·태양광 기반의 청정에너지 확산, 해양 감시 체계 강화, 관련 법·제도 개혁을 이행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민간·학계·지역사회 간 협력을 통해 국가 에너지 전환 전략과 해양 개발 목표를 통합해 나갈 계획이다.

라. 어가 동향

어종	규격	가격(\$/톤)
황다랑어	10kg 초과	2,200
	10kg 이하	1,760
가다랑어	3.4kg 초과	1,550
	1.8~3.4kg	1,500
	1.5~1.8kg	1,350
	1.5kg 미만	1,200

마. 유가 동향

공급	유종	가격(\$/kl)	조사일
Goil	MGO	870	'25.7.31



정승화 파푸아뉴기니 명예해양수산물관



정승화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정부, 수산물 시장 확대 모색

- 파푸아뉴기니 수산청은 지난 7월 26일 장관, 청장, 이사회 임원 및 수산업계 대표단이 함께 홍콩을 거쳐 중국 광둥성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2023년 싱가포르에 수산물 판매점과 냉동고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으로, 홍콩과 광둥성에서도 유사한 마케팅 프로젝트를 추진해 온 활동의 연장선이다.

- 수산청은 자국 어민과 수산업자의 마케팅 역량 부족으로 인한 정보·지식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해외 시장 개척 지원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파푸아뉴기니 수산업계 자체 규모가 아직 미미해, 정부 지원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업계 성장과 경쟁력 강화가 필수 과제로 지적된다.

나. 日, PNG 수산업 발전 위한 대규모 원조

- 파푸아뉴기니(PNG) 수산청은 일본 정부가 총 9,100만 달러 규모의 무상원조를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내용에는 부두 확장 및 보수, 경비정 2척 건조, 지방 수산시장 건설 등이 포함되며, 인도네시아 어선의 불법조업 단속 강화를 목표로 한다. 이번 조치로 일본 간 입어 협상에서 선망선은 입어료에서 상당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한편, 일본 국제협력기구(JICA)는 2023년 말부터 Gulf of Papua 지역 2곳에서 연안개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사업에는 태양광 냉동고 지원, 어업 전문가 파견, 야마하(YAMAHA) 기술 인력 투입 등이 포함돼 있으며, 현지 어업 역량 강화가 목적이다.
- PNG 수산청은 중국과 일본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외국 기업 진출에 협조적인 정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 한국 정부는 올해 12월 KOICA PNG 사무소 개설을 앞두고 있다. 이를 계기로 한국 기업의 시장 진출과 PNG 수산업 지원을 연계한 실질적 협력 사업을 추진해, 양국이 상생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협력 모델을 마련이 필요하다.

다. 유가 동향

공급	유종	가격(\$/kl)	조사일
TWL Logistics	디젤	787	'25.8.8

< 게재 순서: 명예해양수산물관 성명 가나다순 >



코다리덮밥



❖ 이렇게 준비하세요

- 재료: 코다리 1마리, 소금 1작은술, 후추 1작은술, 맛술 1큰술, 지단 2큰술, 초생강 3슬라이스, 무순 약간
- 밥양념: 밥 1공기, 소금 1큰술, 후추 1작은술, 식초 1작은술, 깨소금 1큰술
- 소스: 간장 4큰술, 맛술 4큰술, 물엿 2큰술, 설탕 2큰술, 통마늘 1큰술, 생강 약간

❖ 이렇게 만드세요

- ① 코다리를 소금, 후추, 맛술을 넣어 10분간 재워둔다.
- ② 소스 재료를 넣어 만들어 둔다.
- ③ 밥 양념 재료를 넣어 밥을 양념한다.
- ④ 코다리를 앞뒤로 구운 후 ②의 소스를 바르며 구워준다.
- ⑤ 그릇에 양념된 밥 → 지단 → 양념된 코다리 → 초생강 → 무순을 올려 장식한 후 통깨를 뿌려 완성한다.



8월 싱가포르 MGO 가격, 평균 672달러

8월 12일 기준 666달러

8월 12일 기준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68.71달러, WTI 가격은 63.17달러, 브렌트유 가격은 66.12달러를 기록하였다.

8월 12일 기준 싱가포르 선박용 경유(MGO) 가격은 톤당 666달러로 7월 11일(681달러) 가격 대비 약 2% 하락하였다.

8월 평균(8.1~8.12) 가격은 672달러로 전월 평균 가격인 689달러 대비 약 2% 하락하였다. 전년 8월 평균보다 2% 하락하였고, 전전년 8월과 비교하면 26%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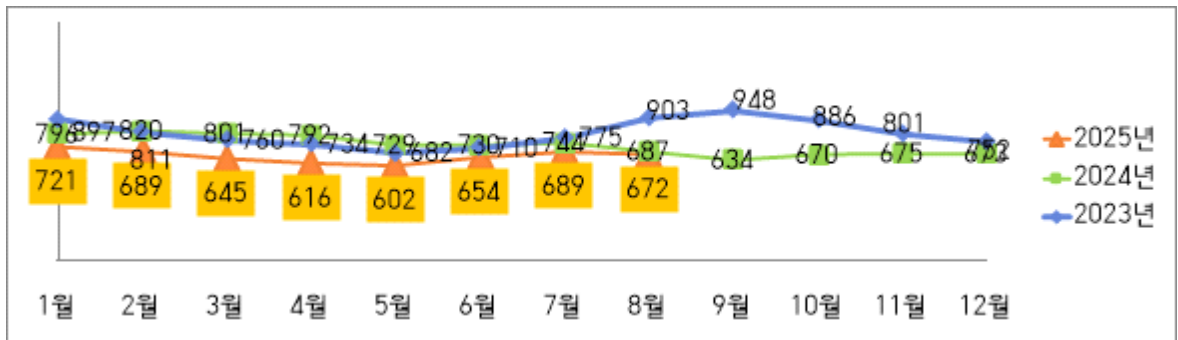
2025년 평균(1.2~8.12) 가격은 660달러로 전년(1.2~12.31) 평균 대비 10% 하락하였고, 전전년 평

균 대비 18%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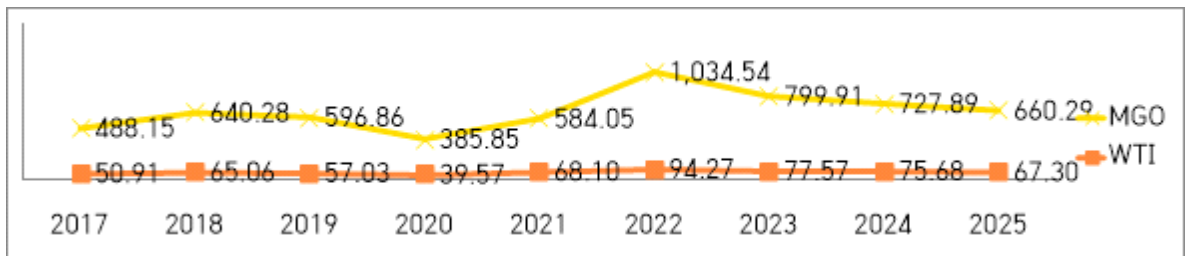
8월 초 미·러 휴전 합의안 조율 기대가 유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미 금리 인하 가능성 확대 등의 상승 요인도 존재하였으나, 한편으로 미국의 대러 원유 구매국 관세 부과 위협, OPEC+ 증산 등의 하락 요인도 작용하면서 8월 초 국제 유가는 보험세에서 완만한 하락세를 보였다.

그러나 8월 중순 미·러 정상회담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평화협정 체결 가능성이 대두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2~3주 동안 러시아산 석유 구매국에 대한 관세를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국제 유가는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 연도별 월별 싱가포르 MGO 평균 가격 〉



〈 연도별 MGO, WTI 평균 가격 〉





美, 태국 통조림 적용 관세 19%로 인하

기존 36% 대비 하락

미국 백악관은 7월 31일(현지시간) 태국산 참치 통조림에 대해 19%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지난 4월 발표된 36%보다 낮아진 수치로, 미국 수입업자들과 태국 가공업체들에게는 안도할 소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시행 기한을 8월 7일까지로 연장하였고, 총 90개국에 새로운 관세를 발표하면서 세계 시장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태국의 피차이 춘하와지라 재무장관은 관세 인하에 대해 만족감을 드러내며, SNS에 "이번 결정은 태국과 미국 간의 강한 우정과 긴밀한 파트너십을 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조치는 태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투자자 신뢰를 제고하며, 경제 성장과 국민 소득 증대, 새로운 기회를 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피차이 장관은 이번 관세가 기업가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정부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예산 배정, 저리 대출, 보조금, 세제 혜택, 규제 개혁 등 포괄적인 지원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태국이 향후 글로벌 경제 환경에 자신 있게 대응하도록 돕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였다.

최근 수개월 동안 태국과 미국 당국은 관세 문제에 대해 협상을 이어왔다. 태국 측은 미국산 제품에 대해 전면적인 무관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자국 내 기업과 농업 부문에 부담이 되므로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하였다.

미국-태국 간 협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한 8월 1일 마감일 하루 전 합의에 도달하였다. 이번 무역

합의는 이번 주 초 태국과 캄보디아 간의 국경 분쟁 휴전에 이어 이뤄진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주말 동안 아시아 국가들에 "분쟁이 지속되면 무역 협상이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경고하였다.

현재 미국 소매업자와 브랜드, 무역업체들은 소금물 통조림 기준 12.5%의 관세를 부담하고 있으며, 여기에 19%의 추가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미국 백악관은 이번 조치와 관련한 보도자료에서 "최근 접수한 정보와 권고사항을 고려하여, 행정명령 14257호에서 선언한 국가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일부 무역 상대국의 제품에 대해 부가세 형식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태국의 최대 시장인 미국으로의 참치 통조림 수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 4월 관세가 예고된 이후 미국 수입업자들이 앞당겨 태국 제품 구매를 늘리면서 상반기에는 오히려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상반기 동안 태국의 전 세계 대상 수출량은 25만 8,873톤으로 전년 대비 4% 증가하였다. 특히 미국행 수출은 11% 증가한 4만 9,899톤을 기록하였다. 애완등물용 참치 기반 식품 수출도 주요 시장에서 최근 5년 내 최대치이자 전년도 대비 44% 증가한 9만 2,388톤을 기록하였다.

미국 내 주요 참치 수출국 중 하나인 베트남은 20%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은 각각 19%가 적용된다.



한편, 에콰도르산 참치 및 기타 제품에는 기존 10%에서 15%로 인상된 관세가 적용됐다. 당초 태국에 36%의 고관세가 계속 적용될 경우 에콰도르산 제품의 대미 수출이 급증할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관세 격차가 4%로 줄어들면서, 연초 예상과 달리 미국 내 통조림 참치 공급망의 구조 변화는 제한적일 전망이다.

미국의 두 번째 참치 수입국인 멕시코는 30% 관세 부과를 피하기 위한 90일 유예기간을 부여받았다. 이러한 결과는 트럼프 대통령과 멕시코의 클라우디아 세인바움 대통령 간의 통화 이후 결정된 것이다.

미국은 멕시코산 철강, 알루미늄, 구리에 대해 여전히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자동차 및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에는 25%의 관세가 유지된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 내 펜타닐 위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알려졌다.

4월 발표된 관세 조치는 미국이 세계 최대 참치 수입국 중 하나라는 점에서, 전 세계 수산 가공업체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8월 7일로 설정된 관세 시행 기한이 다시 연장될 가능성도 있어, 당분간 불확실성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출처: Atuna, 2025년 8월 1일자

EU-미국, “획기적 관세 합의” 통해 무역전쟁 회피

EU 제품 관세율 15% 합의

미국은 유럽연합(EU)산 참치 제품에 대해 1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일요일 스코틀랜드에서 회담을 갖고 이 합의를 최종 타결하였다.

이번에 발표된 관세율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부터 EU 제품에 대해 예고했던 30% 관세의 절반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유럽산 제품에 대해서는 0% 관세가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으나,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SNS를 통하여 “EU와 미국은 8억 명의 시장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 GDP의 약 44%를 차지한다. 사상 최대 규모의 무역 협정이다”라고 강조하였다.

몇 주 전 발표된 EU산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는 기존 25%에서 50%로 대폭 인상된

상태이며, 이번 협정에도 해당 조치는 유지된다. 이에 대해 EU는 당시 관세 인상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U와 미국 간 상품 무역 규모는 지난해 약 9,760억 달러에 달했으며, 미국은 그 중 6,060억 달러어치를 EU에서 수입하였다. Atuna에 따르면, 2024년 EU는 총 1,792톤의 참치 통조림을 톤당 9,727유로에 미국에 수출하였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등에서 생산된 통조림 제품이었고, 또한 파우치 형태의 제품과 일부 자숙 로인 제품도 구매했다.

이번 미국-EU 협정이 EU 내 가공업체들의 수출에 미칠 영향은 아시아 국가 참치 통조림 업체들에 최종적으로 적용될 관세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출처: Atuna, 2025년 7월 28일자



日-PNG, 참치 관련 협력 강화

PNG 국가 개발 전략과 발맞춰 추진

일본의 참치 및 수산물 기업인 키요무라(Kiyomura)가 파푸아뉴기니(이하, PNG)에 대한 투자를 검토하고 있으며, PNG의 국가 수산·양식 우선과제에 부합하는 여러 방안을 모색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PNG 국가수산청(이하, NFA)에 따르면, 현재 두 가지 협력 제안이 논의되고 있다. 첫 번째는 일본 내 유통 및 집하시설 구축 방안으로, PNG산 참치 및 기타 수산물 수출품을 일본에서 집결·보관하여 주요 도매 및 소매 유통업체에 공급하는 구조다. 이를 통하여 PNG 수산물의 일본 시장 내 입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NFA 측은 또한 현지 가공시설, 냉장창고, 양식업 개발 등 장기 투자 기회와 관련한 제안을 일본 측에 제시하였다. NFA는 이러한 프로젝트들이 지역 사회의 일자리 창출, 부가가치 생산, 지속 가능한 수산 자원 관리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저스틴 일라키니(Justin Ilakini) NFA 청장은 “키요무라의 PNG 투자 관심은 시기적으로 적절하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주요 참치 어획·가공 거점으로 PNG를 탈바꿈시키려는 ‘국가 참치 개발 전략(National Tuna Development Strategy)’과 전략적으로 부합한다”라고 평가하였다.

이 전략은 수산업 부문의 확대, 고부가가치 가공 확대, 수출 시장 접근성 향상 등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일라키니 청장은 “이번 파트너십은 PNG가 글로벌

수산물 공급망의 핵심 국가로 도약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키요무라 코퍼레이션은 1985년 설립된 회사로, 유명 초밥 체인점인 스시잔마이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산물 수입 및 유통, 그리고 매년 1월 열리는 도오스 참치 경매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이번 주 초, PNG와 일본은 일본 ‘수산 엔지니어링 회사(Fisheries Engineering Co.)’와 컨설턴트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회사는 일본 국내외 수산 및 양식 산업의 기술 기획과 인프라 개발을 전문으로 하며, 양국은 이를 통해 수산업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 계약에 포함된 여러 사업 중 하나로, PNG 뉴아일랜드주의 카비엥(Kavieng) 지역에서 대규모 수산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공사는 올해 말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1억 1,100만 키나(PGK, 미화 약 2,651만 달러) 규모다. 이 중 9,200만 키나(PGK, 미화 약 2,197만 달러)는 일본국제협력기구(JICA)가 지원할 예정이다.

NFA는 이 프로젝트가 PNG의 국가 참치 자국화 정책(National Tuna Domestication Policy)과 연계되며, 연안 수산 역량 강화, 수확 후 가공, 상업 어업, 지속가능한 해양자원 관리 등을 중점으로 추진된다고 설명하였다.

* 출처: Atuna, 2025년 7월 24일자



EU-인도네시아, FTA 합의 도달

참치 산업 단기적 영향 미지수, 美 관세 영향 가능성 있어

유럽연합(EU)과 인도네시아가 최근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합의에 도달하였다. 오랜 기다림 끝에 성사된 이번 협정은 미국이 EU와 인도네시아 양측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 가운데 체결되었으며, 최종 타결될 경우 인도네시아산 참치 제품의 유럽 수출 물량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미국이 인도네시아 참치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상황에서, 인도네시아는 EU와의 유리한 협정 체결이 절실한 상황이다.

지난 7월 13일,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과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CEPA)에 대한 정치적 합의에 도달했다.

수비안토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에 있어 CEPA는 단순한 무역협정이 아니라 공정성과 상호 존중, 그리고 함께 강한 미래를 구축하는 데 관한 것”이며, “이 협정은 우리 산업의 성장, 일자리 창출,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강화하는 데 기여해야 하며, 양국 국민에게 이득이 되도록 신속히 마무리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밝혔다.

EU와 인도네시아는 2016년 7월 18일 공식 협상을 시작하였으며, 19차 협상은 2024년 7월에 열렸다. 이후 협상은 수시(ad-hoc) 형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CEPA의 목표는 무역과 투자를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면서 양측 간의 새로운 시장 접근을 열어주는 것이다.

CEPA가 최종 발효되면 인도네시아는 EU산 수입

품 중 98%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고, EU는 인도네시아산 수출품 중 약 99%에 대해 무관세 혜택을 부여하게 된다.

〈참치 산업에 미칠 영향은〉

현재 인도네시아의 EU 수출에서 참치 제품은 매우 작은 비중을 차지한다. Atuna Analyst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인도네시아는 EU에 총 1만 3,785톤의 참치 제품을 수출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통조림 3,577톤, 냉동 로인 2,637톤, 자숙 로인 9,172톤, 냉동 원어 6,654톤.

이러한 제품들은 EU에 수입될 때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예를 들어, 식물성 오일 참치 통조림이나 로인의 경우, 유럽 수입업체는 원산지 규정에 따라 20.5%에서 24%까지의 관세를 부담하고 있다. 한편, 통조림용 원료는 이미 무관세이므로 이번 협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CEPA가 발효되면 통조림, 자숙 로인, 냉동 로인을 중심으로 인도네시아의 대EU 참치 수출이 확연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참치 어업국 중 하나로, 자국산 원어 공급이 풍부하다. 또한 여러 통조림 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나, 일부는 생산 능력이 제한적이고 물류 인프라에도 제약이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인도네시아가 EU 시장에 수출을 빠르게 확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EU 참치 산업에 즉각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

지난주 미국은 인도네시아와의 협상을 마무리하



고, 인도네시아산 수입품에 대해 19%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반면, 미국산 제품의 약 99%는 인도네시아에 무관세로 수출된다. 이 19%는 인도네시아산 통조림에 본래 부과되던 관세에 추가되는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인도네시아 가공업체들은 미국보다 EU 시장을 더 매력적인 수출처로 간주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2024년 미국은 인도네시아로부터 6,517톤의 참치 통조림을 수입하였다.

그러나 CEPA가 장기적으로 EU 참치 가공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특히 스페인 가공업체들은 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통조림 참치를 협정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최소한 원산지 기준을 강화할 것을 EU 입법자들에게 지

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태국은 세계 최대의 참치 가공국으로, 인도네시아보다 훨씬 많은 가공시설을 갖추고 있다.

현재 EU는 인도네시아의 다섯 번째 교역 상대국으로, 인도네시아 전체 무역에서 EU가 차지하는 비중은 6.4%다. 반면, 인도네시아는 EU의 교역국 중 33번째이다. 양측 간 상품 교역은 2024년 기준 273억 유로에 달하며, EU의 수출은 97억 유로, 수입은 175억 유로를 기록하였다. EU는 이미 싱가포르 및 베트남과의 무역협정을 체결하였으며, 태국 및 필리핀과의 협상도 진행 중이다.

* 출처: Atuna, 2025년 7월 25일자

남태평양 국가, 남태평양 날개다랑어 쿼터에 합의 20년에 걸친 협상 종료... 구속력 있는 할당 체계 기반 마련

태평양 도서국 대표들은 적도 이남 지역의 태평양 도서국수산포럼(이하, FFA) 회원국의 EEZ 내에서 남태평양 날개다랑어 자원을 어떻게 할당할지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였다.

이 결정은 약 20년간 이어져 온 협상의 종지부를 찍는 것으로, 향후 구속력 있는 자원 할당 체계의 기초가 될 예정이다. FFA는 이번 합의가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역내 공동 의지를 재확인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최근 열린 포럼 수산위원회(Forum Fisheries Committee, FFC) 회의에서 각국 장관급 대표자들이 승인하였으며, 연승어업 관리를 현대화하는 구역 기반(zone-based) 체계의 도입

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포럼 수산위원회 의장인 모나 아이누우(Mona Ainu'u) 장관은 “이번 성과는 태평양 지역에 매우 중대한 진전”이며, “남태평양 날개다랑어는 우리 지역 연승어업의 중추이며, 많은 연안국들의 경제에 핵심적인 자원”이라고 밝혔다.

FFA는 이번 할당 체계가 향후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내 협상에서도 역내 협상력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날개다랑어 자원에 대한 과학 기반의 ‘자원관리 절차(management procedure)’ 도입을 위한 논의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하였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5년 7월 25일자



태평양 참다랑어 관리, HCR 의견차로 합의 실패

내년 회의서 재협의 예정

태평양 참다랑어 등 수산자원의 관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일련의 국제회의가 7월 15일 종료되었다. 일본 수산청에 따르면, 태평양 참다랑어에 대한 새로운 '관리절차(MP, Management Procedure)' 도입을 위하여 자원 관리 수준을 결정하는 '어획통제규칙(HCR, Harvest Control Rule)'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참가국 및 지역 간 의견 차이가 커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각국은 내년 회의를 향하여 협의를 계속하고, 의견 조율을 도모하기로 확인하였다.

7월 9일부터 12일까지 일본 도야마시에서는 중서부태평양참치위원회(이하, WCPFC) 북부소위원회-전미열대참치류위원회(이하, IATTC) 간 합동 실무그룹 회의가 열렸고, 14일부터 15일까지는 WCPFC 북부소위원회 회의가 이어졌다. 회의에는 일본, 미국, 한국, 중국, 대만, 멕시코 등 관련국 및 지역이 참가했으며, 같은 날 현지에서 언론 설명회도 개최되었다.

태평양 참다랑어는 서부 수역은 WCPFC, 동부 수역은 IATTC에서 관리되고 있다. 이번 회의의 핵심 주제였던 참다랑어의 MP 논의에서는, 미국과 멕시코가 보다 엄격한 자원관리를 위한 보수적인 규칙을 주장한 반면, 일본 측은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관리 규칙을 주장하면서 큰 견해차를 보였다.

회의에서 미국은 최근 동태평양에서 중소형 참다랑어의 회유량이 감소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일본 수산청은 참다랑어가 일본 근해에서 산란하기 때문에, TAC를 늘리더라도 서부 수역에서 선점될 가능

성을 우려하였다. 참다랑어 양식이 활발한 멕시코는 국제적인 양식 참다랑어 가격 하락 등의 영향을 이유로, 추가적인 쿼터 증대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일본은 근해에서의 회유량 증가와 어획량 확대를 근거 삼아, 자원 안정성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충분한 어획할당이 가능한 규칙을 중심으로 주장을 내세웠다. 수산청 자원관리부의 후쿠다 타쿠미(福田工) 심의관은 "미국 등과의 입장 차이가 컸다"라고 밝히며, 한국과 대만은 일본의 입장에 가까운 태도를 보였다고 전하였다.

회의에서는 그 외에도 태평양 참다랑어에 대한 통일된 감시 및 단속 조치에 대해 검토가 이루어졌고, 내년에 일본이 중심이 되어 조치의 기본 골격을 마련하기로 합의하였다. 참다랑어에 대한 어획증명제도의 도입은 내년 회의에서의 합의를 목표로 각국에서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북태평양 날개다랑어의 관리 방식 실행을 위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향후 9월 15일 파나마에서 IATTC 연례회의, 12월 15일에는 필리핀에서 WCPFC 연례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관련국과 지역들은 태평양 참다랑어의 MP 조기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연례회의도 활용하여 내년 초에 중간 회의를 개최할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협의할 계획이다.

내년의 합동 실무그룹 회의는 7월에 일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후쿠다 심의관은 양자 협의를 포함해 관련국과의 의견 조율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

* 출처: 미나토신문, 2025년 7월 17일자



日 대만산 냉동 눈다랑어 6월 수입 급감

시세 상승에 따른 출하 보류 관측

일본 6월 참치류 수입 실적은 신선·냉장 품목 수입량 441톤(전년도 동월 대비 53% 증가), 수입액 6억 4,700만 엔(61% 증가)이었고, 냉동 품목은 수입량 1만 2,651톤(12% 증가), 수입액 126억 4,800만 엔(8% 증가)이었다. 가공품 수입량은 4,138톤(소폭 감소), 수입액 33억 5,300만 엔(7% 감소)이었다.

냉동 눈다랑어 GG(아가미, 내장 제거) 수입량은 2,954톤(전년도 동월 대비 15% 감소)으로, 5,313톤이었던 5월 대비 44% 줄었다. 특히 대만산 수입 급감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였다. 대만산의 6월 수입량은 808톤으로 전년도 동월 대비 53% 감소하였고, 특히 지난달 수입량인 2,938톤에 비하면 72%나 감소하였다. 다만, 1~6월 대만산 누계 수입량은 1만 4,516톤(23% 증가)으로, 전년보다 증가세이다.

“대만 선단 감선의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라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대상이 된 선박 대다수는 비가동 상태로 정박 중이었던 경우가 많아 이것만이 수입량 감소의 유일한 이유는 아닐 것으로 관측된다. 호주 프리맨틀 연안에서 날개다랑어 어획량이 증가하여 6월 수입량이 828톤(459% 증가)으로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본의 아카미(붉은살) 시장이 상승세에 있어, “선사들이 일본으로의 수출을 미루며 타이밍을 재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냉동 눈다랑어의 kg당 평균 단가는 802엔(7% 상승)으로 5월 대비 51엔 상승하였다. 대만산은 746엔(2% 상승)으로 거의 보합세였다. 하지만 인도양

조업 대만 선단의 냉동 눈다랑어 대형(40kg 이상) 일선매입(一船買い, 어선 한 척의 어획물을 개체당 무게 상관없이 사전에 계약한 가격으로 사들이는 매입 방식) 가격(외화 기준)은 6월 중순 800엔에서 850엔으로 상향 조정되었고, 한 달 뒤인 7월 중순에는 900엔까지 상승하였다. 급격한 시세 상승으로, 향후 추가적인 가격 인상이 예상된다.

냉동 황다랑어 수입량은 2,390톤(20% 증가)을 기록하였다. 이 중 한국산이 909톤으로 올해 들어 가장 많은 양을 기록하였으며, 29톤에 불과했던 전년 동월 수준 대비 급증하였다. 평균 단가는 550엔(11% 상승)으로, 5월의 549엔 대비 소폭 상승하였다.

양식 참다랑어 냉동 필렛의 6월 수입량은 1,753톤(27% 감소)이다. 작년에는 항로 변경 및 창고 포화 문제로 비정상적인 운송이 이어졌으나, 올해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사전 대비가 되었다. 작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의 시즌 누계 수입량은 2만 3,205톤(7% 증가)이며, 평균 단가는 2,486엔(16% 상승)이다.

신선 품목의 경우, 남방참다랑어 호주산이 147톤(23% 증가), 뉴질랜드산이 34톤(79% 증가)으로 증가하였다. 북미 지역 수요가 다소 정체되면서 일본행 물량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호주산은 평균 단가 1,252엔(5% 하락)으로 하락하였다.

멕시코산 양식 참다랑어는 105톤(357% 증가)이 수입되어 작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100톤대를 회복하였으며,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5년 8월 7일자



日 2025년 6월 냉동 다랑어류 수입 통계 발표

한국산 눈다랑어 674톤 수입

〈 2025년 6월 일본 냉동 다랑어류 수입 통계 〉

(단위: 톤)

어종	국가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날개 다랑어	한국	43	87	119	32	122	221
	대만	127	38	513	685	504	828
	바누아투	-	11	521	174	87	19
	기타	287	57	378	362	700	666
	소계	458	194	1,531	1,253	1,414	1,735
황다 랑어	한국	131	657	667	318	189	909
	중국	259	420	370	461	692	314
	대만	767	1,074	1,481	834	1,200	557
	필리핀	-	-	-	-	-	-
	인도네시아	-	-	-	-	24	11
	미국	-	-	-	-	-	-
	바누아투	9	128	24	77	255	83
	피지	-	-	-	-	-	-
	카리비시	-	-	-	-	-	-
	마셜제도	-	-	-	-	25	50
	기타	1,128	674	1,484	467	696	466
소계	2,296	2,953	4,027	2,157	3,080	2,390	
눈다 랑어	한국	116	131	91	236	135	674
	중국	671	750	845	1,202	649	796
	대만	1,502	3,146	3,164	2,958	2,938	808
	필리핀	-	-	-	-	-	-
	인도네시아	-	-	-	-	-	-
	세이셸	1,253	632	1,339	150	643	305
	바누아투	71	432	118	55	744	282
	기타	138	234	274	212	204	88
	소계	3,750	5,325	5,831	4,812	5,313	2,954
남방 참다 랑어	한국	-	-	-	280	-	-
	대만	122	155	332	25	-	-
	호주	-	-	-	692	39	-
	소계	122	155	332	997	39	-

*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5년 8월 7일자



태국 참치 수출업체, 미국의 원산지 규정 도입에 우려

중국산 원어 사용 시 원산지 문제 발생 가능성 존재

미국이 새롭게 도입을 예고한 원산지 규정이 태국 참치 통조림 업계에 새로운 위협으로 떠올랐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향후 몇 주 내에 전채 제품에 대한 원산지 기준을 강화하는 규정을 도입할 계획이다. 미국 고위 관계자의 발언에 따르면 이 규정은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 결정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태국의 참치 가공업체에 직격탄이 될 수 있는데, 태국은 대부분의 참치를 외국 국적의 어선에서 들여오고 있기 때문이다.

태국은 2024년 한 해 동안 총 80만 9,041톤의 참치 원어를 수입하였다. 주요 공급국은 대만, 미크로네시아, 한국, 나우루 등이다. 특히 중국 선박으로부터는 1만 3,399톤의 냉동 원어를 수입하였다.

문제는 미국이 중국산 제품의 우회 수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이러한 간접적인 공급망까지 규제하려 한다는 데 있다.

이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태국 가공업체는 중국산 참치, 특히 날개다랑어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크다. 아직 미국 정부는 구체적인 규정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어떤 경우를 '전채'로 판단할지, 중국에만 적용될지 등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르면, 제품의 최소 40% 이상의 부가가치가 자국 내에서 창출되거나, 본질적으로 다른 제품으로 가공될 경우, 현지산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미국이 이를 따를지는 불투명하다.

태국 가공업체 관계자는 BBC 인터뷰에서 “만약 미국이 원산지 인정을 위한 부가가치 창출 비율을 50~60% 수준으로 요구한다면, 태국은 물론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도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어느 나라도 미국에 원산지 인증을 받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 출처: Atuna, 2025년 7월 30일자

타이유니온, 콜라겐 공장 설립에 3,000만 달러 투자

'ThalaCol' 콜라겐 제품 등 참치 부산물 활용 본격화

타이유니온 그룹의 부산물 사업부인 '타이유니온 인그리디언츠(Thai Union Ingredients)'가 태국 사뭇사콘(Samut Sakhon)에 콜라겐 가공 시설을 신설하며 신사업에 본격 진출하였다. 투자 금액은 3,000만 달러(한화 약 400억 원)이며, 시설은 본사의 주요 참치 가공 공장 인근에 위치한다. 해당 공장은 연간 1,500톤 이상의 콜라겐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이며, 일본, 한국, 중국,

태국,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 시장을 중심으로 제품을 공급할 계획이다.

'타이유니온 인그리디언츠'는 최근 첫 번째 해양 콜라겐 제품인 'ThalaCol'을 출시하였다. 이 제품은 참치 껍질에서 추출하였다. 타이유니온은 소나 대구에서 추출한 콜라겐과 달리, 포화된 현재의 시장에서 차별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5년 8월 4일자



타이유니온, 2025년 상반기 매출 감소

미쓰비시와 전략적 제휴 확대

2025년 상반기 타이유니온(Thai Union)의 매출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 비용은 절감되었으나 다른 금융 항목 비용이 증가하여 순이익은 3.4% 감소하였다. 상온 보관 참치 판매량이 감소하였고, 그 결과 이 부문의 매출은 9.2% 줄었다. 타이유니온은 미쓰비시 상사가 자사 지분을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타이 유니온은 상반기 매출액이 전년 대비 7.8% 감소한 631억 8,000만 바트(19억 5,0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고 보고하였다. 2분기 매출은 1분기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2024년 동기 대비로는 여전히 5.4% 낮았다. '외부요소 제외 매출(organic sales, 기업의 인수·합병 등 외부적인 요소에 의한 매출 증가분이 아닌, 기업의 순수 영업에 따른 매출)' 성장은 0.7% 감소하였는데, 이는 주로 미국 시장의 수요 약화에 따른 냉동 제품 매출 부진에 기인한다.

상반기 순이익은 22억 9,000만 바트(7,066만 달러)로 감소하였다. 2분기 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하였지만 1분기의 저조한 이익을 만회하지는 못하였다.

회사는 미국 달러화 약세로 인해 9,500만 바트(290만 달러)의 환차익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2024년 2,700만 바트(80만 달러)의 환차손을 기록하였던 것과 대조된다.

타이유니온의 자체 브랜드(PB) 상품 매출액은 4월, 5월, 6월의 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감소하였다. 판매량 기준으로는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였는데, 이는 제품의 판매 단가가 하락하였음을 시사한다. 자사 브랜드 부문의 매출액은 감소하였으나, 판매량 기준으로는 5.2% 더

많은 제품이 팔렸다.

상온 보관 제품 부문 실적은 2분기에 매출과 판매량(톤수) 모두 개선되었으나, 연초의 부진한 출발로 인해 상반기 전체 실적은 매출액의 경우 313억 5,900만 바트(9억 6,678만 달러)로 9.2% 감소하였고, 판매량의 경우 16만 1,737톤으로 3.8% 감소하였다.

타이유니온은 일본 미쓰비시상사와의 전략적 사업 제휴를 통하여 오랜 협력 관계를 한층 강화하였다고 밝혔다. 미쓰비시는 공개 매수를 통하여 타이유니온에 대한 지분율을 (회사가 재매입한 자사주를 제외하고) 기존 6.19%에서 20%까지 늘릴 예정이다. 주당 12.50바트(0.386달러) 기준, 5억 3,200만 주 이상에 해당하는 미쓰비시의 이번 투자는 총 2억 5백만 달러 규모가 될 예정이다.

타이유니온은 자사의 수산물 가공 능력과 미쓰비시의 글로벌 조달 및 유통 네트워크를 결합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기대하고 있다.

미쓰비시는 이미 타이유니온의 4대 주주 중 하나였고, 타이유니온 이사회에 의석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주 순위에는 변동이 없다.

전략적 파트너십의 주요 초점은 다음과 같다:

- 주요 시장 및 수산물 카테고리 확장
- 펫푸드 등 고성장 잠재 부문에서의 성장
- 진화하는 소비자 트렌드에 대응
- 타이 유니온의 SeaChange® 2030(타이유니온의 2023년을 목표로 하는 지속가능 전략) 및 미쓰비시의 엄격한 지속가능성 기준을 통한 지속가능성 및 ESG 목표 강조

* 출처: Atuna, 2025년 8월 5일자



일본산 참다랑어류, 라스팔마스 통해 수출 확대 모색

일본 자국 시장 치중 구조 완화 시도

자국 시장에 집중되어 있던 일본 참다랑어 수출이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유럽을 중심으로 횡감용 참다랑어 수요가 증가하면서, 일본 원양어선이 잡은 참다랑어의 새로운 수출 거점이 스페인 카나리아 제도에 조성되었다.

연어, 새우, 고등어 등 다양한 어종이 세계 시장을 무대로 삼고 있는 반면, 참다랑어는 엔저 상황에서도 여전히 일본 시장 의존도가 높다. 하지만 생산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 상승 속에서 경영 판단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사업 지속과 안정적인 선박 대체 건조를 위해 부가가치 향상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다.

올해 봄, 스페인 카나리아 제도 라스팔마스 항에 영하 60도의 초저온 냉동 창고가 완공되었다. 스페인 수산기업 유니온 마르틴(Union Martin) 그룹이 조성한 시설로, 해당 지역에서는 첫 초저온 냉동 시설이다. 대서양에서 조업하는 일본 원양 참다랑어 연승선이 어획한 눈다랑어와 황다랑어 등을 가공·보관하는 새로운 물류 거점이 탄생한 셈이다.

라스팔마스는 일본 원양 참다랑어 선단이 선박 정비, 식료·연료 보급, 승무원 휴식 등을 하는 중요한 기항지다. 하지만 어획물 대부분은 일본으로 직접 운송되거나 운반선·컨테이너를 통해 이송되어 왔다.

유니온 마르틴과 일본 선박은 30년 전부터 관계를 유지하였다. 최근 유럽연합(EU)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등지에서 일본식 횡감용 참다랑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EU에는 한국산 황다랑어가 주로 수출되고 있으나, 일본산 참다랑어도 선도 업체를 중심으로 실적을 쌓아가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발맞춰 유니온 마르틴은 일본산 횡감용 참다랑어 생산 확대를 계획하였다. 그간 초저온 컨테이너를 활용한 수출이 이뤄졌지만, 이번 시설 완공으로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마련해 시장 확대를 노리고 있다. 3월에 열린 개소식에는 일본원양선박어업협동조합(이하 '조합')도 초청되었다.

조합의 카가와 겐지 조합장에 따르면, 유니온 마르틴 측에서는 2년 전부터 “품질이 뛰어난 일본산 참다랑어를 구매하고 싶다”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한다. 당시 일본 내에서는 세계 각지에서 몰려드는 참다랑어로 인하여 공급 과잉이 심화되어, 초저온 냉동창고가 가득 차고, 운반선 장기 대기 사태가 잇따르며 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라스팔마스에서 일부 어획물을 하역하여 판매함으로써 냉동창고 포화 문제 완화에 기여하고, 판로 다변화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라스팔마스에 기항하는 선박들은 모두 EU 등록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5월 완공 이후, 해당 시설을 통한 일본 선단의 수출이 본격화되었다. 냉동 눈다랑어·황다랑어의 거래 가격은 일본 국내와 큰 차이가 없지만, 일본-스페인 간 왕복 운송비를 고려하면 현지 판매의 이점이 크다. 향후 수요에 따라 단가 변동도 예상된다.

현지 냉동창고는 약 350톤 규모지만, 헤랄도 마레로 사장은 “900톤까지 확장하고 싶다”라는 계획도 밝혔다. 어획된 냉동 참다랑어는 초저온 냉동창고에서 보관되며, 인접한 가공장에서 블록·로인 형태로 가공되어 스페인 본토로 유통된다.



카가와 조합장에 따르면, 현재 일본 어선 10척이 해당 시설을 통한 수출을 희망하고 있으며, 거래 가격과 물량, 각 어선의 조업 일정에 따라 수출량 확대 가능성도 충분하다. 당초 연간 300~400톤을 예상했지만, 700톤까지 확대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로써 일본의 참다랑어 수출은 기존 선사와 상사 외에도 라스팔마스를 통한 판매라는 새로운 선택지를 얻게 되었다. 카가와 조합장은 “각자 장단점과 판매 루트가 다르다”라며, 일본으로의 집중을 완화하고 공급 다변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주요 어종 중 하나인 남부다랑어는 위기의식이 커지고 있다. TAC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지도가 낮아 가격이 오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고급 초밥 식당에서 참다랑어보다도 높은 가격에 거래되던 남부다랑어였지만, 엄격한 어획 규제로 전문 중간 도매상이 폐업하고, 복잡한 뼈 처리가 가능한 숙련 기술자도 줄어들었다. 자원 회복 기

간 동안 참다랑어의 브랜드 파워가 강화되었고, 대형 마트에서는 가격 경쟁력이 있는 눈다랑어·황다랑어가 주류를 차지하면서 시장 회복이 어려운 상황이다.

일본 어선의 어획뿐 아니라, 뉴질랜드·호주로부터의 생물 수입, 호주의 양식산까지 포함하면 상당량이 일본 시장에 유통되고 있으며, 일본 가정의 식탁에 오르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 인식은 여전히 낮다.

카가와 조합장은 그 이유 중 하나로 일본 내 유통상 명칭인 ‘인도다랑어’(インドダ랑어)를 지적한다. “인도양의 따뜻한 바다에서 잡힌 참다랑어”라는 이미지가 형성되며 원래의 깊은 맛과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참다랑어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남부다랑어가 최고’라고 말하지만, 그 이상은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현재 남방참다랑어 조업 선박은 약 70척으로, 조합 소속 선단 중에서도 최대 규모이다.

*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5년 8월 7일자

中, 신규 참치 가공공장 건설 예정

연간 1만 5,000톤 규모 참치 제품 가공

중국 수산 가공업체인 광둥 잉첸진 하이바오 식품유한공사(일명 광둥이글 또는 Guangdong Yingqianjin Haibao Food Co. Ltd.)가 참치 제품 생산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 회사는 협력사 중 한 곳과 손잡고 텐진의 경제행정구인 보허진에 새로운 가공공장을 세우고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광둥이글은 현재 ‘위자샹(Yu Jia Xiang)’이라는 브랜드로 중국 자국 시장에 주로 정어리 통조림과 일부 참치 제품을 생산한다. 회사 대변인은 “이번에는 협력사인 광둥 위만자이(Guangdong

Yumanzai)를 통하여 참치, 정어리, 기타 수산물의 가공을 시작하고, 이후에는 자본을 늘리고 지분을 확장하여 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공장은 연간 1만 5,000톤 규모의 참치 제품을 가공할 수 있는 5개의 생산 라인을 운영할 예정이다. 남중국해와 가까운 보허진의 지리적 특성은 공장의 참치 가공 활동을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가공공장 건설에는 3억 5천만 위안(미화 약 4,887만 달러)이 투자될 예정이다. 공장의 가동 시점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 출처: Atuna, 2025년 7월 23일자



中 국영 참치 기업, 1분기 실적 부진

상반기 흑자 여부 미지수

중국 국영 원양 참치 어업회사인 중국국영원양선사(이하, CNFC)는 최근 상반기 실적 전망을 발표하였다. CNFC는 2025년 상반기에 전년도 동기 대비 최대 30%의 이익 증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CNFC는 세계 최대의 연승 참치 어업 회사 중 하나로, 인도양, 태평양, 대서양 등에서 자사 선박을 운영하고 있다. 회사의 주요 생산 및 판매 품목은 주요 상업용 참치종, 오징어, 기타 수산물 등이다.

CNFC는 선전(Shenzhen)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이다. 이들은 이번 상반기(2025년 1~6월)에는 비정기 손익을 제외한 순이익이 7,900만~8,900만 위안(미화 1,101만~1,240만 달러)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 공식 공시하였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14~29% 증가한 수치다. 회사는 이익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원양어업 부문에서의 생산 증가와 일부 어종 가격의 상승을 꼽았으나, 구체적인 어종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CNFC가 4월에 발표한 1분기 실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영업수익은 8억 4,626만 위안(미화 약 1억 1,797만 달러)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 이상 감소하였다. 중국 언론은 이러한 하락세가 CNFC가 시장 점유율 경쟁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보도하였다.

CNFC는 올해 1분기에도 순손실을 기록하였으나, 2024년 1분기에 비해 손실 폭은 줄었다. 상장회사

주주에 귀속되는 순손실은 약 -1,605만 위안(미화 -223만 달러)으로, 지난해 동기의 -2,949만 위안(미화 -411만 달러)보다 개선되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손실 상황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자를 기록 중이며,” CNFC가 예상하는 상반기 수익 증가 전망과는 달리 수익성을 확보하는 길은 여전히 험난하다고 전했다.

연구개발(R&D)은 참치 기업 운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어구 및 조업 방식, 어획물의 품질 유지, 디지털화 및 모니터링 등의 활동은 모두 지속가능한 현대 참치어업의 기반이 되는 R&D 부문에 포함된다.

CNFC는 올해 1분기 R&D 비용이 전년 동기 대비 53%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해당 기간 동안의 투자 증가” 때문이라고 보고서에 명시되어 있다. 2025년 1~3월 R&D 비용은 372만 위안(미화 약 51만 8,559달러)였으며, 2024년 같은 기간에는 243만 위안(미화 약 33만 8,736달러)이었다.

CNFC의 주가는 15일 기준으로 7.79위안(미화 1.08달러)이다. 주가는 1월 초 낮은 수준에서 출발하였으나 3월부터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4월 초에는 6.40위안(미화 0.89달러)까지 급락하였으나 이후 다시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최고가는 7월 2일 기록한 8.16위안(미화 1.14달러)이다.

* 출처: Atuna, 2025년 7월 15일자



中 상하이카이창, 신규 선망선 2척 발주

노후 선박 교체 목적

중국 참치 어업 회사 상하이카이창 원양어업유한공사(Shanghai Kaichuang Deep Sea Fisheries Co., Ltd.)는 노후 선망선 2척을 폐선하고, 이를 대체할 신규 선박 2척을 건조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선박의 건조는 국영 조선소인 푸젠 마웨이 조선소(Fujian Mawei)에 이미 발주되었다.

상하이카이창은 자사 소속 '진후이 6호(Jinhui 6)'와 '진후이 7호(Jinhui 7)'가 모두 30년 이상 된 노후 선박으로 폐선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신규 선망선 가격은 척당 약 1억 8,400만 위안(미화 약 2,562만 달러)으로 추산된다

신규 선박 2척은 2027년 3월과 4월에 각각 인도될 예정이다. 이번 프로젝트의 자금은 자사 자본 30%와 대출 70%로 충당된다.

'진후이 7호'의 정보는 (WCPFC)의 선박 등록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진후이 6호'의 정보는 확인 가능하다. '진후이 6호'는 길이 70m 이상, 총톤수 1,198톤, 냉동 어창 150톤의 사양을 갖추고 있으며, 1992년 대만에서 건조되었고 2030년 3월까지 유효한 어업 허가를 보유하고 있다.

상하이카이창은 참치 어업 분야에서 대형 선단을 위주로 운영하는 기업이다. 회사 웹사이트에 따르면 현재 총 12척의 선망어선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 최대 규모의 어업 회사 중 하나로 꼽힌다. 또한 상하이카이창은 2016년 6월, 스페인 비고(Vigo)에 위치한 참치 통조림 가공공장 '이호스 데 카를로스 알보(Hijos de Carlos Albo)'를 인수한 바 있다.

* 출처: Atuna, 2025년 7월 30일자

5월 PNA 전재량, 4월 대비 감소

약 6만 3,000톤 전재

나우루협정당사국(이하, PNA) 항만에서의 5월 전재량이 전월 대비 11% 감소하였다.

선망선단은 5월 동안 총 6만 2,926톤의 참치를 PNA 항만에서 냉동운반선으로 전재하였다. 이는 4월 전재량인 7만 701톤보다 소폭 감소한 수치이다. 대부분의 물량은 방콕 통조림 가공 공장으로 향했으며, 일부는 제너럴 산토스 가공 허브로 보내졌다. 5월 전재 건수는 총 98건으로, 이는 4월의 107건에 비해 8% 줄어든 수치이다.

PNG는 5월에 가장 많은 전재가 보고된 국가로, 총 3만 833톤(전체의 49%)이 전재되었다. 마셜제도에서는 1만 6,360톤(26%)이 전재되었다.

키리바시, 미크로네시아, 솔로몬제도의 항구에서는 각각 7,551톤(12%), 6,922톤(8%), 629톤(1%)의 전재가 이루어졌다. 나우루와 투발루에서는 5월 한 달간 전재가 보고되지 않았다.

* 출처: Atuna, 2025년 7월 15일자



3개 태평양 도서국, EEZ 확장 추진 약 45만 제곱킬로미터 규모

피지, 솔로몬제도, 바누아투가 총 45만 3,400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공동 해양 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중대한 조치를 취하였다. 세 나라는 오늘 유엔 대륙붕 한계위원회(CLCS)에 확장 대륙붕 관련 문서를 제출하였다. 참치 자원이 풍부한 이들 국가는 국가 개발과 경제에 도움이 될 해양 자원을 관리하고 보호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대륙붕은 연안국의 바다 아래에 있는 땅으로 영토와 마찬가지로 탐사와 천연자원 개발 등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배타적경제수역(EEZ)과 달리 해저면 위의 바다는 포함하지 않는 개념이다.

태평양공동체(이하, SPC)에 따르면 포함되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 북피지 분지 (피지, 솔로몬제도, 바누아투),
- 멜라네시안 경계 고원 (피지, 솔로몬제도),
- 라우-콜빌 및 통가-케르마텍 해령 (피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76조에 따르면, 국가는 자국 해안선으로부터 200해리(약 370km)를 넘어선 대륙붕에 대해 국제적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SPC는 “확장 대륙붕과 그 자원에 대한 소유권을 확립하는 것은 태평양 도서국의 복지와 정치적 안정

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세계 지도에서 아직 공백으로 남아 있는 이 지역들이 확정되지 않는 한, 연안국들은 자국의 이익을 완전히 보호하거나 해양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바누아투 해양·해양정책국장 토니 테비(Toney Tevi)는 이번 공동 제출의 의미를 “태평양의 연대”라고 표현했다. 그는 “우리의 바다는 삶의 기반이며, 공동체와 문화를 지탱해주는 존재”라며, “이번 협력은 태평양 연대를 통해 어떤 성과가 가능한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사례”라고 밝혔다. “우리는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해 우리의 해양 환경을 보호하기로 함께 결의했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ECS 제출은 SPC 해양경계 프로그램의 지원을 통해 실현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영국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고, 지역 및 국제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통해 수년간 운영되어 왔다. 2022년, 영국 정부는 SPC와 약 290만 솔로몬달러(SBD, 미화 약 34만 달러) 규모의 협약을 체결하여 피지, 바누아투, 솔로몬제도, 통가가 각자의 해양 영역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 출처: Atuna, 2025년 7월 10일자



대만, 2024년 WCPO 어획량 호조

2023년 대비 36% 증가

수십 년간 태국 참치 가공업체에 냉동 참치 원어를 공급해 온 대만 선망 선단이 2024년 중서부태평양 수역에서 가다랑어 어획량을 대폭 늘리며 주목받고 있다. 어선 수가 2023년과 동일하게 유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획량은 크게 증가하면서 세계 최대 참치 가공 허브인 태국에 대한 공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이러한 내용은 지난주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이하, WCPFC)에 제출된 「대만 참치어업 현황 보고서」를 통해 공개됐다. 대만은 주요 참치 어선단으로 연승업종과 선망업종 어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선망선단이 가장 많은 어획량을 기록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만 국적 선망선단의 2024년 한 해 동안 참치류 어획량은 총 22만 8,956톤이다. 전년 대비 36% 증가하였으며,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수치이다. 어획량의 84%는 가다랑어였으며, 황다랑어는 13%, 눈다랑어는 3%를 차지하였다. 특히 태국 가공업체는 대만 선망선단으로부터 총 15만 995톤의 냉동 참치를 톤당 평균 1,727달러에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만 선망 어선단은 2022년까지 안정적인 어획량을 보이다가 2023년에는 가다랑어, 황다랑어, 눈다랑어 모두 어획량이 급감하였으나, 2024년 들어 극적인 회복세를 보였다.

중서부태평양 수역에서 조업한 대만 선망 어선 수는 최근 4년간 감소세를 보였다. 2020년 28척에서

2023년에는 24척으로 줄었고, 2024년에도 동일한 24척이 조업에 나섰다. 가장 많은 선박이 활동한 해는 2021년으로, 당시에는 총 29척이 해당 수역에서 조업하였다.

대만은 여러 태평양 도서국들과 참치어업 협정을 맺고 있으며, 2024년에는 파푸아뉴기니, 미크로네시아, 나우루, 마셜 제도, 솔로몬 제도, 투발루, 키리바시 등 PNA(나우루협정당사국) 회원국의 EEZ에서 조업하였다.

보고서는 “엘니뇨 현상이 발생하는 해에는 어군이 태평양 동부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고, 조업도 그 이동 경로를 따른다. 반면 라니냐가 발생하는 해에는 어군이 태평양 서부에 집중되며, 어선들도 이에 맞춰 이동한다”라고 설명하였다. 2024년 초에는 태평양에서 엘니뇨가 관측되었으나 2024년 중반부터 약화되었다. 연말에는 기후 모델과 NOAA 전망에 따라 2025년 초까지 라니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2024년 선망 어업 중 고래류 및 고래상어 등이 혼획된 사례에 대해서도 상세히 다뤘다. 이 중 흑범고래(False-killer whale, 17마리), 뱀머리 돌고래(Rough-toothed dolphin, 11마리), 일반 돌고래(Common dolphin, 10마리)가 가장 많이 혼획되었으나, 선단은 이를 의도적으로 포획한 것이 아니며, 조업을 즉시 중단하고 해당 개체들을 안전하게 방류하였다고 보고하였다.

* 출처: Atuna, 2025년 7월 25일자



대만 연승선단, 2024년 어획량 증가

참치 어획량 5년 만에 최고치 기록

대만의 원양 연승선단이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이하, WCPFC) 관할 수역에서 활발히 조업하면서, 2024년 어획량이 최근 5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만 정부가 최근 WCPFC에 제출한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대만 연승선단은 2024년 한 해 동안 전년 대비 13% 증가한 총 4만 5,324톤의 참치를 어획하였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어종은 날개다랑어로, 남부태평양 날개다랑어가 9,733톤, 북부태평양 날개다랑어가 8,926톤을 기록하였다. 뒤이어 황다랑어(1만 3,855톤), 눈다랑어, 태평양 참다랑어, 가다랑어 순으로 어획량이 집계되었다. 날개다랑어는 전체 어획량의 약 36%를 차지하며 주력 어종으로 자리 잡았고, 황다랑어와 눈다랑어가 각각 26%와 18%를 차지하였다.

지난 5년간 어획량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였다. 연간 어획량은 2023년에 2022년도 대비 다소 감소하였다. 그러나 2024년에는 중서부태평양 어획량 호조에 힘입어 다시 증가하였다.

2024년 WCPFC 수역에서 활동한 대만 연승어선은 최근 5년간 최대치인 총 921척으로, 2023년 대비 112척 증가하였다. 2020년 이후 평균 연간 822척이 조업에 나섰으며, 가장 적었던 해는 2022년

(716척)이었다.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대만의 연승선단은 어획 대상 어종과 조업 수역에 따라 두 개의 하위 그룹으로 나뉜다. 첫 번째 그룹은 열대성 참치를 목표로 태평양 도서국 EEZ 인근, 즉 키리바시, 마셜제도, 투발루, 토켈라우 등 15도 북위~15도 남위 사이 수역에서 연중 조업, 전채, 연료 및 보급품 제공을 통하여 어획 활동을 수행한다.

두 번째 그룹은 날개다랑어를 주 대상 어종으로 일본과 뉴질랜드 인근 온대·아열대 수역에서 조업을 한다. 이들 선박은 연 2회 정도 태평양 내 항구에서 어획물을 양륙하고 재보급을 받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선박은 횡감 시장에 공급할 황다랑어를 목표 어종으로 조업하며, 새치류나 남방 날개다랑어를 대상으로 한 조업도 이루어진다. 이들 선박은 대부분 어획물을 얼음 보관하며, 일부는 냉동 설비를 갖추고 있다.

2024년에는 대부분의 연승선단 조업이 미크로네시아, 필리핀, 팔라우, 파푸아뉴기니, 북마리아나 제도 등 EEZ 인근에서 이루어졌다.

대만 연승선단의 대부분은 도서국 EEZ 및 일부 항구에서 전채하였다. 대부분의 전채는 WCPFC 관할 수역에서 이루어졌고, 이외의 수역에서 이뤄진 전채는 단 4건에 불과했다.

* 출처: Atuna, 2025년 8월 4일자



2024년 세계 참치 수입량 30% 급증 평균 수입 단가 20% 하락

참치는 2024년 세계 수산물 무역에서 물량 기준으로 6%, 금액 기준으로 8.5%를 차지하였다. 총수입량은 400만 톤(402만 7,101톤) 이상이며, 가치로 환산하면 156억 7,000만 달러 이상이다.

FAO의 세계 수산업 분기별 검토에 따르면 참치의 최종 수요 증가로 인해 수입량이 1/3(27.96%) 가까이 증가하였다. 금액 기준 무역 성장률은 8.5배 낮은 3.3% 증가를 기록하였다. FAO 통계에 따르면, 참치 제품의 톤당 평균 수입 가격은 20% 하락한 3,900달러 미만으로 감소하였다.

World | Imports of fresh, frozen and processed tuna | 2022-2024 | (in tonnes and million USD)

Product group	2022	2023	2024	% change 2024/23
Fresh/chilled, dressed (G&G)	99 310	93 553	100 309	+7.52
Frozen, whole and dressed	2 148 768	1 927 587	2 366 212	+22.78
Frozen loins/ fillets	198 995	165 100	197 747	+19.39
Prepared/ processed	1 568 439	1 402 067	1 570 323	+11.98
Total tuna (all types), in tonnes	3 811 217	3 147 335	4 027 101	+27.96
Value in USD million	16 378	15 169	15 673	+3.32

Source: Author's own elaboration based on GTT. 2025. Global Trade Tracker. [Cited 3 April 2025]. www.globaltradetracker.com

< 세계 참치 수입량 및 수입액 >

수입 품목별로 냉동 참치(라운드 및 절단)가 전체의 59%(237만 톤)을 차지하였고, 반제품 및 가공 참치는 37.5%(157만 톤), 냉동 참치 필렛(로인)은 2.5%(19만 7,700톤), 신선 또는 냉장한 절단참치는 1%(10만톤)를 차지하였다.

최대 참치 통조림 수입국은 미국(수입량 23만 550톤)이며, 스페인(17만 3,530톤), 이탈리아(13만 260톤) 순으로 뒤를 이었다.

World | Top importers of canned/processed tuna | January-December (1 000 tonnes)

	2022	2023	2024	% change 2024/23
United States	242.66	217.94	230.55	5.79
Spain	165.87	140.72	173.53	23.32
Italy	130.15	131.55	130.26	-0.98
United Kingdom	96.42	88.11	101.86	15.62
France	98.32	94.08	92.01	-2.20
Germany	94.86	80.21	85.27	6.30
Thailand	53.99	56.21	74.76	33.01
Others	686.16	595.25	682.4	16.64
Total	1 568.44	1 404.06	1 570.65	11.86

Source: Author's own elaboration based on GTT. 2025. Global Trade Tracker. [Cited 3 April 2025]. www.globaltradetracker.com

< 세계 참치통조림 수입국 >

최대 참치 통조림 수출국은 수출량 57만 9,500톤을 기록한 태국이며, 에콰도르(31만 700톤), 중국(27만 500톤)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아시아와 유럽의 참치 통조림 생산업체는 공급 감소와 원자재 가격 상승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태국의 냉동 참치 수입량은 수요 감소와 높은 재고량으로 인해 이미 감소하였다. 미국의 관세 정책은 참치 통조림의 국제 무역에 불확실성을 더한다.

World | Top exporters of canned/processed tuna | January-December (1 000 tonnes)

	2022	2023	2024	% change 2024/23
Thailand	514.08	444.59	579.49	30.34
Ecuador	246.97	229.59	310.68	35.32
China	130.34	139.39	207.53	48.89
Philippines	92.55	80.66	110.43	36.92
Spain	95.78	103.84	109.94	5.87
Indonesia	72.05	69.62	77.66	11.54
Others	456.69	362.6	389.38	7.46
World Total	1 608.47	1 430.25	1 785.12	24.82

Source: Author's own elaboration based on GTT. 2025. Global Trade Tracker. [Cited 3 April 2025]. www.globaltradetracker.com

< 세계 참치 통조림 수출국 >

* 출처: Fishnet.ru, 2025년 7월 18일자



태국산 통조림, 美 관세 위기 속 상반기 수출 호조

전체 4%, 대미수출 11% 증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태국의 참치 통조림 수출이 전 세계적으로 4% 증가하며 안정적인 수요를 유지하였다. 특히 미국 수출은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미국 수입업체들이 고율 관세 부과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재고 확보에 나섰다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하반기에도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태국 가공업체들은 2025년 상반기에 전년도 대비 4% 증가한 25만 8,873톤의 참치 통조림을 수출하였다. 이들 제품의 평균 톤당 가격은 4,340유로로, 전년 대비 5% 하락하였다. 1분기에는 13만 4,481톤을 수출하며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고, 2분기에도 12만 4,392톤이 추가로 수출되었다.

미국의 태국산 통조림 수입량은 상반기 동안 49,899톤으로, 최대 수입국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미국은 이미 1분기에 상당한 물량을 수입하였고, 2분기에는 수입량을 거의 두 배로 늘렸다.

하반기에도 미국 시장에서의 호조가 지속될지는 미지수다. 단기적으로는 긍정적 효과가 예상되지만, 장기적인 전망은 불확실하다. 특히 태국이 주변국과 같은 19~20% 수준의 관세를 부과받을 경우, 현재의 소금물 통조림(brine)에 부과되는 세율인 12.5%에 추가로 부과되는 셈이 된다.

미국 수입업체들은 에콰도르처럼 다른 참치 생산국으로 눈을 돌릴 수 있다. 에콰도르는 현재 미국으

로부터 10% 상호 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태국이 세계 최대의 참치 가공국이기에 때문에, 이 정도의 대규모 수요를 다른 공급국이 감당하기는 쉽지 않다. 게다가 에콰도르 가공업체들은 주요 수출 대상인 EU를 대상으로 하는 자국 원산 참치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태국 가공업체들은 상반기 동안 여러 주요 시장에 참치 통조림 수출을 늘렸다. 리비아는 전년 대비 19% 증가한 2만 6,059톤을 수입하였고, 호주 및 일본으로의 수출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였다.

이집트 경제와 통화 가치가 회복세에 접어들면서, 이집트 시장에서도 수출이 회복되었다. 이집트행 수출량은 1만 7,679톤이며, 톤당 가격은 2,882달러로, 저렴한 참치플레이크 제품이 주를 이뤘다.

러시아행 수출도 증가하였다. 수출량은 5,159톤이며 톤당 평균 가격은 4,259달러였다. 가장 고가에 수출된 시장은 영국 시장으로, 톤당 5,584달러에 거래되었으며, 대부분이 대낚시(pole-and-line) 어획 제품 또는 MSC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존웨스트(John West)와 같은 브랜드용 PL(유통업체가 자체적으로 기획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생산한 후, 자사 브랜드로 판매하는 상품) 제품이었다.

반면, 캐나다와 함께 UAE,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중동 일부 국가로의 수출은 감소세를 보였다.

* 출처: Atuna, 2025년 7월 24일자



美 1~5월 참치 통조림 수입 급증

수요 아닌 '관세 회피'가 원인

2025년 1월부터 5월까지 아시아 통조림 공장에서 미국으로 수출된 참치 통조림 수입량이 급증한 것은 소비자 수요 증가 때문이 아니라, 향후 예정된 추가 관세를 피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내 참치 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같은 급증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설정한 관세 발효 시한을 앞두고 벌어진 일이다.

현재 상황 속에서, 소매업체인 월마트조차도 손실 감수를 각오하고 판매하는 이른바 '로스 리더(loss leader)' 상품이었던 참치 통조림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소식통은 “기존 0.80달러였던 참치 캔이 0.88달러로 인상되었다”라며 “시장 전반을 반영한 가격은 아니고, 다른 대형 마트에서는 같은 제품이 1.39달러에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월마트는 이미 10% 관세를 반영한 것이다. 8월 1일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확신하지 못한다”라고 설명하였다.

언더커런트뉴스의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의 2025년 1월부터 5월까지의 참치 통조림 수입량은 총 10만 7,449톤이며, 수입액 기준으로는 5억 3,300만 달러 규모이다. 이러한 수치는 전년도 동기 대비 물량 기준 17%, 금액 기준 13% 증가한 것이다.

2025년의 모든 달은 2024년보다 빠른 추세로 수입이 진행되었다. 1월과 4월의 수입량은 2만 5,000톤에 근접하였고, 5월은 2만 1,000톤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마감되었다.

올해 1~5월 동안 태국산의 수입량은 미국 전체 수입량의 약 절반인 6만 톤에 가까운 수준이다. 이는 전년 대비 35% 증가한 수치이다.

베트남산의 수입량은 약 1만 2,527톤으로, 전년도 동기 대비 49% 증가하였다. 에콰도르산은 약 1만 1,000톤으로 무려 67% 증가하였다. 에콰도르산은 해양관리협의회(이하, MSC) 인증이 수입량 증대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피지산은 약 4,000톤이었고, 세네갈산도 소폭 증가하였나, 멕시코산은 약 6,000톤으로 다소 감소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멕시코가 마약 카르텔 문제에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8월 1일부터 관세율을 30%로 인상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인도네시아산은 4,000톤 이상으로 증가하였고, 몇몇 신흥 수출국산 수입량도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인도네시아는 7월에 미국과 무역 협정을 체결했다.

평균적으로 태국은 미국에 참치 제품을 kg당 4.80달러에 수출하였고, 베트남과 에콰도르는 각각 5달러 초반과 약 6달러의 가격에 수출하였다.

3월 이후 원료인 가다랑어 가격은 상승세를 보였지만, 관세 불확실성이 이어지며 최근 몇 개월간 이 추세는 다소 주춤한 상태다. 이는 서부 태평양 수역의 어획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나타난 현상이다.

동시에 냉동 가다랑어나 보니토 필렛 수입도 1월부터 4월까지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품의 주요 공급국은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이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즉석 식품 시장으로, 2024년에는 통조림 및 가공 참치 제품 수입량이 사상 최대치인 23만 557톤을 기록하였다. FAO에 따르면, 태국산의 전세계 시장 점유율은 2023년 31%에서 2024년에 32.67%로 증가하며 선두 자리를 유지하였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5년 7월 28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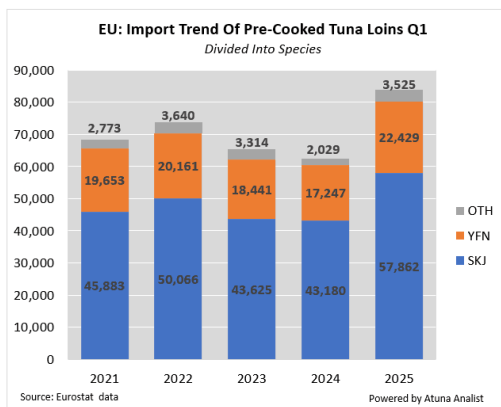
EU, 1분기 자숙 로인 수요 급증

전년도 대비 수입량 34% 증가

EU 가공업체의 2025년 1분기 냉동 참치 자숙 로인 수입량은 급증하였다. 중국산 가다랑어 로인의 수입이 특히 증가하였으나, 다른 국가로부터의 수입도 마찬가지로 증가하였다.

EU의 2025년 1분기 냉동 자숙 로인 수입량은 8만 3,816톤으로, 전년도 1분기 대비 약 2만 1,360톤 증가하였다. 올해 1분기 EU의 로인 수입량은 지난 5년간의 1분기 수입량을 통틀어 최고치였다. 평균 수입 가격은 톤당 5,203유로로 다소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편이었다.

1분기 수입된 로인은 대부분 가다랑어였다. EU의 1분기 가다랑어 로인 수입량은 5만 7,862톤으로, 전년도 대비 약 1만 4,700톤 증가하였다. 황다랑어 로인 수입량은 2만 2,429톤으로 지난 5년간 최대치였다.



(EU '21~'25년 참치 자숙 로인 1분기 수입량)

중국산 수입량은 3만 439톤으로 전년도 대비 5% 증가하였다. 수출된 제품의 대부분은 저렴한 가다랑어 제품으로, 자율관세할당제(ATQ)에 따라 무관세 혜택을 받았다. 중국산 물량 중에는 소량의 황다랑어 제품도 포함되어 있었다.

기타 여러 공급국으로부터의 수입도 증가하였다. 특히 인도네시아산 수입량은 약 7,000톤 증가한 1만 5,391톤이었다. 에콰도르, 베트남, 필리핀 등의 국가로부터의 수입량도 모두 전년 대비 약 2,000~3,000톤 증가하였다.

EU 외 공급국 중에서는 프린세스(Princes) 공장이 위치한 모리셔스산 수입량이 22% 감소하였다. 반면, 높은 세금이 부과됨에도 불구하고, 태국산 수입량은 전년도 대비 약 4~5배 증가한 2,601톤을 기록하였다.

같은 EU 국가로부터의 수입량은 전년 대비 34% 증가하였고, 평균 가격은 톤당 5,436유로로 하락하였다. 황다랑어 제품이 주를 이루는 스페인산의 수입량은 20% 증가한 2,657톤을 기록하였고, 가격은 톤당 6,791유로로 11% 상승하였다. 한편 저가 로인이 주를 이루는 포르투갈산은 올해 1분기에 세 배로 증가하면서 1,045톤을 기록하였다.

* 출처: Atuna, 2025년 7월 21일자



EU, 1분기 아시아산 참치 통조림 수입 증가세

전년도 대비 11% 증가

EU는 2025년 1분기에 전년 대비 11% 증가한 총 15만 8,415톤의 참치 통조림을 수입하였고, 이 중 2만 2,124톤이 아시아산이다. 아시아산 제품의 평균 단가는 톤당 4,154유로로, 2024년 1분기 대비 톤당 82유로 높은 가격이다. 중국을 제외한 모든 주요 공급국들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하였다.

가장 물량이 많은 베트남산의 수입량은 7,918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하였다. 평균 단가는 톤당 4,117유로로 높게 형성되었다. 베트남 수산물수출가공업협회(VASEP)의 6월 발표에 따르면, 2025년 1~4월 동안 EU로의 통조림 참치 수출액은 전년 대비 11% 증가하였고, 4월 한 달 동안의 수출액은 약 2,100만 달러에 달하였다. 주요 수입국인 네덜란

드와 이탈리아로의 수출은 계속 증가하였으나, 독일로의 수출은 전년도 동기 대비 감소세를 보였다.

Century Pacific과 Philbest Canning Corp. 등 주요 가공업체가 위치한 필리핀산 제품 수입량은 총 6,709톤이다. 평균 가격은 톤당 4,293유로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나, 2024년 1분기에 비하면 하락하였다.

태국산 수입량은 10% 증가하였으며, 톤당 3,848유로의 경쟁력 있는 가격을 기록하였다. 다만 이들 제품에는 24%의 관세가 적용되어, 실제 구매자들이 지불한 금액은 약 톤당 4,772유로에 달하였다. 오랜 기간 EU 참치 통조림 시장에서 점유율을 점차 잃어왔던 태국에게 이번 수출 증가는 긍정적인 신호다.

* 출처: Atuna, 2025년 7월 16일자

EU 1분기 날개다랑어 원어 수입, 5년 만의 최고치

남아공 최대 공급국

EU는 2025년 1분기 동안 냉동 참치류 원어 3만 7,011톤을 수입하였고, 이 중 5,001톤이 날개다랑어였다. 전년도 동기 대비 122% 증가한 수치로,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수입량이다.

2025년 1분기 날개다랑어의 평균 수입 가격은 톤당 3,234유로로, 2024년 같은 기간보다 6% 상승했다. 이번 수입은 EU 선박과 비EU 국적 선박 모두에서 이루어졌으며, 올해 초 대서양에서의 좋은 어획 상황이 수입 실적에 반영되었다.

주요 공급국인 남아공산 날개다랑어는 2,112톤이며, 이는 전년 대비 거의 두 배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이들 원료는 EU 가공업체들에게 톤당 평균 3,596유로의 가격으로 거래되었다.

중국산 수입량은 1,159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90%라는 매우 큰 증가폭을 기록하였다. 수입 가격은 톤당 2,672유로로, 2024년 1분기 대비 낮은 수준이었다.

* 출처: Atuna, 2025년 7월 14일자



美 6월 상온보관 참치 가격 안정세 관세 대비 재고확보 원인...美 소비자 관망 추세

미국의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월 대비 0.3% 소폭 상승하며 생필품 가격은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했다. 상온보관 참치 제품 가격 역시 전월 대비 소폭 오르는 데 그쳤으며, 급등세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의 브랜드, 소매업체, 무역업자들이 7월부터 발효될 예정이었던 관세를 피하기 위하여 올해 초 역대 최대 물량의 참치 통조림을 수입하며 선제적으로 재고를 비축한 결과이다. 상호보복 관세는 8월 1일로 연기되었다.

지난 7월 15일, 미국 노동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은 소비자물가지수(CPI) 자료를 발표하면서, 2025년 들어 전체 지수 변동성이 1월 최고점 이후 상대적으로 완만해졌다고 밝혔다.

전체 어류 및 수산물 부문의 소비자물가지수는 6월에 전월 대비 0.1% 상승하였고, 전년도 동월에 비하면 약 1% 상승하였다. 특히 상온 보관 참치 및 수산물의 경우 5월보다 1.3% 높은 수준을 기록하며 소폭 상승하였다.

210 애널리틱스(210 Analytics)가 분석한 데이터에 따르면, 상온 참치 및 수산물은 매출액과 매출량 모두 증가하였다. 소비자들은 해당 부문에 총 2억 6,200만 달러를 지출하였다. 이는 전년도 동월 대

비 2.2% 증가한 수치이다. 매출량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3.1% 증가하였다. 원인은 전체 상온보관 수산물 부문 가격이 6월에 0.8% 하락하였기 때문이라고 SeafoodSource는 보도하였다.

CPI 자료에 따르면, 신선 수산물의 가격은 6월에 0.7% 상승하였고, 이에 따른 매출액은 6억 7,700만 달러로 0.4% 증가하였다. 반면 냉동 수산물은 6월에 가격이 전월 대비 1.4% 하락하였고, 소비자들의 지출 총액도 감소하였다.

전체 식료품 가격은 6월 한 달 동안 변동이 거의 없었다. 생선, 육류, 곡물 및 제과류, 유제품 등의 주요 품목 가격은 모두 하락하였다. 반면 외식비(food away from home)는 소폭 상승하였고, 그 결과 6월 CPI가 0.4% 증가하였다. 이는 5월보다 0.1%포인트 높은 수치이다. 하지만 지난해 6월과 비교하면 외식비 지출은 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미소매협회(National Retail Federation)는 지난주 자체 자료를 발표하며, 6월 전체 소매 판매(식료품점 포함)가 둔화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관세 등 정부 정책이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소비자들의 지속적인 우려 때문으로, 많은 소비자들이 가계 지출에 대해 “관망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분석하였다.

* 출처: Atuna, 2025년 7월 16일자



참치 통조림, 미국서 가장 저렴한 단백질 지위 유지

美 시장 육류 가격 급등 추세

미국에서 닭고기와 다진 쇠고기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식품 물가 상승이 이어지는 가운데, 참치 통조림이 저렴한 단백질 공급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미국 노동통계국(이하, BLS)이 발표한 소비자물가지수(이하, CPI)에 따르면, 2025년 6월 기준 다진 쇠고기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10.3% 상승하였고, 쇠고기 스테이크 가격은 12.4% 급등하였다. 닭고기 가격도 3.9% 올랐다.

BLS에 따르면 다진 쇠고기 1파운드(약 0.45kg)의 가격은 지난해 6월 5.36달러였으나 올해 6.10달러로 상승하였다. 신선 닭고기 1파운드(2.00달러)에서 2.08달러로 올랐고, 달걀 한 판(12개 기준) 가격도 지난해 2.72달러에서 올해 3.78달러로 상승하였다.

반면, 참치 통조림을 비롯한 가공 수산물 제품의 가

격은 전년 대비 1.1% 상승에 그쳤다. 실제로 미국 대형 유통업체인 월마트에서 판매 중인 'Great Value Chunk Light Tuna in Water' 5온스(약 142g) 제품은 현재도 한 캔에 0.92달러로 구매 가능하다. 온스당 가격은 0.184달러로, 1파운드(약 453g) 기준 약 2.94달러에 해당한다. 이는 닭고기보다는 다소 비싸지만, 다진 쇠고기보다는 훨씬 저렴하다.

브랜드 제품 중에서는 'StarKist Chunk Light in Water' 5온스 통조림 제품이 가장 저렴한 편으로, 한 캔에 1.14달러이다.

경제학자들은 쇠고기 가격이 2026년 이후에도 계속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요 원인은 가뭄으로 인한 사육 소의 감소 추세이다.

* 출처: Atuna, 2025년 7월 30일자

북미 참치 시장, 2023년까지 \$108억 성장 전망

통조림 제품, 전체의 65% 차지 전망

북미 참치 시장 규모가 2024년 기준 약 93억 4천만 달러(한화 약 12조 7천억 원)에서 2033년까지 108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평균 성장률(CAGR)은 1.64%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참치 소비의 약 65%는 통조림 제품이 차지하고 있으며, 가정과 기관에서의 높은 활용도, 장기 보관성, 가격 경쟁력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신선 참치 제품군은 연평균 7.2% 성장률을 기록하며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부

문으로 나타났다. 건강 단백질 식품 소비자 선호와 프리미엄 제품 수요가 시장 확대를 이끌고 있다.

가다랑어가 전체 소비의 약 40.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통조림 원료로 사용된다. 인기를 얻는 날개다랑어는 연평균 6.5%의 성장률로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확대 중이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전체의 약 76.4%를 차지하며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멕시코 역시 참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출처: Market Data Forecast, 2025년 7월 30일자



2025년 에콰도르 참치 수출 호황

1~4월 수출액, 수출량 모두 증가

에콰도르의 참치 산업이 호황을 맞이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에콰도르의 참치 수출은 금액과 물량 모두에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이 기간 동안의 수출액은 5억 5,362만 달러로, 2024년 같은 기간 대비 19% 증가하였고, 2024년 1월~8월 전체 참치 수출액 10억 달러의 절반을 넘어섰다.

이번 통계는 에콰도르 참치산업가공업협회(CEIPA)가 발표한 것이다. 올 1~4월 전 세계 시장으로 총 11만 6,552톤(전년도 대비 22% 증가)의 다양한 제품이 수출되었다.

참치 통조림의 수출액은 4억 4,190만 달러로 각 제품 중 최고액이었다. 참치 로인은 8,076만 달러가 수출되었고, 냉동 스테이크 등 기타 제품의 수출액은 3,096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에콰도르 참치의 최대 수출처는 EU이다. EU로의 수출은 올해 6만 6,165톤으로 24% 증가하였다. 증가분 중에서는 통조림의 비중이 가장 컸다. 전체 EU 대상 참치 수출액은 3억 3,089만 달러로, 총 수출

금액의 60%를 차지하였다.

2025년 1분기 에콰도르산 통조림 참치의 스페인 수출량은 거의 두 배로 늘었다. 그 외 유럽 주요 시장들에서도 수출 증가세가 이어졌다.

2024년 에콰도르 선망선단이 막대한 가다랑어 어획량을 기록한 것이 유럽 시장 수출 호조로 이어졌으며, 이러한 추세는 올해도 계속되고 있다.

또한, EU로의 냉동 참치 로인 수출도 전년 대비 25% 증가했다.

물량 면에서 미국(8,434톤)과 라틴아메리카(3만 1,751톤) 시장으로의 수출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으나, 영국으로의 수출은 소폭 감소하였다.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상호 관세 정책이다. 만약 8월 1일부터 에콰도르산 제품에 대해 10% 추가 관세가 시행될 경우, 에콰도르 가공업체들은 이에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출처: Atuna, 2025년 7월 10일자

Ecuador's Tuna Exports In Upward Trajectory

Ecuador: Export of Tuna Products Jan - April, FOB (USD)

	2024		2025		Diff %	
	M/T	FOB in Mln	M/T	FOB in Mln	M/T	FOB in Mln
United Kingdom	10,013	\$47.62	9,826	\$46.10	-2%	-3%
European Union	53,541	\$271.55	66,165	\$330.89	24%	22%
United States	5,339	\$31.95	8,434	\$47.64	58%	49%
Latin America	25,959	\$113.88	31,751	\$127.31	22%	12%
Other countries	601	\$2.15	376	\$1.68	-37%	-22%
Grand Total	95,454	\$467.14	116,552	\$553.62	22%	19%

Source: Banco Central del Ecuador

Powered Atuna Analyst



영국 2024년 가다랑어 통조림 수요 증가

태국산 수입량 급증

지난해 영국 수입업체들의 참치 통조림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체 참치 구매량이 최근 5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2024년 한 해 동안 영국 내 브랜드, 소매업체, 유통업자 등이 수입한 참치 제품의 양은 총 10만 3,612톤으로, 전년도 대비 약 15% 증가하였다. 이는 2020년부터 2024년 사이 가장 높은 물량이며, 전체 거래 금액은 4억 3,200만 파운드(미화 5억 8,500만 달러)에 달하였다. 흥미롭게도, 이 수치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사재기 열풍이 발생하며 수입량이 급증한 2020년(10만 3,474톤)보다도 약간 높은 수준이다.

2024년의 주요 수입 품목은 소금물 또는 오일에 담긴 가다랑어/황다랑어 통조림 제품으로, 전체 수입량 중 10만 3,154톤을 차지하였다. 냉동 참치 스테이크 및 필렛의 수입량은 2023년 수입량인 1,808톤에 비하면 확연히 감소하였다.

지속가능성 인증을 받은 참치의 영국 내 판매도 소비자 수요 증가에 따라 성장하고 있다. Tesco, Waitrose, Aldi, Sainsbury's와 같은 대형 유통업체들은 MSC 인증 참치 제품의 구색을 확대해왔다. MSC에 따르면, 2023/24 회계연도에 영국 소비자들은 총 2만 3,500톤(제품의 순중량 기준)의 MSC 인증 참치를 구매하였는데, 대부분은 가다랑어 제품이었다.

에콰도르는 영국 시장에서 훌륭한 실적을 거두었다. 에콰도르산 상온 보관 참치 제품 수입량은 2024

년에 총 2만 7,579톤이며, 수입액 기준으로는 1억 871만 파운드(미화 1억 4,718만 달러) 수준으로, 물량과 금액 모두 증가하였다. 영국의 에콰도르산 제품 수입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Princes 그룹 공장이 위치한 모리셔스산 통조림 수입량은 소폭 증가하였다. 타이유니온(Thai Union) 공장이 위치한 가나는 영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John West 브랜드의 참치를 가공한다. 2024년에 가나산의 수입량은 전년 대비 12% 증가한 1만 440톤이었다. 타이유니온 산하 IOT 공장이 위치한 세이셸산은 1,858톤 증가한 1만 355톤이 수입되었다.

태국산 수입량은 총 5,521톤으로, 2023년 대비 약 88% 증가한 수치이다. 태국 사뭏사콘(Samut Sakhon)의 타이유니온 공장도 John West 제품을 생산한다. 타이유니온은 전 세계적으로 상온 참치 제품 판매가 호조를 보이면서 2024년에 매우 좋은 실적을 거뒀다. 지난 10년간 영국으로의 태국산 참치 통조림 수출이 지속 감소세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수입량 증가는 고무적인 변화이다.

보통 영국 수입업체들은 중국산 참치 제품을 많이 구매하지 않지만, 2024년에는 중국산 냉동 스테이크 및 필렛 수입이 큰 폭으로 늘었다.

한편 파푸아뉴기니, 포르투갈, 프랑스, 독일 등의 공급국은 영국 시장에서 큰 폭의 점유율 하락을 겪었다.

* 출처: Atuna, 2025년 7월 21일자



프랑스 참치 시장, 기하급수적 성장

2024년 기준 가정 내 참치 보급률 약 84%

프랑스 보존식품산업연합(이하, FIAC)의 수산업 담당 전무인 피에르 코메르(Pierre Commere)는 프랑스에서 통조림 참치 소비가 수년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왔다고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2025 유럽 참치 컨퍼런스(ETC 2025)의 첫 번째 세션에서 발표하였다. 또한 이 같은 소비 증가가 프랑스인의 기대수명 향상에도 기여했다고 말하였다.

코메르 전무는 1950년대 중반 프랑스가 기니만에서 열대 참치 조업을 시작할 당시, 프랑스의 연간 참치 통조림 소비량은 1만 5,000톤에 불과하였고, 주로 먹는 품종은 날개다랑어였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Le thon c’est bon(참치는 좋다)”라는 슬로건 아래 30년간의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이 캠페인의 결과로 1990년대에는 연간 소비량이 10만 톤으로 급증했다.

코메르 전무는 “2024년 기준으로 가정 내 참치 보급률이 약 84%에 달하며, 수산물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하였다.

코메르 전무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참치는 다른 수산물에 비해 프랑스 가정에 가장 널리 퍼져 있는 제품이다. 2024년 기준 프랑스인의 연간 구매 빈도는 약 6회, 1회당 평균 구매량은 0.41kg이었다. 그는 이어 “kg당 평균 가격은 10.82유로로, 소비자들이 단백질을 얻는 데 적절한 가격”이라고 덧붙였다.

프랑스 시장은 브랜드 제품보다 자사 상표

(Private Label)에 더 우호적인 경향을 보인다. 작년 판매된 통조림 참치의 55%가 자사 상표 제품이었으며, 나머지는 브랜드 제품이었다.

코메르 전무는 이어 프랑스 참치 산업을 흔든 민감한 사안도 언급했다. Bloom과 FoodWatch라는 NGO는 다수 통조림 참치 제품의 수은 함량이 0.3mg/kg을 초과하였다고, EU 유통업체들이 통조림 참치를 판매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제품들은 EU 기준치 내에 있었다.

이에 대해 코메르는 프랑스인의 기대수명 증가로 반박했다. 그는 “1950년에서 2019년 사이, 프랑스 남성의 평균 기대수명은 63세에서 80세로, 여성은 70세에서 85세로 증가하였다”라고 설명하였다.

동일한 기간 동안 1인당 통조림 참치 소비량도 1950년 0.5kg에서 2020년에는 거의 2kg까지 증가하였다. 코메르 전무는 “기대수명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참치가 해롭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오늘 ETC 2025에서 수은이 주제가 아니긴 하지만, 우리 제품의 평판과 관련이 있기에 꼭 언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코메르는 프랑스 내 참치 가공 산업이 전체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연간 1만 8,000~2만 톤, 개수 기준 1억 개 이상의 통조림이 프랑스 내에서 생산된다. 그는 “프랑스 내 생



산에서는 켈리드용 제품이 주를 이룬다”라고 설명하며, 전체 중 6천만 개 이상의 통조림이 켈리드 카테고리에 해당한다고 말하였다. 나머지는 물, 오일, 혹은 소스에 담긴 제품이며, 껍질 바르는 형태인 스프레드류 제품은 극소량이다.

프랑스 현지 생산에 사용되는 원재료는 주로 참치 자숙 로인 6,000~7,000톤, 가다랑어 혹은 황다랑

어 원어(Whole round) 1,800~2,200톤, 날개다랑어 1,500~2,000톤으로 구성되어 있다.

코메르 전무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프랑스 참치 시장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해왔다. EU 이외의 공급지는 인도양, 아프리카 지역, 중남미 등이다.

* 출처: Atuna, 2025년 7월 14일자

CNN, 대만 원양선단 외국인 선원 인권침해 집중보도 강제노동, 임금 관련 문제 등 보도

미국 보도전문채널 CNN에서 지난 7월 12일에 대만 원양선단의 외국인 선원 인권침해 사례를 심층 보도하였다.

CNN은 대만 원양어선에서 사고로 손에 부상을 입었으나, 선장의 귀향 거부로 인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하면서 약지와 중지 일부를 잃고 해고 통지를 받은 인도네시아 선원 Silwanus Tangkotta의 사례를 집중 조명하여 보도하였다.

대만 정부는 해당 사례에 대하여 “선장이 의사와 상의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라고 주장하였다.

대만은 세계 2위의 원양어업 국가로, 전 세계로 수산물을 수출한다. 조건 개선을 위한 개혁 조치에도 불구하고, 동남아 출신 선원들은 임금 체불, 과도한 초과근무, 신분증 압수 등의 가혹한 대우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는 수년간 바다에 고립된 채 임금도 받지 못하고 일한 경우도 있었다.

대만은 2017년 원양어업법(Act for Distant Water Fisheries)을 도입하여 감독 강화를 시도했지만, 비판론자들은 집행력 부족 및 규제당국의 편향을 지적하였다.

미국 노동부는 2020년부터 대만 원양어업을 강제노동 의심 산업으로 분류하고 사기성 채용, 임금 미지급, 신체적 폭력, 극단적인 노동 시간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강제노동 조건에서 생산된 대만산 참치 및 기타 수산물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대만 수산청은 CNN에 보낸 성명에서 미국 노동부의 보고서는 NGO가 제공한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기반한 것이며, 외국인 선원은 대만 수산업의 “중요한 파트너”라고 주장하였다. 대만 수산청은 대만이 “어업과 인권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시행하는 소수의 국가 중 하나”라고 주장하였다.

대만 노동부는 “원양 외국인 선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관련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수산청과 협력하고 있다”라고 주장하였다.

인권단체들은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종사하고 있는 대만의 수십억 달러 규모 참치 수출 산업에서, 보다 강력한 점검과 제도 개혁을 통해 이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 출처: CNN, 2025년 7월 12일자



EU 법원, 英 유통업체에 dFAD 어획 참치 퇴출 압박 인도양 FAD 규제안 거부 재검토 판결

유럽 법원의 판결로 인하여 영국 슈퍼마켓에 dFAD(부유형 FAD)로 어획된 참치의 공급망 퇴출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EU 일반법원(General Court of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은 인도양의 참치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부유형 FAD 규제 조치를 거부한 EU 집행위원회의 결정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소송은 환경단체 블루마린재단(Blue Marine Foundation)과 블룸(Bloom)이 제기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집행위는 인도양에서의 부유형 FAD 72일 금어기 제안 등 관련 조치들을 재검토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

이 판결은 환경보호 단체들이 영국 유통업체들에

대해 부유형 FAD 어획 참치 판매를 중단할 것을 재차 촉구하는 가운데 나왔다.

블루마린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많은 영국 슈퍼마켓들이 PL(유통업체가 자체 브랜드로 판매하기 위해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생산하는 상품) 제품에 FAD 어획 참치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으나, 브랜드 상품에 대해서는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포획된 참치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존 웨스트(John West), 프린세스(Princes) 등 주요 브랜드들은 인도양에서 FAD를 사용하는 선단으로부터 참치를 공급받고 있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5년 7월 28일자

기후 변화로 참치 어장 이동

참치 자원 이동, 태평양 도서국 생계와 경제 기반 위협

기후 변화로 인한 해양 온도 상승과 해수면 상승이 태평양 도서국에 이중 위협을 가하고 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참치는 투발루 국가 수입의 약 60%를 차지하지만, 수온 변화에 따라 어군이 공해로 이동하면서 지난 5년간 어업 허가 수입이 약 40%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투발루의 전체 예산은 약 6% 줄어들었으며, 2050년까지 최대 25%의 참치 자원 감소가 예측된다.

이러한 이동은 단순한 생태 변화가 아닌 정치적 맥락에서의 기후 정의(climate justice)의 문제로

연결된다. EEZ를 벗어난 어장은 공해로 간주되어, 중국·일본·미국 등 외국 원양 어선이 무상으로 조업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태평양 도서국들은 “과거 어장 소유권 보존”을 위한 새로운 해양법 논의를 국제사회에 제기하고 있다.

솔로몬제도의 주요 수산 가공업체 SolTuna는 참치 자원 감소로 인해 2050년까지 어획량 33% 감소, 연간 최대 1억 4천만 달러 손실이 예상된다.

* 출처: New Zealand Herald, 2025년 7월 28일자



말레이시아, 참치산업 중심 항만 조성 추진

페낭, 사바 주 등 항만 개발 주력

최근 몇 년간 말레이시아는 자국의 참치 산업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이웃 국가들에 비해 참치 어획 및 가공 활동은 미미한 수준이다. 모하마드 사부(Mohamad Sabu) 말레이시아 농업식량안보부 장관은 최근 하원의회에서, 페낭(Penang) 주 정부로부터 새로운 참치 하역 항만을 설치해달라는 신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페낭은 말레이시아 내에서 참치 어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 중 하나다. 페낭 주 정부는 이 프로젝트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시행될 제13차 말레이시아 국가개발계획(RMK13)에 포함되기를 희망한다.

사부 장관은 새 참치 하역 항만의 설립은 타당성 조사, 환경영향평가, 지역 어업자와의 협의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말

레이시아에서 유일하게 참치 하역지로 지정된 페낭 Butterworth 지역의 심해 항만 개발을 위하여 수산청이 관련 예산을 신청한 상태이다. 장관은 “참치 등 원양 어종의 하역 관리를 보다 체계적이고 경쟁력 있게 개선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또한 사바(Sabah) 주의 다른 항만도 참치 산업을 위해 리모델링될 예정이다. 말레이시아 회사 알파오션리소스(Alpha Ocean Resources Berhad)는 이번 주 사바 주도 코타키나발루(Kota Kinabalu) 시장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사바 항만은 총 3억 6,000만 링깃(미화 약 8,495만 달러)을 투입하여 개보수 작업이 이뤄질 예정이며, 회사는 이곳에서 본격적인 참치 하역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 출처: Atuna, 2025년 7월 30일자

인도, 몰디브와 수산 및 양식 분야 양해각서 체결

지속가능 어업, 양식, 인프라, 인력 개발 등 포괄적 협력 추진

인도 수산청과 몰디브 수산해양자원부는 수산 및 양식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이 양해각서는 2025년 7월 25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몰디브 국빈 방문 기간 중 체결된 6건의 양해각서 중 하나이다.

이 협력은 지속 가능한 참치 및 원양 어업 촉진, 수산양식 및 지속 가능한 자원 관리 강화, 어업 기반 생태 관광 육성, 양국 간 혁신 및 과학 연구 지원

을 목표로 한다.

양해각서에 명시된 주요 협력 분야에는 가치 사슬 개발, 해양 양식 기술 발전, 무역 촉진, 어업 분야 역량 강화 등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몰디브는 냉동 보관 시설 투자로 어류 가공 능력을 확대하고, 양식장 개발, 생산 효율성 개선, 양식 종 다양화 등을 통해 양식업 분야를 강화할 계획이다.

* 출처: 인도 정부 언론 정보국, 2025년 7월 26일자



아메리칸사모아 경제, 스타키스트 의존 심화 무디스 등 지적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 Ratings)는 아메리칸사모아 경제의 스타키스트 참치 공장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무디스는 아메리칸사모아가 현재 직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겪게 될 다양한 문제들을 보고서에 정리하였다.

2025년 4월, 무디스는 아메리칸사모아 정부의 신용등급을 Ba3로 유지하였는데, 이는 신용 위험이 상당하며, 채무 상황을 제때 또는 전액 이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미국의 자치령인 아메리칸사모아의 경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본 무디스는, 이 지역의 대부분의 일자리가 정부나 참치 가공 공장과 관련되어 있으며, 지방 정부는 상당한 부채를 안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정부 소유의 공공은행도 리스크 요인 중 하나로 꼽혔다. 2022년 기준 아메리칸사모아의 국내총생산(GDP)은 8억 4,080만 달러였으며, 전년 대비 성장률은 단 1%에 그쳤다.

미국 회계감사원(GAO,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에 따르면, 아메리칸사모아는 2021년 6월 이후 공공사업 등 정부 주도의 프로젝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일반수익채(general revenue bonds)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 2021년에 차입한 자금 일부는 입법부 및 고등법원 청사 신축에 사용되었다. 아

메리칸사모아 당국은 2025년 중 일부 2015년 발행 채권을 낮은 이자율로 재융자(refund)하여 채무 상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아메리칸사모아 지역언론 Talane이 보도하였다.

무디스는 2024년 11월에도 별도의 보고서를 통하여 아메리칸사모아의 저소득 주민 구조와 평균 이상 수준의 장기 채무 부담을 지적하였다. 또한 해수면 상승이라는 기후 리스크도 이 지역이 안고 있는 중요한 구조적 위험 요인이라고 평가하였다.

미국 의회를 위하여 회계감사, 평가,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GAO는 2020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아메리칸사모아 경제의 스타키스트 참치 공장 의존도가 매우 높다고 지적하였다.

스타키스트 측과 아메리칸사모아 정부 관계자들은, 참치 산업의 지속을 위하여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연방 세액공제(federal tax credit) 제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세액공제는 미국 정부가 기업의 연방 소득세 납부액을 줄여주는 혜택으로, 스타키스트 측은 이 제도가 산업 유지에 핵심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지 최저임금 인상을 맞추는 것이 매우 큰 과제라는 점도 언급하였다고 Talane이 전하였다.

* 출처: Atuna, 2025년 7월 18일자



호주, 태평양 불법 어선 감시 강화

중국의 공해 진출 움직임에 대응

호주는 태평양 섬 국가들의 영해 감시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며, 불법 어선 감시를 위한 항공 순찰에 477억 호주달러(미화 310.72억 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다. 중국도 해당 수역에 해안경비대 파견을 추진하고 있다.

호주 총리 앤서니 알바니즈(Anthony Albanese)는 금요일 피지를 방문해 지역 안보 문제를 논의하였다. 이는 호주 정부가 피지에 순찰선 지원을 포함하는 해양 안보 협정을 승인한 직후 이루어졌다.

문서에 따르면 호주는 태평양 섬 국가들이 수백만 km에 달하는 배타적 경제 수역을 감시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상업용 항공 순찰을 지원할 계획이다.

호주 외무장관 페니 웡(Penny Wong)은 금요일 “호주는 태평양에서 ‘영구적인 경쟁’ 상태에 있다”고 말하였다. 이어 “해양 영역은 주권이 존중되는 안정적이고 안전한 지역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다.”라며, “도서국들은 육지 면적은 작지만 해양 관할권이 매우 넓어, 국제 규범에 따라 해양을 관리하는 것이 그들의 주권과 직결된다.”라고 강조하였다.

로이터통신은 지난주 중국 해경이 태평양에서 어선에 대한 공해상 검문 조치를 처음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이는 해당 지역을 항해하는 대만 어선과의 긴장 관계를 초래할 수 있다.

중국 해경은 2주 전 중국에서 피지 포함 태평양 섬 국가 10개국 장관에게 대만 해협에서 해양 법규

를 집행하는 데 사용되는 최대 규모 선박의 능력을 시연하였다.

중국은 중서부태평양위원회(WCPFC)에 태평양 해역 순찰을 위한 26척의 해경 선박을 등록했지만, 아직 실제 단속은 시행하지 않았다.

호주는 태평양 섬 국가들에 순찰선 24척을 기증했으며, 해당 지역에서 불법 어업을 단속하기 위해 해군과 공군 순찰을 연간 수차례 진행하고 있다.

나우루 협정 당사국 대표로 9개 태평양 섬 국가를 대표하는 상가 클락(Sangaa Clark)은 중국에 해경 순찰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대신 호주, 뉴질랜드, 프랑스, 미국의 호주 자금 지원 감시 및 순찰에 의존해 왔다고 밝혔다. 이 지역은 전 세계 참치 통조림의 절반을 공급하는 세계 최대 참치 어장을 관리하고 있다. 중국은 다수 태평양 도서국의 주요 어업 협력국이다.

태평양 안보 전문가인 피터 코넬리(Peter Connolly) 뉴사우스웨일스 대학교 연구원은 중국 해경의 해당 지역 순찰이 “태평양 어업 관리에 지정학적 긴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코넬리는 “특히 태평양에서 불법 어업에 가장 많이 관여한 국가는 중국과 대만”이며, 중국 해경의 개입은 어업 질서 유지에 오히려 정치적 긴장을 유발한다고 분석하였다.

* 출처: Reuters, 2025년 7월 13일자



살오징어류 국제 현황: 中 적도오징어 조업 지속

칠레 1~7월 어획량, 전년도 수준 유지

일본 무역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 어선 약 320척이 소형 적도오징어(페루에서 2,000해리 떨어진 적도에서 어획되는 오징어)를 대상으로 조업 중이며, 선박당 하루 5~10톤의 어획량을 올리고 있다.

7월 중순 시점에서 중국 내 위판가격(라운드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체 중량 500g 미만은 kg당 1만 9,000~1만 9,500위안, 500g~1kg은 1만 5,000~1만 5,500위안, 1~2kg 및 2~4kg은 모두 1만 5,000~1만 5,500위안의 범위에서 거래되고 있다. 또한, 대형 필렛은 2만 7,500~2만 8,000위안, 귀(오징어 지느러미)는 2만 5,500~2만 6,000위안에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

한편, 칠레의 아메리카대왕오징어 어획량은 1월부터 7월 14일까지 누계 기준으로 9만 598톤을 기록

하여, 전년도 동기(1~7월 말 기준)인 9만 4,214톤에 근접하고 있다. 칠레 선단은 소형 선박으로 연안에서 조업하기 때문에 기상 조건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향후 어황은 날씨에 좌우될 전망이다. 쿼터 한도에 도달한 페루는 현재 금어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일본 재무성 무역통계에 따르면, 1~5월 냉동 살오징어류(일렉스 오징어, 남미 대왕오징어 등 포함) 수입량은 전년도 동기 대비 20% 감소한 2만 1,760톤이었다. 단가는 25% 하락한 kg당 836엔이다. 국가별로는 칠레산이 2.6배 증가한 5,137톤에 달한 반면, 중국산은 24% 감소한 1만 2,429톤, 페루산은 48% 감소한 2,843톤, 아르헨티나산은 69% 감소한 880톤으로 나타났다.

* 출처: 미나토신문, 2025년 7월 31일자

페루, 오징어 자원 과학조사 착수

자원 고갈 우려에 선제 대응

페루 생산부가 자국 수역에서 'Operation Giant Squid III'이라는 과학 조사를 시작했다.

앞서 페루 당국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의 어획량이 한도인 30만 4,209톤에 도달함에 따라 지난 6월 말 홈볼트오징어 어업을 전면 중단하였다.

어업계는 올해 오징어 자원 분포가 예년과는 다르다며 우려를 제기하였다. 이에 정부는 과학 조사를 통해 자원 상태를 면밀히 평가하고, 지속가능한 어업 관리를 위한 근거를 확보하려 하고 있다.

페루 수산양식부 차관은 "올해는 단 6개월 만에

연간 어획 한도에 도달하였다. 2026년에 자원이 고갈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책임 있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외해 해수 유입 현상으로 인해 오징어가 연안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하였다. 하지만 해당 관계자는 "이는 개체 수가 증가가 아니라 어군이 밀집되어 있고 연안에 가까워졌다는 의미일 수 있다"라며 "과학적 조사를 통해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5년 8월 1일자



갈리시아 선단, 포클랜드 오징어 조업 출항

오징어 어업, 포클랜드 GDP 60% 차지

최근 어기의 급격한 감소와 자원 이동과 관련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약 1,000명의 선원이 지역 경제에 필수적인 4개월간의 중요한 어업활동에 나섰다.

16척의 대형 냉동 트롤 어선과 약 1,000명의 선원으로 구성된 포클랜드 제도로 향하는 갈리시아어선단은 지난주 스페인 비고와 마린 항구에서 출항하였다. 이들의 목적지는 멀리 떨어진 포클랜드제도로, 최근 몇 년간 자원 상태가 불안정한 중요한 자원인 롤리고 오징어를 잡기 위하여 최대 4개월간의 조업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박의 출항은 포클랜드 제도 인접 수역 및 아르헨티나 EEZ 밖에서 어획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올해 초 몇 달 동안 일일 평균 어획량은 20톤에 불과해 지난해의 45톤(성수기엔 75톤)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를 기록하였다. 실제로 2025년 첫 어기는 예정보다 10일 일찍 종료되어 전년 대비 어획량이 21% 감소하였다.

이러한 전망에도 불구하고 업계는 어획량 점진적 회복을 예상하며 다소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 포클랜드 제도 주변 어장의 생물학적 자원 상태는 오징어 개체수의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조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

갈리시아 선단은 합작 투자 방식인 16척의 포클랜

드 제도 국적 선박과 24척의 스페인 국적 트롤어선을 운영하고 있다. 스페인 트롤선은 연도에 따라 그 수가 다르며, 일부는 포클랜드 제도 EEZ 내에서 조업 허가를 받고, 나머지 일부는 공해에서 조업한다.

지속적인 어획량 감소로 인하여 해양 생물학자와 전문가 사이에서 다양한 가설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는 이 지역의 평균 수온이 과거 평균보다 지속적으로 상승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나머지는 환경 보호주의적 관점에서 남획과 관련된 지나친 어획 노력과 대형 공모선의 활발한 활동으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복잡한 상황에 특히 불안감을 더하는 현상은 몇 년 전부터 아르헨티나 영해에서 오징어의 전통적인 이동이 갑자기 중단되었다는 점이다. 일부 분석가들은 푸에고와 산타크루즈 분지에서 석유탐사와 관련된 지속적인 해저 탄성파 조사가 오징어의 자어(larval)와 치어(juvenile)에 큰 피해를 입히면서, 생물학적 순환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고 추측한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가설은 현재 현상의 실제 원인을 밝힐 수 있는 결정적인 과학적 증거가 없으므로 여전히 추측에 불과하다.

현대화된 선박에는 아르고스 베르베스(Argos Berbes), 프리온(Prion), 하다사 베이(Hadassa



Bay) 등이 있으며 어업 및 가공 작업과 선원 복지 개선을 위한 최신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시장 측면에서도 상업적 상황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오징어 전문 중개업자에 따르면, 작은 오징어의 수요는 제한적이지만, 큰 오징어는 동남아시아의 활발한 수요로 인하여 가격이 매우 견고하며 연중 내내 일관된 추세를 보인다.

오징어 어업의 경제적 중요성은 포클랜드 제도에 서도 마찬가지로 주목할 만한 수준으로, 국내총생산의 약 60%를 차지하며 총액은 2억 7,800만 파운드를 넘어선다. 이 지역에서 갈리시아 선박의 활동은 허가(적당 약 100만 유로)와 물류 서비스를 통해 상당한 수익을 창출한다.

* 출처: MercoPress, 2025년 7월 20일자

日 살오징어 1~5월 어획량 30% 증가

5월 노토반도 연안서 대량 어획...최근 수년간 감소세

일본 전국단위 어업 조합인 JF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이하, 전어련)가 집계한 1~5월 일본 국내 살오징어 어획량(생선·냉동 포함)은 전년도 동기 대비 14% 증가한 1,533톤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신선 살오징어는 31% 증가한 1,353톤, 냉동 살오징어는 41% 감소한 180톤이었다.

5월 단월 기준으로는, 선어 어획량이 전년 동월 대비 57% 증가한 548톤으로, 이 중 동해 수역에서의 어획량은 30% 증가한 240톤이었다. 노토반도(能登半島, 일본 혼슈 섬 중부, 이시카와현 해안에서 동해를 향해 북쪽으로 뻗어있는 반도) 연안에서는 소형 오징어채낚기 어선의 어획이 있었고, 이시카와현에서의 어획량은 105톤을 기록했다(전년 동월은 20톤). 규슈 지역은 전년 대비 3배인 295톤을 양륙하였으나, “극단적으로 많이 잡힌 것은 아니다”라는 평가이다. 산리쿠 지역은 81% 감소한 12톤이었다.

한편, 무라사키오징어(빨강오징어)의 조업을 하는 선상냉동선의 양륙은 6월 말부터 시작되었다. 전어련 관계자는 “어황도 좋아 거의 전 선박이 만선”이라고 말하였다. 양륙 후에는 순차적으로 2항차 조업에 나서고 있다. 살오징어 조업 중형 오징어채낚기 어선은 아직 어획이 없다.

일본의 살오징어 어획량은 최근 수년간 감소세이다. 연간 어획량은 1987~2015년 동안 매년 10만 톤 이상이었고, 1990년대에는 30만 톤 이상을 기록한 해가 두 번 있었다.

그러나 2016년(6만 4,000톤) 이후 감소가 이어졌고, 2019년에는 3만 3,000톤까지 줄었다. 2020년 소폭 반등하였으나, 2021~2024년간 매년 사상 최저치를 경신 중이다. 2024년 어획량은 1만 5,263톤이다.

* 출처: 미나토신문, 2025년 7월 21일자



포클랜드 롤리고오징어 어업 재개 준비

7월 27일 재개 예정

남대서양 롤리고 오징어 어업이 2년간의 어려움을 딛고 반등을 모색하고 있다. 포클랜드 제도는 2025년 두 번째 시즌 개장을 앞두고 있다.

지난 2년간 어려운 시기를 보낸 남대서양 롤리고 오징어 어업은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속에 준비에 나서고 있다고 업계 여러 관계자들이 Undercurrent News에 전하였다.

포클랜드 제도의 두 번째 롤리고 시즌은 7월 27일 개장을 앞두고 있으며, 최근 몇 년간 폐쇄와 쿼터 축소가 이어졌던 가운데 업계관계자들은 조심스러운 낙관론을 드러내고 있다.

어장을 다시 여는 데 있어 핵심적인 단계는 이미 진행 중이다. 스페인 냉동선 ‘프리온(Prion)’호가 포클랜드 수도 스탠리(Stanley)에 도착해 시즌 개장을 결정짓는 중요한 2주간의 사전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해당 조사는 오징어 자원이 충분히 건강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 조사에는 정부 과학자 3명이 동승한다.

포클랜드 최대 어업회사 포르투나(Fortuna)의 제임스 윌리스(James Wallace) CEO 는 “어업에 있어 중요한 순간”이라며 “작년 두 번째 시즌이 열리지 않은 이후, 어장에서 나온 첫 실질적 신호이기 때문에 업계 전체가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말하

였다.

조사용 선박이 접근할 당시 오징어의 흔적은 포착되지 않았지만, 윌리스는 이 시점에서 흔한 일이라며 이상한 일은 아니라고 설명하였다.

조사는 북쪽에서 시작해 남쪽으로 이동할 예정이며, 앞으로 며칠 간의 기상 조건도 양호할 것으로 보인다.

윌리스는 “역대 최고의 시즌들도 불확실한 시작 이후 극적으로 반전된 경우가 많았고,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것도 그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이번 시즌을 둘러싼 분위기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작년 한 해 동안 어획량은 3만 8,000톤에 그쳤다. 이러한 수치는 역사적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포클랜드제도 어업회사협회(Falkland Islands Fishing Companies Association)의 존 바튼(John Barton) 회장 역시 “이번 시즌이 좋기를 바란다”라고 밝히며, “2023년 두 번째 롤리고 시즌의 조기 종료와 2024년 두 번째 시즌의 전면 취소 이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불안감을 안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이런 불안감은 스페인의 비고(Vigo)와 마린(Marin)에서도 공유되고 있다. 갈리시아(Galicia) 지역 선



단은 남쪽으로 항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16척의 대형 냉동선은 최대 4개월간 항해를 위한 식량과 연료를 비축하고 있다. 이들은 어획 부진으로 조기 귀항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있다.

비고항냉동선주협회(ARVI)의 회장이자 선주 협동조합 대표인 하비에르 토우사(Javier Touza)는 “지금 예측이 어려운 시점”이라며 조심스러운 낙관을 내비쳤다.

토우사 회장은 “지금 당장은 예측이 힘들지만, 낙관적으로 본다면 상황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신호로 해석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또한 회장은 2025년 첫 번째 시즌의 결과는 최적이 아니었지만, 나쁘지도 않았다고 설명하였다.

토우사 회장은 “어획량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중간 수준이었다”라며,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면 이는 63일 간의 시즌을 전부 채우고, 하루 평균 생산량과 오징어 크기 모두 과거와 비슷한 수준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일 것”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이 어업은 엄격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철저하게 관리된다. 지난해 두 번째 시즌의 미개장은 보존 차원에서 내려진 결정이며, 이러한 예방적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틀이 있다.

월리스 CEO는 “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다르게 느껴진다. 2024년과 달리 현재까지는 자원이 북쪽 국제 수역으로 이동한 징후가 없으며, 2025년 첫 번째 시즌 이후 어장에 충분한 오징어가 남아 있다고 선장들이 믿고 있다”라고 전하였다.

인프라 개선은 어업 산업의 장기적 회복 전략의 일환이다. 포클랜드제도 정부는 1984년에 지어진 노후한 스탠리항을 대체하기 위해 1억 5천만 파운드(약 2억 310만 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다.

월리스 CEO는 “이번 항만 교체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프로젝트이며, 업계에는 큰 기회를 의미한다. 선박에 대한 지원 향상, 물류·운영 체계의 미래 대비 등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해당 프로젝트는 더 큰 선박 수용, 환적 효율성 개선, 물류 역량 강화 등을 목표로 한다.

토우사 회장 역시 “현대화는 분명히 필요하다”라며, “우리처럼 대형 선박으로 운영하는 기업들은 어획량을 감당할 수 있는 적절한 항만 인프라가 필요하고, 우리는 오랫동안 이를 요구해왔다”라고 밝혔다.

이번 투자에는 로스차일드(Rothschild & Co), 리걸 앤 제너럴(Legal & General), 아버딘 그룹(Aberdeen Group)이 참여하며, 기존 항만 철거, 신규 진입 도로 건설, 냉장·가공 시설 확충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2027년까지 새로운 어업 터미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토우사 회장은 “우리는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우리의 전문지식을 기꺼이 제공할 것”이라며, “우리는 여러 국가에서 어업 인프라와 협력해 왔고, 이번 사업이 업계의 미래 대비에 핵심이라고 본다”라고 말하였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5년 7월 16일자



동해 살오징어 회유량, 여전히 부족한 상황

■ 수산연구·교육기구, 장기 어황 예보 발표

일본 수산연구·교육기구(이하, 기구)는 7월 31일, 동해 및 태평양을 대상으로 한 살오징어 장기 어황 예보를 발표했다. 태평양에서는 일부 해역에서 회복 기미가 관측된 반면, 동해 전역에서는 작년 및 최근 5년 평균치를 모두 밑도는 회유량이 예상되었다.

살오징어는 일년생 어종으로, 과거에는 어황이 급격히 회복된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이어진 어획 부진을 감안할 때, 단기간 내 회복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구는 동해를 북부 홋카이도부터 서부 수역까지 다섯 구역으로 나눠 분석하였다. 그 결과 모든 수역에서 전년도 대비, 그리고 최근 5년 평균 대비 낮은 회유량이 예측되었다.

기구 및 동해 연안 8개 도도부현이 공동으로 실시한 가을철 개체군 조사에 따르면, 조사 지점 전체에서의 오징어 낚시기 1대당 '시간당 평균 어획량(이하, CPUE)'은 0.30마리로, 작년 평균(0.38마리) 및 최근 평균(4.53마리)보다 모두 낮은 수치였다.

총 50개 조사 지점 중 유효 어획이 확인된 지점은 단 22곳에 그쳤다. 유효 지점 비율은 44%로 사상 최저치였다.

과거 최저는 2023년(75%), 2024년(76%)이었다는 점에서, 올해의 저조함은 더욱 두드러진다.

또한, 어획된 살오징어의 평균 몸통 길이는 17cm 대로, 작년의 19cm에 미치지 못하였다. 다만 100마리 이상을 계측한 조사 지점은 단 2곳에 불과하기

때문에, 동해 전체의 개체 특성을 파악하기에는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판단이다.

기구 수산자원연구소의 미야하라 토시에 주임연구원은 "살오징어 자원량 자체가 부족하고,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태평양 연안의 어황 예보도 함께 발표되었다. 쓰가루 해협~홋카이도 남부 태평양 수역은 작년과 유사한 수준이 예상되었고, 도동(道東, 홋카이도 동부) 태평양 및 조반~산리쿠 수역은 작년보다 많은 회유량이 기대된다고 기구 측은 밝혔다.

태평양 연안 4개 도도부현 및 기구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총 49개 지점 중 유효 어획 지점은 4곳으로, 작년(56개 중 2곳)보다 수치는 늘었지만 여전히 전체 비율은 낮은 수준이다.

수역 전체의 평균 CPUE는 0.01마리로, 작년(0.001마리)보다는 증가하였으나, 절대적으로는 매우 낮은 수준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조반~산리쿠 앞바다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평균 CPUE는 2.3마리로 작년(0.4마리)을 크게 웃도는 수치를 기록하였다.

기구의 마쓰이 모에 연구원은 "이 수역의 살오징어들이 향후 도동 수역으로 복상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외해에서의 어획 정보도 함께 고려할 때, 도동 태평양 수역은 작년보다 회복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을 밝혔다.

*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5년 8월 4일자



러 극동 오징어 조업, 중소형 선박 중심 재편 필요

조업 효율과 자원 관리 등을 위한 모델 구축 필요

러시아 극동수산대 과학연구진의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극동 수역에서 이뤄지는 갈고리흰오징어 (Berryteuthis magister) 조업은 기존의 대형 선박 중심 체계로는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분석하였다. 보고서는 조업 최적화 모델 수립과 중소형 선박 중심 운용 체계로의 전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현재 갈고리흰오징어는 서베링해, 카라긴, 쿠릴 열도, 동해 등 광범위한 수역에서 트롤 방식으로 어획되고 있으며, 수역별로 추천 어획량(POB) 또는 총허용어획량(OДУ) 제도 하에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보고서는 대형 어선(БМРТ, БАТМ 등)의 일일 어획량이 중소형 선박 수준에 머물고 있어, 고비용-저수익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연구진은 “대형선의 낮은 조업 효율이 경제성 악화의 주요 원인이며, 향후 대형선을 배제한 조업 모델 설계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조업 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어장 접근성, 자원의 계절적 분포, 선박 규모, 어구 기술 수준 등을 지목하며, 단순 쿼터 운영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조업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향후 러시아 극동 수역 내 오징어 조업

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 어장 접근성과 계절성을 반영한 선박 배치 최적화 모델 구축
- 선박 운용 효율성과 쿼터 활용도를 고려한 연간 조업 전략 수립
- 조업 기술, 선박 규모, 자원 동태를 통합한 자원 관리 시스템 도입

고비용 대형선 중심 운용이 비효율적이라는 연구 결과는, 향후 조업 전략을 중소형 선박 중심으로 전환하고, 자원 접근성과 어장 회전율을 고려한 운영 모델을 도입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자원 기반의 스마트 조업 모델, 지역별 맞춤형 쿼터 소진 전략, 계절성 연동형 선단 운영 시스템 개발이 요구된다.

극동 수역의 갈고리흰오징어는 안정적인 자원으로 평가되지만, 현 조업 방식의 비효율성은 어업 수익성과 자원 보전의 이중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과학 기반의 선단 구성 최적화와 자원 기반 조업 모델 고도화는 오징어 어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 출처: 러시아 극동수산대 과학학술지, 2025년 6월 26일



베트남 오징어·문어 수출액, 2022년 이후 최고치

2025년 수출액 7억 달러 돌파 전망

베트남수산물수출가공협회(이하, VASEP)에 따르면, 올해 오징어·문어 수출액은 미화 7억 달러(유로화 기준 약 6억 400만 유로)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여러 시장으로의 판매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수출액이 7억 달러를 초과한 해는 2022년으로, 당시 베트남의 오징어·문어 수출은 전년 대비 27.2% 증가한 7억 6,300만 달러(약 6억 5,850만 유로)를 기록하였다. 이후 수출액은 2024년까지 감소세를 보였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의 수출액은 전년도 동기 대비 14% 증가한 2억 7,400만 달러(약 2억 3,650만 유로)로 나타났으며, 전통적 주요 시장과 신흥 시장 모두에서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VASEP

은 전하였다.

한국은 베트남 오징어·문어의 최대 수출국으로, 올해 1~5월 기준 수출액은 1억 달러(약 8,630만 유로)를 넘어서며 전년도 대비 6% 증가했고, 전체 수출액의 36%를 차지했다. 한국으로의 수출은 주로 냉동 갑오징어와 조리된 문어 제품이 중심이다.

일본은 수출액 기준으로 베트남산 오징어·문어의 두 번째 주요 수출국이다. 두 품목의 수출액은 약 6,900만 달러(약 5,950만 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거의 19% 증가하였다. 이 같은 증가세는 횡감용 및 조리된 문어 등 고급 제품에 대한 안정적인 수요 덕분이라고 분석되었다.

* 출처: Seafoodsource, 2025년 7월 18일자

러, 7월 말 명태 어획량 지난해 대비 4천 톤 증가

대구 어획량 5만 톤 감소

러연방수산청 조업감시센터(CFMC)에 따르면 지난 7월 28일 기준 수생생물자원 어획량은 295만 3,100톤으로, 지난해 대비 1.6% 감소하였다. 수역별 어획량은 다음과 같다.

- 극동 수역 228만 1,400톤(0.7% 증가)
명태 144만 2,500톤(4,300톤 증가), 대구 8만 1,900톤(2,000톤 증가), 청어 30만 9,800톤(2만 7,800톤 증가)
- 북부 수역 21만 6,300톤(32.5% 감소)
대구 12만 1,500톤(5만 3,900톤 감소), 해덕 3만 7,400톤(500톤 증가)
- 서부 수역 5만 1,400톤(3.5% 감소)

유럽 청어 3만 500톤(100톤 증가), 발트해 청어 1만 6,800톤(700톤 감소)

- 아조프-흑해 수역 2만 6,900톤(45.4% 증가)
멸치 1만 2,600톤(3,400톤 증가)
- 불가-카스피 수역 4만 9,500톤(3.1% 증가)
유럽 청어 2만 2,400톤(1,600톤 증가), 기타 잡어 9,400톤(1,900톤 감소)
- 원양 수역 31만 1,660톤(10.9% 증가)
외국 배타적 경제수역 15만 4,779톤(8.5% 감소), 국제기구 관리수역 등 공해 수역 15만 6,881톤(4만 5,727톤, 41.1% 증가)

* 출처: 러연방수산청, 2025년 8월 4일자



러 업계, 정부 가격 통제 정책에 대한 반발 심화

거래소 기반 시스템에 업계 우려 커져

러시아 연방 반독점청(이하, FAS)이 국내 수산물 시장에 대한 가격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거래소 기반 시스템 도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수산업계는 이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러시아선주협회(RSA)는 최근 공식 성명에서, FAS의 계획이 장기 투자 이행에 새로운 장애물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 특히, 거래소 정보공개 요건이 수출 거래에까지 적용될 경우, 현재의 지정학적 제재 상황에서 러시아 수출업체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RSA는 공식적으로 농업부에 제출한 반대 의견서에서, “수산물 거래를 거래소 기반으로 전환하더라도 유통망이 줄어들지는 않고 오히려 새로운 중개 단계를 추가함으로써 기존 유통망에 악영향을 미치고, 가격 변동성과 소비자 가격 상승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냉동 어류의 25% 이상을 거래소에서 의무적으로 판매하도록 하는 방안은 업계에 연간 약 3억 루블(미화 약 380만 달러)의 추가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FAS는 유통 단계 축소와 소비자 가격 인하를 위해 거래소 기반 수산물 거래 규칙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FAS는 명태, 대구, 해덕, 청어, 홍연어 등 주요 품목의 국내 유통구조를 분석한 결과, 수산물 가격 인상의 주요 원인이 다단계 중개인 구조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FAS에 따르면, 중개 단계가 최대 6단계에 이르고, 가격 가산율이 최대 50%에 달하는 경우도 있으며, 그 결과 소매가가 생산가의 3배 이상에 이르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이에 FAS는 공정 가격을 유도하고 유통구조를 단순화하기 위해 거래소와 어시장 등 대안적 유통 채널을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FAS는 특히 1회 거래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19개 주요 어종에 대한 장외 계약(OTC) 보고 의무화를 제안했다. 이는 전체 유통 구조에 대한 정밀 가격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위한 조치로, 가격 안정성 제고가 목적이라고 밝혔다.

RSA는 이러한 보고 의무가 “불필요한 행정·재정적 부담”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미 러시아 통계청이 공식 가격 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세관 당국도 수출 가격을 감시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중 규제 우려를 제기하였다.

문제는 점차 정치화되고 있다. 러시아 전국수산업협회(VARPE)는 거래소 기반 거래 지지자들이 반대의견을 “불투명한 범죄적 자본 옹호”로 간주하면서, 비판을 수용하지 않으려 한다고 지적하였다.

거래소 제도의 주요 지지자 중 한 명인 이고르 아르템예프(Igor Artyemyev) 전 FAS 청장은 “수산업계는 마지막까지 저항할 것이다”라고 발언하였다. 현재 아르템예프 전 청장은 거래소 제도의 직접적 수혜자인 상트페테르부르크 거래소의 대표를 맡고



있다.

한편, FAS는 수산업 분야 외국인 지분에 대한 규제 강화도 병행하고 있다. FAS는 지난 6월에 러시아 수산청과 함께 외국자본의 수산업 투자에 대한 반독점 정책을 논의하였고, 어업 쿼터 배정 절차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FAS는 외국인 투자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최근 몇 년간, 무르만스크 항만과 극동지역 계

어업 관련 자산 등이 “불법적 외국 소유”라는 이유로 국유화된 적이 있다.

FAS는 지난 2월, 수산물 가공·보관·운송 부문까지 외국인 인수 시 정부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 개정안 초안을 발표하였다. 이전까지는 어업 분야에만 적용되던 제한이 가공 및 지원 부문으로 확장되는 것이다. 해당 법안은 현재 러시아 의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5년 7월 23일자

러, 최대 명태 업체 CEO 교체 수익성 둔화 속 경영 체계 이원화로 대응

러시아의 대표적인 명태 어업 회사인 러시아어업회사의 짜벨리 까르부힌(Савелий Карпухин) 대표이사가 사임하고, 회사 이사회 의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신임 대표이사에는 기존에 운영이사였던 콘스탄틴 글로벤코(Константин Глобенко)가 임명되었다. 이사회는 인사를 승인했으며, 글로벤코는 오늘부로 공식 취임하였다.

동 회사는 경영진의 변화는 회사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까르부힌 전 대표는 이사회 차원의 전략 기획 및 장기 발전에 집중하며, 글로벤코 신임 대표는 일상적인 경영 및 운영을 책임지게 된다. 글로벤코는 “우리는 소비자에게 고품질 제품을 제공하고, 임직원을 위한 최적의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짜벨리 까르부힌은 2024년 6월 CEO로 취임하

였으며, 이전에는 전략 및 상업 부문 이사였으며, 대형 유통업체 비제로치카(Пятёрочка, 롯데슈퍼 형)와 마그닛(Магнит, 이마트형) 출신으로 유명한 올가 나우모바(Ольга Наумова)의 후임으로 임명되었다.

러시아어업회사는 러시아 최대 흰살 생선 생산 업체이다. 주요 어획물은 명태(어획량의 80%)와 태평양 청어이다. 이 회사는 베링해와 오호츠크해에서 어업을 하며 생선 필레, 다진 생선 및 연육(게맛살 원료)를 생산하는 등 수산물 가공사업도 운영한다. 2024년에 동회사는 41만 톤 이상의 어류를 어획하였다. 2024년 동 회사의 수익은 총 23억 루블로 2023년(33억 루블)보다 29.7% 감소하였으며, 순이익은 총 16억 루블로 전년도 19억 루블 대비 감소하였다.

* 출처: Fishery.ru, 2025년 7월 19일자



美 알래스카 명태, B시즌 전환기 진입

생물량 차이로 인하여 업계 전략 조정

2025년 알래스카 명태 어업은 알래스카만과 베링해 전역에 걸 할당량에 힘입어 이번에도 높은 생산량이 기대된다. 알래스카만에서는 어획 할당량이 두 시기로 나뉘며, 1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 8만 5,607톤,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동일한 물량이 배정되어 있다.

베링해에서는 여전히 B시즌 조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B시즌은 6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운영된다.

B시즌(6월 10일~10월 31일) 할당량:

연안: 33만 875톤 / 선상가공선(Catcher-Processors): 26만 4,700톤

모선: 6만 6,175톤 / 지역사회 개발 쿼터 7만 6,670톤

A시즌(1월 20일~6월 9일) 할당량:

연안: 27만 715톤 / 선상가공선: 21만 6,572톤 / 모선: 5만 4,144톤

이러한 할당량 하에서 베링해 어선단은 연중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생물학적 전환기와 전략적 어획 조절, 제품 전략의 진화에 적응하고 있다.

알래스카명태생산자협회(이하, GAPP)에 따르면, 7월 12일 기준 B시즌 어획량은 2024년 같은 기간 대비 약 88%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다소 느린 출발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패턴이 우세 어년군(dominant year classes, 특정

해에 태어나 개체 수가 많아 어획량이나 생태계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집단) 사이의 전환기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패턴과 일치한다고 전하였다.

2018년 우세 어년군은 평균 이상의 어체 크기와 수율로 잘 알려져 있으며, 현재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 그 자리를 어린 개체들이 섞인 혼합 군집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어획률과 제품 수율 모두에 영향을 주고 있다. 어선들은 어획 품질과 효율 유지를 위하여 최적의 어군을 찾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초기 어획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획량 증가의 신호는 나타나고 있다. 7월 12일에 끝나는 한 주 동안 연안 및 선상가공 부문 모두에서 어획량이 2024년 같은 주 대비 증가하였는데, 이는 조업 활동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긍정적 신호이다.

B시즌 초반 어획 추세가 다소 느렸음에도 불구하고, 냉동 생산량은 전년 대비 2% 증가하였다. 이 같은 예상 밖의 경향은 A시즌이 강세를 보인 덕분이다. 2025년 베링해 A시즌 할당량은 56만 8,611톤에서 60만 4,161톤으로 증가하였으며, 실제 어획량도 54만 4,203톤에서 58만 5,844톤으로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연초 원어 공급 기반이 강화되어 여름철 가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업계 관계자들은 냉동 생산량의 증가는 제품 전환



이나 수율 변화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연간 총 어획량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전하였다.

올해 어제 평균 크기는 지역에 따라 다르며 혼합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어린 개체의 비중이 높아 평균 크기를 낮추고 있다. 이는 필렛 및 연육 생산의 수율에 영향을 주며, 작은 어체는 낮은 수율을 야기하고 가공 경제성에 부담을 줄 수 있다.

현재까지 B시즌에서 가공업체들은 주로 연육과 PBO(가시제거) 필렛 생산에 집중하고 있다. 연육 수요는 특히 미국과 아시아 시장에서 강세를 이며, PBO 필렛은 미국 소매-외식 프로그램에서 지속적인 수요를 보이고 있다.

작은 어체 경향이 지속된다면, 필렛 수율 저하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생산 비용과 도매 가격 모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전략적 재고 계획과 고객사의 유연성 확보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는 데 중요할 것이다.

29주차(7/14~20) 동안 알래스카 명태 도매 가격은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했다. 미국산 싱글-프로즌(single-frozen, 어획 후 1회 냉동한 제품) 필렛 가격은 변동이 없었고, 수주간 상승세를 이어오던 중국산 더블-프로즌(double-frozen, 해동해서 가공한 다음 재냉동한 제품) 필렛 가격도 보합세였다. 그러나 B시즌 시작 이후 가격 상승 압력도 감지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재가공 명태 블록 가격은 상승세를 보였으며, 필렛 블록과 민스(다짐육) 제품 모두에서

가격 강세가 나타났다. 지속적인 수요와 더불어 광범위한 관세 불확실성이 이러한 상승세를 뒷받침하고 있다.

구매자들은 특히 공급 변동성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어체 크기 감소와 특정 제품 중심의 생산 전략이 가용성을 제한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시장 일각에서는 수요가 지속되고 무역 여건이 계속 변동할 경우, 향후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수출 시장과 무역 정책은 연중 후반기 핵심 관전 포인트로, 명태가 다른 글로벌 흰살생선들과 경쟁하는 상황에서 수요 변화와 환율 변동성이 영향을 줄 수 있다.

전반적으로 2025년 B시즌은 재조정의 해로 전개되고 있다. 높은 수율을 기록했던 2018년 우세 어년군에서 벗어나 새로운 생물학적 현실에 적응하는 과정 속에서, 업계의 초점은 전략적 어획, 수율 최적화, 유연한 제품 계획으로 옮겨가고 있다.

현재 수율과 조업 속도는 과거 시즌과 다르지만, 할당량과 최근의 어획 증가세는 안정적인 수요 대응이 가능함을 시사한다. 수확 조건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한, 시장 공급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알래스카 명태 산업은 현재 전략적 조정의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B시즌이 진행됨에 따라, 생물학적 자원, 가공 전략, 글로벌 수요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가격 안정성과 공급망 신뢰를 유지하는 핵심이 될 것이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5년 7월 16일자



日 마루하니치로, 1분기 실적 호조...명태 회복세 영향 연간 영업이익 전망 상향

일본 수산 대기업 마루하니치로(Maruha Nichiro)가 2026년 3월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기존보다 11% 상향한 300억 엔(약 2억 200만 달러)으로 조정하였다. 미국과 유럽 등 해외 사업의 견조한 실적과 알래스카 명태 사업의 회복세에 따른 것이다.

8월 4일 공개된 이번 수정 발표에 따르면 마루하니치로의 회계연도 기준 1분기(4~6월) 영업이익은 94억 엔으로, 전년도 동기 대비 23% 증가하였다. 2007년 마루하와 니치로의 합병 이후 1분기 기준 최대 실적이다.

실적을 견인한 핵심 요인은 알래스카 명태 사업의 회복이다. 마루하니치로의 자회사인 웨스트워드 시푸드(Westward Seafoods)는 알래스카 최대 어항인 '더치 하버(Dutch Harbor)'에 위치한 가공공장과 2022년 인수한 선상가공선 노던 빅터(Northern Victor)호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서 연육과 펠렛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명태 가격 회복으로 원료 공급 부문이 흑자로 전환되면서 실적 개선에 기여하였다.

또한, 명태 부문 자회사인 프리미어 퍼시픽 시푸드(Premier Pacific Seafoods)는 미국 명태 어업에 투입되는 선박인 '피닉스 프로세서(Phoenix Processor)'호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미국 내 게맛살 스틱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인 트랜스오션 프로덕츠(Trans-Ocean Products)도 1분

기에 좋은 실적을 기록하였다.

마루하니치로의 이번 분기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전년도 1분기에는 원료 공급 부문이 적자였고 가공 및 유통 부문은 흑자였으나, 올해는 양 부문 모두에서 흑자를 달성"하였다.

유럽 시장에서도 수산물 무역 부문이 견조한 흐름을 이어갔다. 핵심 유럽 자회사인 'Seacon (Seafood Connection Holdin)'은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하였다.

마루하니치로는 Seacon의 지분을 기존 70%에서 81.96%로 확대하였고, Seacon은 지난 5월 네덜란드 기반 수산회사 반 더 시피쉬 베헤어(Van der Seafish Behher)를 인수하였다. 이 인수는 7~9월 분기부터 본격적인 수익 기여를 시작할 것으로 기대되며, 2026년 3월 종료 회계연도까지 약 6억 달러의 영업이익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태국 자회사 킹피셔 홀딩스(Kingfisher Holdings)를 통한 애완물 사료 부문도 호조를 보였다. 2~3월 가격 인상을 단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북미 시장의 견조한 수요에 힘입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2%(약 4억 엔) 증가하였다.

다만, 트럼프 미 행정부 정책으로 태국산 수입품에 19%의 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회사는 반려동물 사료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할 계획이다.

식품 유통 부문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



였다. 1분기 매출은 전년도 동기 대비 1% 증가한 1조 8,270억 엔이며, 영업이익은 48억 엔으로 전년 수준을 유지하였다.

일본 내에서는 가리비, 새우, 참치 등 수산물의 자국 시장 판매 단가가 상승하면서 수익성이 개선되었

고, 유럽에서는 외식, 소매, 가공업체 등 다양한 채널로의 판매가 확대되면서 주요 제품들의 수익성이 향상되었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5년 8월 5일자

美, 알래스카 명태 1억 달러 이상 구매 계획 발표 1억 5,800만 달러 돌파 전망

미국 농무부(USDA)는 관세 수입으로 조성된 기금을 활용하여 약 1억 달러 규모의 알래스카산 명태 제품을 추가 구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달이 완료되면, 2025 회계연도의 총 구매액은 1억 5,828만 5,158달러에 달하게 되는데, 이는 역대 최대 규모였던 2019년의 7,633만 3,620달러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다.

8월 1일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장관은 1935년 농업조정법 개정안 제32조에 따라 미국산 수산물, 과일, 채소 등 총 2억 3,000만 달러 규모의 식품을 구매하여 전국의 푸드뱅크 및 영양지원 프로그램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이 가운데 1억 달러는 알래스카 명태 제품에 배정되었다.

개정안 제32조 조항은 전년도 수입 관세 수입의 30%를 농업 산업 지원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최근 수년간 연간 약 100억 달러가 조성되어 왔다. 이 중 대부분은 아동 영양 프로그램에 사용되며, 약 1억 4,400만 달러는 상무부의 수산업 활동에 배정된다.

이번에 사용되는 관세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시작한 글로벌 무역전쟁에서 부과된 관세 이전의 수입분이 기준이다.

이미 미 농무부는 2025 회계연도 기준으로 5,828만 5,158달러 상당의 알래스카 명태 제품을 구매하였으며, 이 액수만 해도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네 번째로 큰 규모라고 GAPP(알래스카 명태 생산자 협회)의 크레이그 모리스(Craig Morris) CEO가 언급하였다.

1억 달러 규모의 추가 구매가 완료되면, FY 2025의 총 구매액은 1억 5,828만 달러로 증가하게 되며, 기존 최고 기록인 회계연도 2019년의 두 배 이상이다.

이번 발표는 농무부가 7월 24일 알래스카산 명태 제품에 대한 사전 입찰 공고를 게시한 이후 나왔다. 당시 농무부는 구매를 고려 중인 품목의 유형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물량은 밝히지 않았다.

한편, 2025 회계연도가 2025년 9월 30일에 종료되기 때문에, 농무부는 회계연도 종료 전까지 공식 입찰 공고 및 수의계약을 마무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5년 8월 1일자



러 수산물, 수출량-수출액 동반 감소 환율, 고금리 대출로 투자 위축

2024년 수산물 수출이 전년 대비 물량과 가치 면에서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어종의 가격 하락, 시장 접근성 제한, 금융비용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수출 중심의 수산업 전반에 구조적인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

러시아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수산물 수출 가치는 약 24억 달러로, 전년 대비 10.3% 감소했다. 이중 냉동 생선 수출량은 2023년 대비 17.3% 감소하였으며, 가치는 21.4% 감소하였다. 이는 러시아 수산업 수익의 약 70%가 수출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산업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의미한다.

수출 감소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어종별 단가 하락이다. 특히 대구·명태 필렛 등 주요 품목의 수출 가격이 유럽 시장에서 최대 45%, 중국 시장에서는 25%까지 하락하며 최근 6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다. 여기에 러시아 정부가 환율 연동 방식으로 일부 품목에 최대 7%까지 수출 관세를 부과하면서, 해외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더욱 약화했다.

전체 어획량 역시 부진했다. 러시아 연방수산청에 따르면, 2024년 총 어획량은 전년 대비 약 7% 줄었으며, 특히 태평양 연어 등 일부 전략 어종의 어획 성적이 매우 낮았다. 이로 인해 수출 품목의 다양성

과 공급 안정성 또한 약화했다.

EU 및 미국의 지속적인 제재 조치도 영향을 미쳤다. 러시아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 규제와 인증 제한 등으로 인해, 유럽 및 북미 시장 진출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인도, 파키스탄, 남아공 등 신흥국 시장으로 수출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러시아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어업 기업들이 대출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기업 대출금리는 19~22% 수준으로, 신규 어선 건조, 냉동 인프라 구축 등 주요 투자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수익성 악화를 타개하기 위해, 러시아 정부와 수산업계는 고차 가공품(필렛, 연육 등)의 비중 확대를 꾀하고 있다. 실제로 2024년에는 전체 수출 중 가공 수산물의 비중이 전년 대비 17.4% 증가했으며, 이는 가공 부가가치 확대 전략의 하나로 풀이된다.

러시아 수산업계는 수출 다변화와 고부가가치 제품 확대를 통해 수익성 회복을 꾀하고 있지만, 글로벌 수요 침체와 지속적인 제재 여건하에서 단기 회복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정부의 수출 지원 정책 강화, 금융 완화 조치, 내수 유통망 활성화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출처: The Fishing Daily, 2025년 6월 11일자



대구 공급난에 비인증 제품 수요 증가

30년 만의 대구 부족 사태로 수산업계 비상

심각한 원료 부족 문제로 인하여, 흰살생선 구매층의 인증되지 않은 냉동 대구 구매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로열 그린란드(Royal Greenland)사의 카테고리 매니저인 닐스 반 예센은 MSC인증이 없는 대구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5월에 도입된 EU의 러시아 최대 공급업체 '노레보'와 '무르만 시푸드'에 대한 제재, 그리고 약 30년 만의 대구 쿼터 최저치라는 두 가지 주요 요인 때문이다.

John Doe 로열 그린란드 대표는 보통 이 시기에 재고 수준이 최고점을 기록하지만, 현재 대구 재고가 거의 없다고 밝혔다. 제재 도입 이후 신규 고객 포함 다수 업체로부터 비인증 제품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Royal Greenland의 할당량은 1만 5,000톤으로, 이 어종의 세계 어획량의 약 7~8%를 차지한다. 단기 예측으로는 대구의 공급 상황 개선은 예상되지 않는다. 대구에 대한 관심은 소매 체인과 외식 산업 전반에서 관찰되고 있으며, 해당 기업은 최근 미국 시장에 누타크(Nutaaq) 브랜드의 대구를 공급하며 홀세일 클럽(BJ's Wholesale Club)에 입점하였다.

우크라이나 전쟁 후 많은 소매업체가 러시아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꺼리지만, 유럽의 가공 산업은 여전히 러시아에서 수입되는 흰살 생선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공급 부족과 시장 환경 변화로 대구 가격은 지속하여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 출처: Fishretail.ru, 2025년 7월 28일자

러, 2026년 바렌츠해 대구 할당량 17% 증가 제안

자원 회복 조짐과 기존 모델의 과소평가 지적

러시아 수산 과학자들은 대구 어족의 회복 징후를 이유로 2026년 바렌츠해 대구 어획량 할당량을 17% 증가시키도록 제안하였다.

러시아 과학자들에 따르면, 러시아는 대체 계산 방법을 기반으로 동북극 대구의 총 허용 어획량(TAC)을 31만 5,033톤으로 제안하였다.

이 수치는 지난 6월에 러시아와 노르웨이 과학자들이 공동으로 발표한 26만 9,440톤의 권고안을 초과한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해당 종의 할당량 및 할당량 권고치는 매년 20%씩 감소하였다.

러시아 연방 수산청은 업데이트된 어족 평가 결과에 따르면 대구 어족이 안정화되었으며 향후 몇 년 내에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6년 상업용 대구 자원량과 산란용 대구 자원량은 각각 122만 톤과 32만 5,000톤으로 추정되며, 이는 2025년 수준과 거의 동일하다고 설명하였다.

* 출처: IntraFish, 2025년 7월 25일자



저층어류 무역 2년 연속 감소

러시아 대구, 노르웨이산 대체

2024년 세계 저층어류 무역이 감소하였다. 이는 대구 생산량과 할당량 감소, 러시아산 명태에 대한 무역 제재 때문이라고 FAO가 분기별 보고서에서 지적하였다.

중국은 여전히 저층 어류의 주요 구매국이며, 러시아는 그 주요 공급국이다.

FAO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러시아는 약 80만 톤의 명태를 수출하며, 2023년 대비 5%, 2022년 대비 20% 감소를 기록하였다. 이 중 대부분은 중국으로 수출되어 추가 가공 및 재수출되었다. 2024년 중국 전체 냉동 명태 수입량은 57만 5천 톤으로, 2023년 대비 7% 감소하였다. 이는 주로 러시아의 공급량 감소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중국에 대한 명태 공급량에서 90% 이상의 점유율을 유지하며 최대 공급국 지위를 유지했다고 FAO는 밝혔다.

2024년 중국의 냉동 대구 수입은 증가하였다. 이 제품의 수입량은 14만 4천 톤으로 전년 대비 11% 증가하였다(참고로 2022년 대비 6% 감소). 중국으

로의 냉동 대구 주요 공급국은 러시아로, 점유율이 65%를 초과하였으며, 그 뒤를 미국이 이었다.

눈에 띄는 점은 노르웨이와 러시아가 대구 어업에서 선두를 차지하고 있지만, 노르웨이는 중국 시장과 냉동 대구 부문 전체에서 점유율을 잃고 있다는 것이다. 2024년 노르웨이 어민은 4만 톤의 냉동 대구를 수출하였는데, 이는 2022년 대비 40% 감소한 수치이다. FAO는 수출 감소의 원인으로 중국 측의 '구매 관심' 감소로 설명하며, 중국이 노르웨이 대구에서 더 저렴한 러시아 대구로 전환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올해 상반기 중국은 냉동 대구 구매량을 모두 줄였다(러시아산 21% 감소, 노르웨이산 39% 감소). 한편, 러시아 대구는 중국 시장에서 절대적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 관세 통계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 대구의 공급량은 3만 6,700톤으로 노르웨이 대구 공급량인 4,700톤보다 약 8배나 많다.

* 출처: Fishery.ru, 2025년 7월 29일자





일본, 미국산 명태 연육 가격 인상에 반발

러시아산 수입 급증과 수요 부진이 시장 압박

2025년 B시즌(6월 시작)을 맞아 미국산 알래스카 명태 연육 가격 인상 시도에 대하여 일본 바이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내 수요 부진과 러시아산 수입 급증으로 시장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알래스카 생산업체들은 일본행 냉동 연육 블록의 제안가를 하향 조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업계에 따르면 일부 알래스카 연육 생산자들은 당초 B시즌 시작일인 6월 10일부터 전 등급에 대해 킬로그램당 30엔(약 0.20달러)의 가격 인상을 시도하였으나, 7월 초에는 A등급 연육에만 30엔 인상을 적용하고, 2등급 연육은 10~20엔으로 인상폭을 줄였다.

한 알래스카 주요 생산업체 영업 담당자는 “일괄적으로 30엔 인상하려던 계획은 일본 측에서 수용하지 않았다”라며, “KA와 RA 등급은 가격을 낮추지 않으면 구매가 이뤄지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일본 바이어들은 A등급 연육에 대해서도 수요가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인상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편, B시즌에는 저등급 연육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고등급 연육은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이는 현재 어획되는 명태의 선도와 크기 저하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러한 시장 불확실성을 반영하듯, 미국산 알래스카 연육(B시즌/일본향)의 공식 가격 평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일본 내 완제품 연육 소비는 여전히 침체되어 있

다. 일본 식품마케팅연구센터에 따르면, 2025년 5월 기준 제품 생산량은 전년 동월 대비 2% 감소한 3만 4,523톤으로, 5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였다. 1~5월 누적 생산량은 전년 대비 4% 감소한 17만 4,146톤이다.

세부 품목별로는 5월 기준으로 치쿠와(튜브형 어묵) 생산량이 4% 감소. 카마보코(판형 어묵) 7% 감소, 튀김 카마보코 0.4% 감소, 게맛살 5% 감소를 기록하였다.

도쿄의 한 연육 유통업자는 “실제 판매 시점 자료에 따르면, 올해 첫 5개월간 연육 제품의 소매 판매량 및 금액 모두 2% 하락하였다”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총무성 통계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지출은 명목상 증가하였다. 2인 이상 가구 기준 5월 연육 제품 지출은 692엔으로 전년 동월의 668엔 대비 증가하였다. 1~5월 누적 소비는 3,607엔으로 전년의 3,464엔보다 상승하였다.

이는 올봄부터 주요 연육 제조사들이 제품 가격을 인상한 영향도 반영된 것이다. 2020년을 기준(100)으로 하는 연육 제품의 소비자물가지수(CPI)는 5월에 127까지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품목별로는 카마보코 129.4, 치쿠와 128.3, 튀김 카마보코: 122.6이다.

알래스카산 연육이 직면한 또 다른 난관은 홋카이도의 연육 생산 회복과 러시아산 수입 증가이다.

일본연육협회에 따르면, 홋카이도산 명태 연육 생



산량은 5월 기준 전년 대비 16.4% 증가한 1,629톤으로, 12개월 만에 처음으로 1,000톤을 넘어섰다. 1~5월 누적 생산량은 32.1% 증가한 3,780톤이었다. 홋카이도산 연육이 알래스카산의 직접적인 가격 기준은 아니지만, 심리적 압박 요인으로는 작용한다.

Undercurrent News에 따르면, 5월 일본의 알래스카산 연육 수입량은 1만 18톤으로 전년 대비 18% 감소하였으나, 평균 수입 단가는 킬로그램당 414엔으로 22% 상승하였다.

1~5월 누적 기준으로는 수입량이 12% 감소하였지만, 수입금액은 28% 증가하였다. 반면 러시아산 연육 수입량은 5월 월간 기준 6% 증가하였고, 1~5

월 누적으로는 71% 급증하였다. 가격 측면에서도 알래스카산이 같은 기간 89엔 상승한 반면, 러시아산은 1엔 하락하면서 가격 경쟁력을 입증하였다. 러시아산 연육은 대부분 A등급으로 알려져 있다.

도쿄의 또 다른 수입업자는 “가격 경쟁력이 워낙 강해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제조업체들은 가장 싼 제품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일본 시장의 재고 흐름은 일본 내 수요 회복이 더디고, 공급 측면에서는 러시아산으로의 대체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5년 7월 16일자

러, 2030년까지 중동 수산물 수출 8만 7,000톤 목표 할랄 인증 확대 힘입어

러시아수산업협회(이하, VARPE)에 따르면 러시아는 중동으로의 수산물 수출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며, 수출량은 2030년까지 8만 7,300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수출 확대는 중동 시장의 수요 증가와 할랄(Halal) 인증 도입 가능성에 힘입은 것으로, 러시아 수산물 공급업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인터팍스(Interfax)와의 인터뷰에서, 게르만 즈베레프 VARPE 회장은 이 같은 전망이 중동 시장 조사와 러시아의 수출 역량을 바탕으로 도출된 것이라고 밝혔다.

수출 대상 주요 품목은 명태, 대구, 태평양 연

어, 청어, 정어리, 게 등이다. 특히 어분은 전체 수출량의 57%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러시아의 터키,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국가로의 수산물 수출은 1,300톤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으나, 2024년에는 1만 6,000톤 이상으로 급증했다. 이와 같은 증가의 주 요인은 어분 수출이다.

하지만 즈베레프 회장은 할랄 인증이 도입될 경우 성장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고 말하였다. 할랄 인증은 제품이 이슬람 율법에 부합한다는 점을 보장하며, 중동 시장 진출 시 점점 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5년 7월 11일자



日 연구소 “올해 콩치 어획량, 작년 수준 예상”

8~9월 부진하지만 어체 중량은 상회...공해 어장 형성 예상

일본 수산연구·교육기구는 지난 7월 29일, 8월부터 12월까지 홋카이도 동부에서 조반(常磐) 수역에 이르는 콩치 조업 어황이 “작년과 비슷한 적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발표하였다.

지난해 콩치 어획량은 2년 연속 증가하였고, 2020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며 회복세를 보였지만 3만 8,695톤에 그쳤다. 과거 평균이었던 연간 20만 톤대에는 여전히 크게 못 미쳤으며, 올해도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최근 계속된 어체 중량 감소 추세는 이어지겠지만, 올해는 작년보다 다소 큰 개체가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8~9월의 어획량은 작년보다도 부진할 것으로 예측되어, 어황이 안정되려면 어기의 후반을 기다려야 할 전망이다.

수산연구·교육기구가 발표하는 ‘콩치 장기 어황 예보(홋카이도 동부조반 수역)’는, 일본 근해에서 서경 165도에 이르는 콩치 분포량을 추정하기 위하여 매년 6~7월에 실시하는 자원량 직접 추정조사 등의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다.

올해는 향후 콩치가 서쪽으로 회유하여 일본 선단의 어장에 도달하면서 어획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1구역(일본 근해~동경 165도)과 2구역(동경 165도~경도 180도)의 콩치 분포량 총합이 109만 9,000톤으로 나타났다. 작년의 92.2만 톤을 소폭 웃도는 수준이지만, 2003년 이후 기준으로는 여섯 번째로 낮은 수치다. 특히 일본 근해로 이르는 시기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1구역의 비율이 작년 52.8%에서 올해는 14.6%로 크게 감소하면서, 8~9월의 유입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어체 중량은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어획의 중심이 될 1세어(1년생)의 현재 체중이 작년보다 약 20g 더 무겁기 때문에, 순조롭게 성장한다면 어기 전반에는 120~140g대, 전체적으로는 110~120g대의 어체가 주류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치어’로 분류되는 0세어는 일본에 가까운 1구역에 분포가 많아 어기 초반에는 치어의 혼획이 많겠지만, 어기 후반으로 갈수록 1세어의 비중이 높아져 안정적인 어황이 기대된다.

〈어장은 여전히 공해 중심〉

콩치가 유입될 어장의 경우, 8~9월에는 홋카이도에서 우루프섬(得撫島) 동쪽 수역인 동경 150~165도의 공해, 10월에는 북방 4개 섬(쿠릴 열도) 주변 수역과 그 인접 공해 수역에 어군이 형성될 것으로 예측된다.

오야시오(親潮) 한류가 홋카이도 동부 연안까지 확장되는 해에는 근해 어장이 형성되기도 하지만, 올해는 현재까지 동부 연안으로의 확장될 전망은 없다. 러시아 수역과 구시로 앞바다의 온수괴 동측이 어기의 중심 어장이 될 것으로 보이며, 올해도 대부분의 시기에 콩치 붕수망 어선의 주요 조업 수역은 공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대형 선박에 유리한 어업 환경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5년 7월 30일자



日 콩치협회 “러 금수조치로 소형 콩치 판매 우려”

수입 재개 여부, 매출에 막대한 영향 끼쳐

3년 연속 어획량 증가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일본 내 콩치 어업에서, 어업 관계자들은 러시아에 의한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제한의 지속을 우려하고 있다. 러시아가 2023년 10월, 중국이 단행한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중단 조치에 동참할 것을 표명한 이후, 일본의 냉동 콩치 수출은 전무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전일본콩치봉수망협회(全さんま, 이하 협회)’는 “2023년부터 이어진 금수 조치의 영향은 이미 나타나고 있으며, 이대로 콩치 어획이 순조롭게 증가할 경우, 러시아에 수출하던 소형 사이즈 콩치에 대한 수요가 없다는 점이 더욱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며 우려를 표하였다.

과거 러시아에서의 일본산 냉동 콩치 수요는, 한 마리당 80그램 미만의 소형 사이즈가 중심이었다. 동 사이즈는 주로 통조림 원료로 사용되었으며, 최근 시세로는 킬로그램당 약 2달러 수준의 거래가 있었다. 이러한 가격은 일본 내 사료용 콩치 시세(킬로그램당 약 60~70엔)보다 높은 가격으로, 전체 어업 매출액을 지지하는 역할을 해 왔다.

2009~2010년 수출이 정점이었던 당시에는 전체 수출량이 7만 톤에 달하였고, 그중 80%가 러시아로 수출되었다. 그러나 이후 어획량 감소와 단가 상승

등의 요인으로 상황은 급변하였다. 2020년에 수출량 1,055톤을 기록한 것을 끝으로, 일본의 콩치 연간 수출량은 1,000톤 미만으로 떨어졌다. 또한 불황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채산성이 맞지 않아 수출이 감소하는 와중에, 2023년 여름 일본 원전 처리수 해양 방류로 인한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금수 조치에 러시아가 동참하게 된 것이 결정타가 되었다.

가장 최근에는, 중국이 6월 29일부터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을 10개 도현을 제외하고 허용하기로 했지만, 러시아 측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외교 관계의 복잡성도 겹쳐 수입 재개 움직임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2024년 일본 국내의 콩치 위판량은 3만 8,695톤이며, 평균 가격은 465엔을 기록하였다. 2025년에도 어획량이 증가하여 전체 위판량이 4만 톤을 넘어설 경우, 2019년(4만 517톤)에 필적하는 수준이 된다. 당시 러시아로의 수출량은 1,699톤이었다.

협회 측은 “약 1,700톤이 당시와 같은 kg당 2달러 수준으로 거래된다면, 전체 어업 매출액이 약 4억 엔 정도 증가하게 되어 경제적 영향이 크다. 러시아도 조속한 수입 제한 해제가 필요하다”라며 수입 재개에 대한 강한 희망을 드러내고 있다.

*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5년 7월 15일자



日 유망어업 쾡치, 3년 만에 양륙 최고가 25만 엔, 최근 보기 드문 양질

홋카이도 동부 태평양 수역에서 유망(流網) 어업으로 어획한 첫 쾡치가 지난 7월 10일, 3년 만에 홋카이도 구시로 시장에 상장되었다. 출어한 1척이 잡은 약 168kg(28상자)이 경매에 부쳐졌으며, 1마리 170g 이상인 3상자에는 kg당 세전 25만 엔의 가격이 붙어, 해당 시장의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였다.

그 외 산지별 시세는 다음과 같다:

160g 이상(5상자): 18만~22만 6,000엔

150g 이상(1상자): 17만 2,000엔

130~140g(13상자): 6만 5,000~8만 8,000엔

100~120g(4상자): 9,800~2만 6,000엔

상자당 마릿수는 60~70마리 정도이며 일정하지 않다.

유망 어업은 7월 8일에 시작되었고, 첫날에는 히로오 어협 소속 제88류세이마루(第88隆盛丸)호 한 척만이 출어하였다. 구시로시 어협의 시장 관계자에 따르면, 어장은 앓케시 근해로, “최근 몇 년 동안 볼 수 없었던 연안을 북상하는 쾡치이다. 이 시기에 이 정도 크기는 정말 오랜만”이라고 전하였다.

10톤 미만 소형선에 의한 유망어업은 8월 중순에 시작되는 쾡치 봉수망 어업에 앞서 7월에 진행된다. 전성기였던 2003년에는 3,100톤이 위판된 바 있다. 이후 자원 감소와 어장의 원거리화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연료비 상승까지 겹쳐 출어 선박도 줄어들었다. 올해 허가된 선박 수는 217척이지만, 해금일에 맞춰 출어 전 검사를 받은 것은 단 한 척뿐이었다. 도동소형쾡치어업협회의 관계자는 “오늘 조업에는 다른 어업인들도 놀라워하는 분위기고, 앞으로 출어하려는 움직임이 나올 것 같다”라고 말하였다.

3년 만에 이뤄진 유망어업 쾡치의 위판 가격은 종전 최고가(2022년의 6만 2,000엔)의 4배인 25만 엔을 기록하였다. 향후 어획에 대한 기대를 담은 ‘축하 가격’ 성격이 강하지만, 낙찰받은 업체 측은 “크기도 굵기도 뛰어나 최근 보기 드문 좋은 모양이다. 기름기도 담백해서 회로 먹기에 최고”라고 말하였다.

* 출처: 미나토신문, 2025년 7월 11일자





노르웨이, 남극 크릴 어획 독주 수익성 부족 해결 과제

남극크릴 조업은 1961년 소련에서 처음 시작하였다. 이전까지 해당 어종의 활용 방법이 명확하지 않았고, 남극 주변의 조업환경은 척박하였기 때문이다. 1982년 남극 크릴 조업은 정점을 이루어, 총 52만 8,201톤을 어획하였으며, 대부분은(93%) 소련이 어획하였다. 이 무렵 남극 크릴 어획량 증가에 따른 새로운 어업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CCAMLR(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가 같은 해인 1982년에 출범하였다. 이 기구의 첫 번째 임무는 크릴 개체군 보존을 위해 어획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었으며, 1991년 남극 크릴 자원에 대한 예방적 어획 한도는 62만 톤으로 설정되었다.

지난해 기준 남극크릴의 총 자원량은 2억 2,500만 톤 정도로 추산되며, 조업이 허용되는 지역은 생태보존 원칙에 따라 북 사우스 조지아, 사우스 샌드위치 제도에서 남극 반도까지 뻗은 구역으로 한정된다.

소련 해체 후 남극크릴 어획량은 크게 감소하였다.

1993~2005년까지 예방적 어획 한도인 62만 톤에 훨씬 못 미치는 8만 3,962톤에서 10만 9,395톤을 어획하였다.

하지만 노르웨이가 2006년 남극크릴 조업에 진입하면서 모든 것이 변화하였다. 노르웨이(에이커 바이오마린社)는 기존 그물이 아닌 진공 흡입장치를 어획 장비로 사용하였다. 노르웨이의 등장으로 남극 크릴 어획량은 급증하였으며, 2023년에는 42만 4,203톤에 달하였고, 이중 노르웨이는 전체 남극 크릴 어획의 67.2%를 어획하였다.

하지만 외형적 성장과 달리 수익성은 낮았다. 노르웨이의 에이커 바이오마린(Aker BioMarine)社의 2012년부터 2023년 연차보고서를 보면 11년간 누적된 총 손실은 1억 2,460만 달러에 달하였다. 업계는 기술 혁신과 어획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크릴 제품 시장의 한계와 높은 운영 비용으로 인하여 구조적 적자가 발생하였다고 지적하였다.

* 출처: Dailymaverick.co.za, 2025년 4월 15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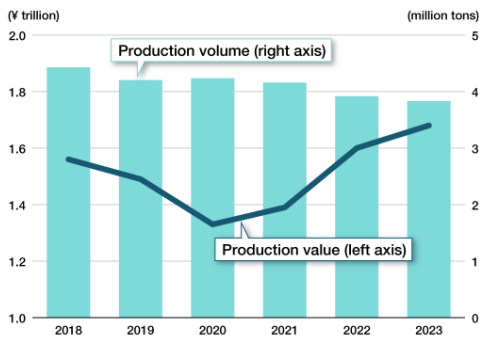


日, 2023년 수산물 생산량 2% 감소

가격 상승으로 생산액은 5% 증가

일본의 2024 회계연도 수산업 백서에 따르면 2023년 일본의 어업 및 양식업 생산액은 전년 대비 5% 증가한 1조 7,000억 엔을 기록하였다. 반면 생산량은 2% 감소한 380만 톤에 그치며, 1984년의 1,280만 톤의 30%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Japanese Fishery Production Volumes and Values



Created by Nippon.com based on data from the 2024 White Paper on Fisheries. nippon.com

어분 가격의 급등으로 정어리 가격이 2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해면어업 가치는 9,534억 엔으로 4% 증가하였고, 해면 양식업 가치는 김 가격 상승으로 5,956억 엔인 10% 증가하였다. 반면 내륙 어업과 내륙 양식업의 합산 가치는 3% 감소한 1,363억 엔을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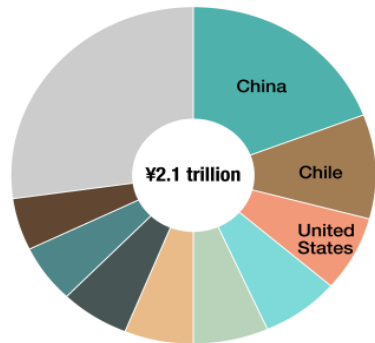
양식업은 88만 톤으로 전체 생산량의 23%를 차지하였지만, 생산 금액은 7,169억 엔으로 전체의 43%를 차지하였다.

일본의 식용 수산물 자급률은 2023 회계연도에 약 54%로 전년 대비 2% 포인트 하락하였다. 이 비율은 1964년 회계연도에 113%로 정점을 찍은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은 0.1kg 감소한 21.4kg으로 추산된다. 이

수치는 2001년에 40.2kg으로 정점을 찍었으며, 그 이후로 소비량은 꾸준히 감소추세이다.

일본의 수산물 수입량은 2024년 220만 톤으로 전년도 수준이었으나, 수입금액은 2.2% 증가한 2조 1,000억 엔을 기록하였다. 수산물 주요 수입국은 중국, 칠레, 미국 순이었으며, 상위 3개 품목은 연어(송어), 새우, 다랑어였다.

Top Countries and Regions Supplying Japan's Marine Product Imports (2024)



Created by Nippon.com based on the 2024 White Paper on Fisheries. nippon.com

2024년 일본의 수산물 수출량은 45만 톤으로 5.5% 감소하였으며, 수출액은 3,609억 엔으로 7.5% 감소하였다. 주요 수출 대상국은 홍콩, 미국, 대만이었으며, 주요 품목은 가리비, 방어였다.

2024년 백서에는 해수 온도 상승과 해류 변화 등 기후 변화가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백서에 따르면 꽂치, 오징어, 연어의 어획량이 2014년 54만 8천 톤에서 2023년 10만 7천 톤으로 약 80% 급감하였다.

* 출처: Nippon.com, 2025년 7월 14일자



노르웨이, 러 기업 제재 조치 동참

EU 제재 따른 조치

노르웨이 정부는 EU가 5월 20일에 내린 결정에 따라 러시아 어업 회사인 노레보 홀딩(Norebo Holding)과 무르만 시푸드(Murman Seafood)에 대해 제재를 가하기로 결정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제재가 노르웨이의 안보 정책적 이익에 기반한다고 밝혔다.

5월 20일, EU는 “러시아의 불안정화 활동”을 이유로 두 기업에 대한 제재를 채택하였고, 노르웨이 정부는 이를 인용해 설명했다. 제재의 근거는 두 기업이 간첩 행위에 연루되었다는 혐의지만, 이 혐의에 대해 기업들은 부인하고 있다.

5월 20일은 EU 구매자들이 두 기업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자금을 송금할 수 있는 마지막 날짜가 되었다. 따라서 5월 20일 이전에 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아직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더 이상 그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

노르웨이 정부는 이번 결정의 목적이 “사보타주, 해저 케이블 훼손, 사이버 활동, 허위정보 유포 및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훼손하려는 시도” 등과 같은 동맹국에 대한 공격적 하이브리드 캠페인을 억제함으로써 러시아의 활동 여지를 제한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노르웨이 정부는 제재가 국제사회가 러시아의 국제법 위반에 대응하고 러시아의 행동 여지를 제한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수단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이번 제재로 두 회사의 선박은 노르웨이 항구 및 영해에 접근할 수 없게 되며, 원칙적으로 두 선사 소속 선박에는 노르웨이 경제수역에서의 어업 허가도 발급되지 않는다.

정부는 또한, 이번 제재 대상 지정에 따라 해당 기업이 소유하거나 보유 또는 통제하는 자금과 자산은 동결되어야 하며, 제재 대상 기업 또는 그 이익을 위해 자금이나 자산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고 덧붙였다.

6월 2일, 유럽 최대 수산가공 및 수입협회인 AIPCE-CEP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금융안정·금융서비스·자본시장연합(FISMA) 부서에 제재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에 대해 FISMA는 6월 26일 회신을 통해, 5월 20일 이후에는 계약일과 무관하게 노레보 홀딩 및 무르만 시푸드로부터 생산된 제품에 대해 이들 회사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어떤 대금도 지급되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FISMA의 답변에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만약 중국 가공업체가 5월 20일 이전에 해당 두 기업으로부터 원료를 구매하고 이를 가공하여 EU 기업에 판매할 경우, 그 제품을 EU 기업이 구매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이 경우 5월 20일 이후에는 두 러시아 회사로 자금이 환류되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은 러시아산 명태의 최대 수입국이며, 이 중 상당 부분이 가공되어 EU, 특히 독일로 수출된다.

“우리는 이 부분을 알지 못한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반드시 명확한 답변을 필요로 하는 핵심적인 질문이다. 이 문제는 아직 명확히 해석되지 않았다”라고 AIPCE-CEP 관계자는 7월 2일 Undercurrent News에 밝혔다.

현재까지 노르웨이와 러시아는 국제해양탐사위원회(ICES)에서 러시아가 제외된 이후에도 어업 자원 관리 협력을 유지하고 있다. 7월 1일, 노르웨이와 러시아 과학자들은 2026년 대구 어획 쿼터를 21% 감축하고, 가자미 어획 쿼터는 18% 증액할 것을 공동으로 권고하였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5년 7월 7일자

FAO, 세계 수산물 소비 증가세 둔화 전망

아시아가 수요 증가 주도, 유럽은 감소세

OECD FAO의 전망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식량 및 비식용 수산물에 대한 전 세계 수요는 1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 10년간의 성장률(24%)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전문가는 아시아 지역의 수산물 수요 증가율이 지난 10년간의 32%에 비해 11% 정도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러한 예측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시아는 소비 증가의 75%를 차지하고 아프리카(15%), 북남미(11%), 오세아니아(1%)가 그 뒤를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의 소비는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식용 수산물에 대한 수요는 1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어분이나 어유 등 비식용에 대한 수요는 더디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반적인 수산물 소비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유럽의 경우 소비량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는 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추가 수요의 주요 공급원이 될 것입니다. 2034년까지 이 지역은 소비 가능한 어패류의

73%를 차지할 것이며, 이 중 중국이 37%를 차지할 것이다.

전 세계 1인당 수산물 소비량 증가율은 지난 10년간의 12%보다 훨씬 낮은 3.3%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1인당 연간 소비량은 21.1kg에서 21.8kg으로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세계 어업 및 양식업 생산량은 향후 10년간 12%(1억 8,900만 톤에서 2억 1,200만 톤으로 2,300만 톤 증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소비와 마찬가지로 성장률은 지난 10년간의 24%(3,700만 톤 증가)에서 둔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식용으로 소비되는 생선 및 기타 수산물의 세계 무역은 2034년까지 7.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지난 10년간 9.0% 성장). 이러한 성장 둔화는 높은 운송 비용, 생산량 증가 감소, 특정 지역의 내수 수요를 충족하려는 요구에 기인한다. 한편, 2034년까지 세계 식용 어류 및 기타 수산물의 수출량은 4,300만 톤 수준에서 4,600만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출처: Fishery.ru, 2025년 7월 16일자



英, MPA 저층 어업 전면 금지 추진

佛 어업계 “어업 현실 외면한 졸속 규제” 주장

프랑스 어업계는 6월 9일에 공개된 영국 연안 MPA 대부분에서의 저층 트롤어업 금지 제안에 대한 영국 어업계의 우려에 공감을 표하였다.

9월 1일까지 12주 동안, 이 제안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지만, 프랑스 해양수산양식위원회(CNPMEM)는 협의 기간을 11월 1일까지 연장할 것을 요청하였다.

CNPMEM은 이 금지안이 프랑스 조업선단에 중대한 경제적, 사회적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며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에 따라 100척 이상의 선박이 영향을 받을 것이며, 그중 상당수는 프랑스 브르타뉴(Bretagne)인이 소유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이 제안에는 영국 EEZ 내 41개 연안 MPA의 약 30,000km² 해저에서 저인망 어구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제안은 36개 MPA에서 동어업을 전면 금지하고 나머지 5개 MPA에서는 기존 저인망 어구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포함한다.

CNPMEM은 영국 정부의 매우 짧은 공개 협의 기간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였다. CNPMEM은 이것이 “심도 있는 과학적 분석이나 어업 전문가와의 협의를 허용하지 않아 적절하지 않다”라고 지적하였다.

올리비에 르 네제(Olivier Le Nezet) CNPMEM

회장은 영국 총리에게 서한을 통하여 ‘관련 이해관계자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협의 기간을 11월 1일로 연장’할 것을 요청하였다.

프랑스의 이니셔티브는 지난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3일간의 영국 방문과 맞물렸다. CNPMEM은 MPA 문제와 이것이 프랑스-영국 어업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양국 간 논의의 틀 안에서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하였다.

올리비에 르 네제 회장은 “우리는 해양 환경 보호라는 목표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지만, 현장의 현실과 동떨어진 일방적인 결정은 거부한다. 36개 구역에서 트롤 조업을 전면 금지하는 이번 제안은 전례 없이 잔인하다.”라고 말하였다.

이 제안에는 31개 MPA의 특정 구역에서 저층 능동 어구를 금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부 MPA에서 수동 어구(통발, 고정 자망, 저연승 어업 등)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영국 어계는 이 제안에 대해 ‘어민과 연안 지역 사회에 대한 놀라운 공격’이라고 비난하였으며, 영국 국가어업연합(NFFO)은 영국 정부가 ‘환경 시민단체의 과학적 근거 없는 주장에 굴복했다’라고 지적하였다.

* 출처: Fishing News, 2025년 7월 17일자



꽃

김 춘 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 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7월 오징어 국내 동향

전월 대비 생산량 112% 증가, 수입량 14%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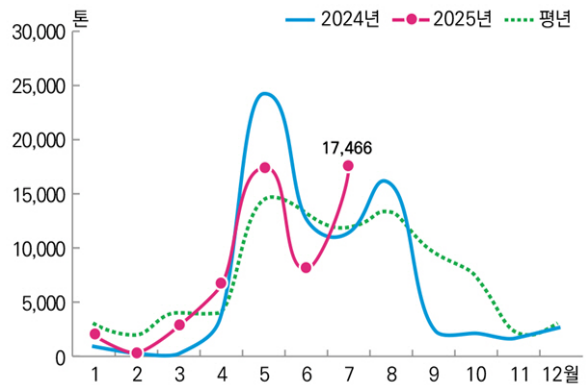
❖ 생산동향(전월 및 작년 동월 대비 큰 폭 증가)

7월 오징어 생산량은 연근해산 및 원양산 모두 늘면서 전월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1만 7,466톤이었으며, 작년 동월에 비해서도 51.7% 많았다.

연근해산 생산량은 5,134톤으로, 동해안 생산은 줄었으나 서해안 및 남해안 생산이 늘면서 전월 대비 49.8% 증가하였다.

작년 동월에 비해서도 전체 해역 생산량이 모두 늘면서 세 배 이상 많았는데, 다만 어획되는 개체의 크기는 다소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양산 오징어는 전월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1만 2,332톤으로, 작년 동월에 비해서도 24.1% 많았다. 그러나 7월까지 누적 반입량은 4만 4,051톤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9.9% 적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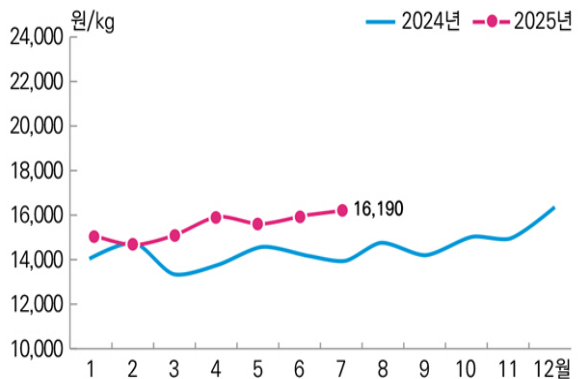


❖ 가격동향(연근해산 냉동오징어 소비자가격 미형성, 원양산 소폭 상승)

오징어(신선냉장) 산지가격은 생산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오징어 품질이 개선되면서 전월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며, 연근해산 오징어(신선냉장) 도매가격은 전월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연근해산 오징어(냉동) 도매가격은 전월 대비 4.0% 하락했는데, 소매가격은 기준 크기(300~400g) 이하의 오징어가 대체로 신선냉장으로 공급되면서 전월에 이어 미형성되었다.

원양산 오징어(냉동) 소매가격은 원양산 반입량이 늘었으나, 7월 20일 이후 반입된 물량이 대부분으로 전월 대비 1.2% 상승한 kg당 1만 6,190원이었다.





❖ 수출입동향(7월 오징어 수입량, 증가세 이어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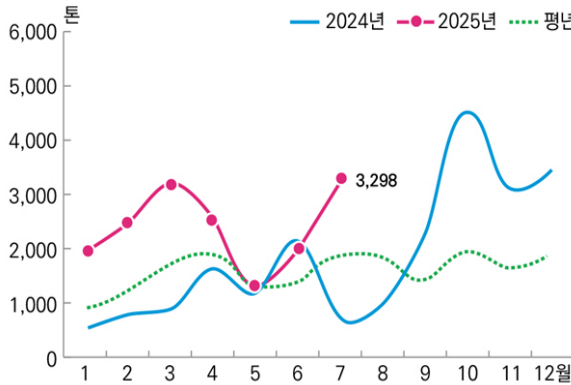
7월 오징어 수출량은 전월 대비 63.1% 증가한 3,298톤으로, 작년 동월에 비해서도 네 배 이상 늘었다.

국가별로 수출량을 살펴보면, 중국으로의 수출량이 2,368톤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아이슬란드(509톤), 미국(301톤) 등의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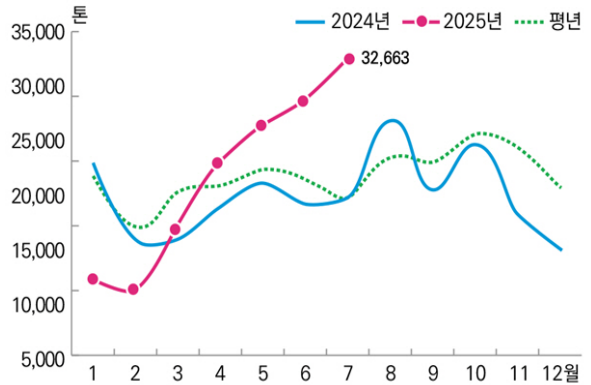
7월 오징어 수입량은 3만 2,663톤으로, 지난 2월 이후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2020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이는 작년부터 부진했던 페루 홈볼트오징어 어황이 올해 회복되면서, 높은 국내 수요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별로는 페루산이 1만 6,203톤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중국산(7,017톤), 칠레산(1,982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오징어 수출량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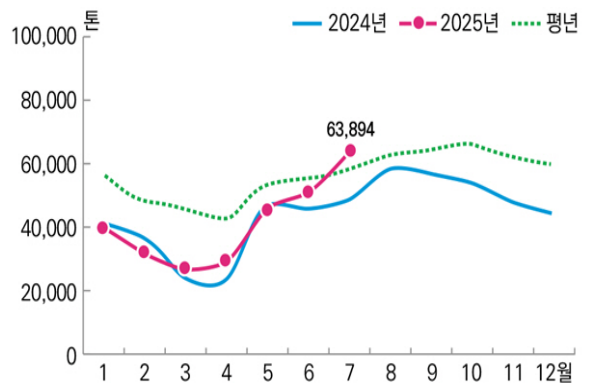
〈 오징어 수입량 추이 〉



❖ 재고동향(전월 대비 25% 증가)

7월 말 오징어 재고량은 연근해산 생산 및 원양산 반입 증가로 전월 대비 24.5% 증가한 6만 3,894톤이었으며, 작년 및 평년 동월보다도 많았다.

연근해산은 전월 대비 22.3% 증가한 1만 2,239톤이었으며, 원양산은 25.1% 증가한 5만 1,655톤이었다.



* 출처: KMI 수산관측 8월호



7월 명태 국내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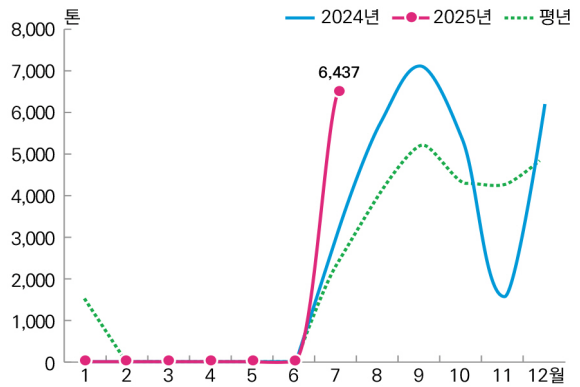
전월 대비 수입량 41% 증가, 소비자가격 2% 하락

❖ **생산동향**(원양명태 반입 시작, 전년 및 평년보다 많아)

6월 1일부터 러시아 해역에서 원양어선 3척이 명태 조업을 시작했으며, 7월부터 원양명태가 반입되기 시작하였다.

명태 생산량은 전년 대비 108.0% 증가한 6,437톤이었으며, 평년에 비해서도 160.7% 많았다.

한편, 7월 31일까지 러시아수역 내에서 어획된 원양 명태는 1만 1,296톤으로 배정된 쿼터의 45.2%를 소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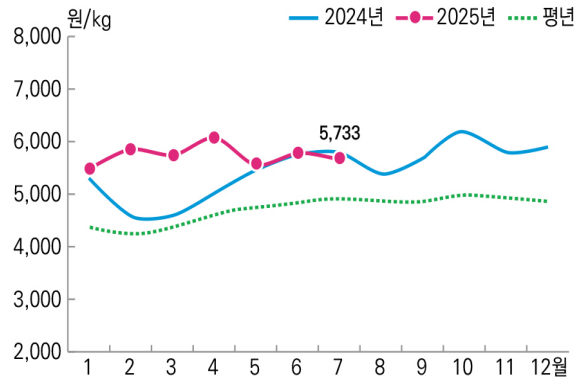


❖ **가격동향**(소비자가격, 전월 대비 2% 하락한 kg당 5,733원)

7월 명태(냉동) 도매가격은 전월에 이어 kg당 2,172원에 형성되었으나, 전년 동월 대비 9.0% 낮았다.

명태(냉동) 소비자가격은 일부 대형소매점의 할인 행사 영향으로 전월 및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7%, 1.9% 하락한 kg당 5,733원이었다.

그러나 평년 동월보다는 17.9%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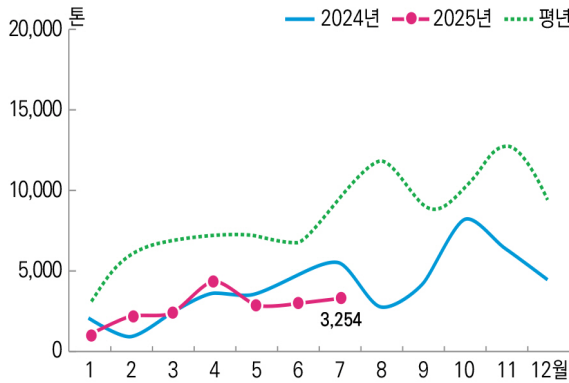


❖ 수출입동향(수입량, 전월 대비 41% 증가한 2만 7,949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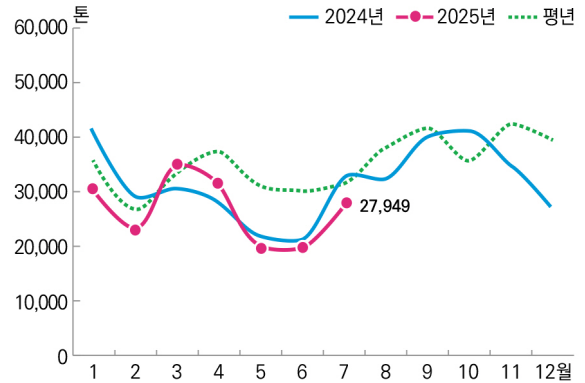
7월 명태 수출량은 3,254톤으로 전월보다 4.6% 증가하였으나 전년 동월 대비 42.9% 적었다.

국가 및 제품형태별로 보면, 냉동 제품은 중국(1,158톤), 베트남(123톤) 등이 수출되었고, 냉동필렛은 말레이시아(189톤)로, 냉동연육은 태국(1,151톤)으로 수출되었다.

〈 명태 수출량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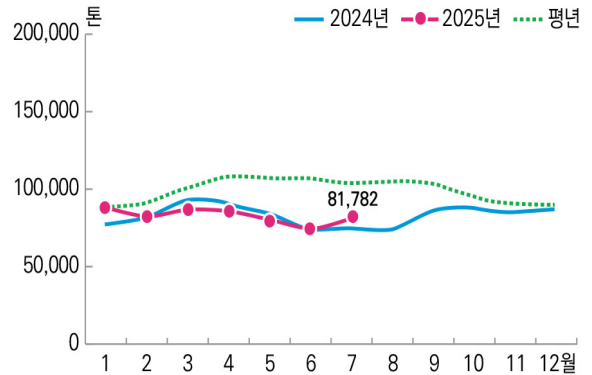
〈 명태 수입량 추이 〉



❖ 재고동향(재고량, 전월 및 전년 동월 대비 증가)

7월 말 기준 명태 재고량은 전월보다 10.2% 증가한 8만 1,782톤이었다. 이는 반입이 시작된 가운데 수입 또한 늘었기 때문이다.

한편, 전년보다 원양산 생산이 빠른 시기에 시작되면서 반입량이 크게 늘어 전년 동월에 비해서도 5.1% 많았다.



* 출처: KMI 수산관측 8월호



세계 오징어, 공급 부족 속 가격 상승

지정학적 긴장과 지속가능성 도전 직면

2024년 기준 약 130억 달러 규모로 평가되는 세계 오징어 산업은 소비자 수요 증가에 따라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지만, 동시에 공급 부족과 지정학적 긴장, 규제 강화 등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세계 오징어 산업은 다음 세 종이 중심을 이룬다.

- *Illex argentinus*(아르헨티나 짧은지느러미 오징어): 주로 남서대서양, 아르헨티나 EEZ 인근에서 조업

- *Dosidicus gigas*(홍볼트오징어): 페루, 에콰도르 연안의 남동태평양에서 풍부

- *Todarodes pacificus*(일본 살오징어): 북서태평양에서 조업, 한중일이 주요 어업국

최근 10년간 전 세계 어획량은 연간 300만~500만 톤 수준이며, 이들 종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중국은 남미, 서아프리카, 서태평양에서 세계 최대 원양 오징어 선단을 운영하며, 공해 수역에서 활발한 어업을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IUU(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에 대한 규제 압력이 강해지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자국 EEZ 내 어업 활동을 계절적으로 제한하며, 철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였다. 한국과 일본은 북서태평양에서 조업하며 일본 살오징어 어업의 핵심 국가이다. 페루와 에콰도르는 홍볼트오징어 중심의 자원 보유국으로, 가공 산업 성장과 동시에 중국 선단 규제에도 나서고 있다.

2025년 2분기 기준, 오징어 가격은 다음과 같은 요인으로 상승 중이다.

- 엄격한 자원 관리: 어기 단축 및 할당량 강화

- 연료·인건비 상승: 장거리 조업의 부담 증가
 - 중국 내 수요 확대: 가공 오징어·건조 제품 소비 급증
- 그 결과, 아르헨티나 오징어는 톤당 약 2,600달러, 일본 오징어는 2,000달러 이상으로 거래되고 있다. 이는 전년 대비 15~20% 상승한 수치다.

중국 저장성 저우산시는 전 세계 원양 오징어 물류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후이쿤 부두는 남서대서양·남동태평양에서 입항하는 냉동 운반선의 중심지이며, 52만 톤 이상의 냉동 저장 용량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 태국, 베트남 등은 오징어를 수입해 가공 후 재수출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유럽, 일본, 미국, 한국 등은 주요 소비 및 수입국으로 자리 잡고 있다.

오징어 어업은 IUU 어업, 과잉 어획, 인권 침해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공해상 조업에 대한 과학적 자원 관리와 국제 협력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SPRFMO)는 홍볼트오징어 보존조치를 시행 중이나, 보다 강력한 데이터 수집과 단속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NGO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원양선단에서는 노동 착취, 강제 노동, 비인도적 환경 등 인권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수산업계 관계자는 “오징어 어업은 이제 단순한 수산물 시장을 넘어 식량 안보와 해양 주권, 글로벌 물류 전략이 교차하는 복합 산업”이라며, “공급망 투명성, 자원 관리 강화, 국제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해양 경제 구축이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 출처: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 2025년 6월 30일자



어업과 수산업 법적 지위 재정립 필요

지속가능성을 위한 산업 지원 체계에 일관성 필요

산업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어업과 수산업의 개념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최근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관련 법령에서의 개념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현재 ‘수산업법’,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련 법령은 유사한 산업군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업과 수산업에 대해 서로 다른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이러한 법적 불일치는 어업인과 수산인의 범위 설정, 정책 수혜 대상 결정, 통계 기준 마련 등에 있어 혼선을 초래하며,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효과성까지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로봇 등 첨단기술이 수산업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고 산업 간 융·복합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현행 법체계는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디지털 유통 시스템, 스마트 양식업, 수산물 물류 데이터 분석 등은 이미 수산 현장의 핵심 업무로 자리잡았으나, 이에

종사하는 인력의 법적 지위는 여전히 불분명한 상황이다.

어업의 개념을 전통적인 조업 활동에만 한정할 경우, 기후변화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조업일수가 줄어드는 현실에서 기존 어업인들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있다. 동시에, 새로운 융복합 산업 종사자들이 법적 보호 체계 밖에 머물게 되면 수산업 전반의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처럼 산업 현실과 괴리된 법적 정의는 정책 수립과 집행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산업 변화에 대한 제도적 대응 능력까지 약화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어업과 수산업을 독립적이면서도 상호 보완적인 정책 단위로 구분하고, 현재 산업 구조를 반영한 법적 정의 재정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향후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융합 산업 전반을 포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면, 수산업의 지속가능성과 정책 유연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출처: 한국수산신문, 2025년 8월 4일자



수산물 소비 활성화 위한 새로운 접근 필요

가격·품질 중심에서 가치·경험 중심 소비로 변화

국내 수산물 소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소비 트렌드에 주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세계 수산물 소비 증가속에서 우리나라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2006년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점진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60대 이상 고령층을 제외한 모든 나이의 수산물 소비량은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산식품산업 전반의 성장과 확장 가능성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의 가치관과 다변화된 취향 속에서, 수산식품은 손질이 번거롭고 조리 부담이 큰 식재료로 인식되어 식단에서 우선순위가 낮아지고 있다. 이는 수산식품이 결들이로 밀려나는 현실을 반영한다.

하지만, 수산물의 소비감소에도 새로운 기회가 포

착되고 있다. 최근 소비자는 단순한 가격과 품질을 넘어 건강·환경·윤리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자신의 신념을 소비에 반영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식품 소비는 맛이나 기능을 넘어, 감성·문화·경험·이야기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제 식품에 대한 소비는 맛과 품질뿐만 아니라 그에 담긴 의미와 정서, 분위기까지도 영향을 주는 중요한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따라 수산식품도 단순히 식량을 넘어 취향을 표현하는 기호식품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커졌으며,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변화해야 수산식품 소비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다.

* 출처: KMI 동향분석, 2025년 8월 4일자

기후 위기 최전선에 선 식량 산업

국민 건강 유지를 위한 영양가 높은 식품 구매 촉진 필요

FAO의 2024 세계식량농업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극한 기상 현상이 빈발하면서, 식량 생산비 증가, 생산량 감소, 식품 가격 불안정 등 다층적 위협에 직면해 있다. 기후 위기 속에서 식량 산업, 특히 식품 가격 급등은 저소득층의 부담으로 직결되어, 식량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다.

소비자는 환경, 사회, 건강상 가치를 기반으로 식품을 선택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지속가능한 식량 생산 전환에 중요한 수요 기반이 된다. 특히 교육, 환경, 사회 이슈에 관한 기여 의식

이 소비자 행동 변화의 핵심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후 충격으로 인한 식품 가격 상승은 저소득층의 예산 부담을 가중한다. 반면 고소득층이나 가치 중심 소비자는 높은 가격에도 환경 및 사회적 가치를 보고 소비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식량산업은 기후위기의 영향을 최전선에 있으며 지속가능 생산 방식을 도입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이에 생산자의 재정적, 행정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 출처: 2024 세계 식량농업 보고서, 2025년 7월

한국원양산업협회 연락처

임원실	성명	전화번호	비고
협회장	김영규 회장	589-1600	
해외협력본부장	신현애 전무	589-1602	해외협력본부
경영지원본부장	이성재 상무	589-1603	경영지원본부
비서	조한솔 대리	589-1601/1621	비서, 출납

구분	성명	전화번호	담당
경영지원본부	기획홍보부	이성재 상무	총괄(겸직)
		김효상 차장	기획
		조성주 과장	홍보
		김민재 주임	원양뉴스, 생산통계
	회원지원부	소기동 부장	총괄
		김영수 과장	무역제도, 수출통계
		최은혁 대리	노사, 선원
	총무부	공길용 과장	총무, 회계
		조성환 과장	서무관리, 차량운영
		이인수 사원	원양어업경영자금

구분	성명	전화번호	담당
해외협력본부	해외협력1부	신현애 전무	총괄(겸직)
		최봉준 과장	국제협력
		백상진 대리	참치선망
		김지원 사원	참치연승
	해외협력2부	진호정 부장	총괄
		최상진 주임	오징어, 기타트롤
경영지원본부	부산지부	이형균 이사	총괄
		김현애 과장	수출, 반입
	공인계량소	이동주 팀장	차량계량
	최광준 팀장	차량계량	

해외수산물협력센터	센터장	이상묵 센터장	044-868-7360	총괄
기획운영팀	김선미 팀장	044-868-7834	행정 총괄, 기획	
	김단비 행정관	044-868-7837	예산, 인사	
해외진출팀	이은 행정관	044-868-7836	ODA, 명예수산물	
	신승호 행정관	044-868-7838	통계, OFIS	

해외수산물협력센터	국제협상팀	양재걸 전문관	044-868-7364	국제(수산)기구
	김수민 전문관	044-868-7363 <td>국제(수산)기구 </td>	국제(수산)기구	
	이승은 전문관	044-868-7831 <td>국제(수산)기구 </td>	국제(수산)기구	
	-	044-868-7833 <td>국제(수산)기구 </td>	국제(수산)기구	

명예해양수산물관	세네갈	김점봉 수산물관	221-33-853-0850 senegalkim@gmail.com
	피지	김종태 수산물관	679-330-7188 ckpfj@naver.com
	인도네시아	박상천 수산물관	62-21-2287-4165 scpark@top-bridge.com
	사모아	오시영 수산물관	1684-258-9900 syoh_2@hotmail.com
	뉴질랜드	윤정환 수산물관	64-3-344-1617 seajho@xtra.co.nz
	모리셔스	이동춘 수산물관	230-217-1700 kmarinelee@gmail.com
	아르헨티나	이상우 수산물관	54-223-495-0712 kargeexport@gmail.com
	가나	이윤홍 수산물관	233-303-200995 skshipafrica@yahoo.com
파푸아뉴기니	정승화 수산물관	675-321-8137 jc651016@gmail.com	

발행	2025년 8월 15일
원양산업	등록일자 1981년 8월 27일
제1184호	등록번호 서초라-00012호
발행처	특수법인 한국원양산업협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6층 (양재동, 삼호물산A빌딩)
발행인	김영규
편집인	
☎ 팩스: (서울) 02-589-1630/1 (부산) 051-253-3392, (세종) 044-868-7840 ◆ 홈페이지: www.kosfa.org	